



**춘천지역
협동조합
운동사**

협동과 호혜로 움직이는
협동조합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어느덧 '협동과 호혜로 움직이는 세계 제일 협동조합 도시'를 중심 정책 방향으로 추진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게 위탁했었던 공적 업무를 협동조합에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이 탄생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의 증가 수와 활동 영역이 더욱 확장되면서 일상 속에서 점점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시민의 정부에 들어서 협동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총 245개로 도내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최초로 택시협동조합이 출범하였고, 현재 3곳의 택시협동조합이 운영 중입니다. '춘천시민축구단'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구조의 안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연대,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협동과 호혜의 가치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운동사는 이러한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협동의 정신과 가치, 역사를 우리가 찾아내고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된 작업이었지만 우리 안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협동의 역사가 새로운 협동을 도모하는 시민들에게 큰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2021. 09.

춘천시장 이재수

협동의
물꼬 트기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어떤 협동조합 만드시게요?”

“글쎄요... 어떤 것 만들 수 있어요?”

“왜 만드시려고 하시나요?”

“.....”

“그럼, 무엇을 협동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온전한 삶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에 늘 직면해 왔습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그런 위기와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럿이 십시일반으로 공동의 경제자원을 마련하면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음을 협동조합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정상적인 삶을 회복해야 할 필요, 그리고 인간 삶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생활재, 주택, 일자리, 긴급 자금, 의료서비스 등이 결핍되어 생기는 욕구를 협동과 호혜의 원리로 충족해 왔던 협동의 경험과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춘천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협동조합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지역 협동의 뿌리를 찾아내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이 여정이 우리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약간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진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협동의 필요를 느낀 모든 분에게 이 여정이 협동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 09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조 경 자

마주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

김윤정

(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장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경영학 강의를 하던 사람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현장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 중 협동조합 ‘교육과나눔’을 만났습니다. 춘천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이 된 첫 번째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협동조합은 처음이었던 사람에게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배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육과나눔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춘천두레생협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일궈온 시간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온통 신기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하나둘 또 다른 협동조합을 만드는 길을 함께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나에겐 이런 협동조합들이 진짜 세상살이를 알아차리게 만든 ‘인생학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에게도 협동조합을 함께 하자는 말을 건넬 때는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인생의 의미와 무게를 함께 공유하자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협동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간다는 것의 깊이를 알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동조합운동사> 발간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도 현재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살피고,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연구자의 눈으로 살필지, 협동조합 활동가의 흔적 찾기가 될지, 아니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에 대한 과거를 탐색할지 말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마리로 연결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크고 작은 기억의 조각들을 함께 맞추어가는 시간은 그저 과거로 함께 떠나는 여행길과 같았습니다. 수십년을 거슬러 갔다가도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지역 협동조합의 흔적과 길을 모아 본 이번 작업에는 몇 가지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농협, 수협, 축협 등 전국에 포진된 관제형 협동조합은 독자적인 기록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 <협동조합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연대기를 그려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귀를 기울여, 시간과 시간 사이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움직임이 지역사회의 역사적 상황과 지역민의 요청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에게 협동조합의 의미를 재고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만들어 온 지역 사람들의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굵직한 기억과 함께 부정확한 주관적 기억에도 의존해야 한다는 것도 역시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직, 협동운동의 명확함이 시기에 따라 넘나들 수 있고, 어쩌면 개인의 삶과 여정으로 만나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 이전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협동조합이 많지 않기에 더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소중한 흔적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만나고 있는 협동조합들은 주로 2010년 이후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은 비교적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료가 만들어져있기에 이번 작업에서 전반적인 실태를 짚는 정도로 같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1920년대~1960년대는 대체로 신문자료를 중심으로 시대 상황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 협동조합과 관련한 과거사 연구작업들이 다소 있으나, 춘천지역에 대한 언급이나 연관자료가 충분치 않았던 관계로 신문기록의 참고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언론 기사의 작성 배경이나 의도를 쉽게 헤아리지 못해 해석의 방향이나 깊이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시금 확인한 점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은 수많은 지역 사람들, 평범한 이웃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습이 여전히 현재로 이어지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 누군가가 삶의 문제와 요청 앞에 막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며 해결하기 위한 애씀이었습니다. 또한 시대별로 처한 사회적 상황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그렇게 움직여 사회를 조금씩 바꾼 사람들의 여정이 어찌면 다른 모습일지라도 오늘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협동조합을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칸막이를 걷어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자리에서 자주 만나보지 못했던 신협과 자활, 생협, 영농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과 조직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더 열심히 나눌 수 있어야 함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기억과 시간의 흔적을 애써 찾아내고,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많은 분의 덕분으로 서툰 첫 시작을 엮어낼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신협 분야에 대해서는 가톨릭춘천신협의 한광수 상임이사님과 춘천와이신협이 남겨두신 기록이 특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관심과 도움을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강원도 여러 지역을 누비며 실마리를 찾아주신 전홍우 선생님, 많은 양의 자료 학습도 기꺼이 함께하며 원고작업에 힘써주신 김익수 선생님과 허윤정 선생님, 진행되는 동안 부지런히 실무를 지원한 안서희 연구원,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역할로 함께 해주신 이진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춘천의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을 마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기회가 출발선이길 바랍니다. 이제 막 시작한 경험의 기록들이 지속적으로 쌓여 협동조합이 지역 속에서 더 건강하고 깊게 뿌리내리는 데 일조하길 바랍니다.

차례

발간사

협동과 호혜로 움직이는 협동조합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 이재수 춘천시장
협동의 물꼬뜨기 / 조경자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여는 말

마주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 / 김윤정 (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장

과거를 찾다

1920년대~1960년대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의 생활상

춘천지역 '협동' 정신의 역사적 발자취

400년 전통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협동조합 풀뿌리 정신!	15
: 도촌동약 陶村洞約 과 도촌동계 陶村洞契	
역사 속 협동조합의 빛과 그림자	20

1970년대~1980년대 서민 중심 풀뿌리 연대와 신용협동조합

춘천지역 신용협동조합의 태동과 흐름

춘천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여정	37
• 신탁, 그 기억을 찾아 / 임홍지	40
• 운교신탁의 흥망성쇠, 사람 중심의 신뢰를 말하다 / 배종구	45
• 농민을 위해 만났던 신탁활동 / 유남선	48
•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 박명근	51
• 신탁정신에 반한 신부님, 지역 신탁 설립자가 되다 / 정귀철	54
• '나눔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 / 하화식	58
기관인터뷰 01 · 춘천와이신탁 묵묵히 견뎌온 '함께'의 시간이 지역으로 향하다	62
기관인터뷰 02 · 가톨릭춘천신탁 "따뜻한 금융"으로 선순환하는 지역을 꿈꾸며	69
기관인터뷰 03 · 봄내신탁 지역 금융 속에서 '사람'을 향한다는 것	74

현재를 보다

1990년대 이후 지역의 변화와 협동의 움직임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지역 문제를 마주하다

춘천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흐름	79
• 생명운동을 통해 공동체의 연결을 실험하다 / 이재수	81
• 처음에 시작할 때, 다섯 집으로 시작했지 / 이재욱	86
• 엄마의 마음으로 가꿔낸 지역 '삶터' / 김선옥	91
춘천의 지역생협 소개 01 춘천두레생협	99
춘천의 지역생협 소개 02 춘천아이쿱생협	114
춘천의 지역생협 소개 03 한살림춘천	116

1990년대 이후 지역의 변화와 협동의 움직임2

노동자협동조합의 꿈과 실업극복운동

춘천지역 실업 극복 운동을 통해 바라본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시사점	119
• 우리 시대의 진짜 '필요'는 무엇일까요? / 임형석	122
• 교육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나누고 인적 자원을 네트워크화하다 / 조정현	126
• 새희망건축에서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까지 / 임형석	132

춘천지역 협동조합의 다양한 면모

• 협동을 일구는 농민들의 이야기 / 전기환	141
• 농촌마을의 '함께 돌봄', 별빛이 만든 협동의 별자리 / 윤요왕	146
• 자연부락, 삶에 깃든 마을 협동의 가치 / 이석희	151
지역 청년들의 협동조합 이야기 춘천지역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을 묻다	155
춘천지역 협동조합의 현황 들여다보기	162

미래를 향하다

2021 춘천시 협동조합 운동사 간담회 스케치
남기는 것과 바라는 지점의 성찰173

담는 말

협동의 삶으로 이정표를 삼는다는 것
/ 김윤정 (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장

부록

도촌동약陶村洞約201
동헌洞憲204
협동조합 관련 추천도서 목록210

참고자료216

과거를 찾다

Search for the past



400년 전통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협동조합 풀뿌리 정신!

: 도촌동약^{陶村洞約}과 도촌동계^{陶村洞契}

『춘천향교지』(춘천향교, 2019)에 따르면 「도촌동약」은 신북읍 지내2리에 전해지는 일종의 향약으로 지내리의 역사를 담은 고문서다. 기록을 살펴보면, 신의를 다지고 화목함을 닦는다는 내용으로부터 관혼상제의 마을 일을 서로 돕고 환란을 서로 구제해 주기로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지내리 마을은 해마다 연초에 3개 리가 모여 합동으로 세배를 드리고 동계(洞契)를 결산하는 행사를 400여 년째 지켜오고 있다.

근심과 재난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는 일(화재를 당하여 다 타고 남은 것이 없을 때 상하를 막론하고 각기 지붕을 이을 짚 한 단, 서까래 한 개를 가지고 원조한다.)

거두어 나누어 주는 유사(有司)*의 일은 아래서부터 위로 미치고 차례로 돌아간다.

상하 유사(有司)가 만 일 년이 되어 서로 바꾸는데 맡은 일을 게을리했거나 동원(洞員)을 업신여기고 능멸한 자는 벌을 논한다.

신의를 다지고 화목함을 닦는 일(봄 3월과 9월에 쌀을 모아 차례로 술을 담그고 노래하고 춤추며 매우 즐겁게 노는데 술기운을 빌려서 호기를 부리며 잡담하고 긴장하지 않아 탈난 것에 대해서 벌을 논한다.)

위에 소개한 내용은 일종의 마을 규약인 ‘동헌(洞憲)’의 일부인데 마을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보아 마을 전체의 화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 내 협동의 가치를 지금까지 지켜나가는 마을이 바로 ‘춘천’이라는 것은 춘천의 정체성을 찾고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데 공헌이 크다(「춘천 사람들」 2016. 2. 24 기사).

*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고, 공동체의 일원을 서로 존중하고 마을 일에 책임을 다할 것을 규약으로 정한 도촌동약의 정신과 오늘날 협동조합이 지향하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 2021년 5월 현재, 춘천에서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256개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 수가 얼마가 되든, 춘천의 협동조합 모두 400년 후 미래 세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협동의 가치를 잘 계승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 규약자료 별도부록 첨부



▶ 지내리 『도촌동약』 관련자료(출처: 『춘천향교지』, 춘천향교, 2019)

HOME > 뉴스 > 동네방네

400년의 전통을 이어온 특별한 마을 총회

☞ 오동철 | Ⓞ 승인 2016.02.24 16:14 | 💬 댓글 0



정월대보름을 3일 앞둔 지난 19일 신북읍 지내리에서는 특별한 마을 총회가 열렸다. 3개리가 합동으로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는 도촌동계로 이미 4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유서 깊은 행사다. 신북읍 지내리는 앞쪽으로 모진강(북한강)에 이르고 뒤로는 수리봉에서 이어지는 성문안산의 높은 산맥이 지켜주는 마을로 상리·중리·하리로 나뉘어 있던 마을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내1·2·3리로 구분된 마을이다.

지내리 마을은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지만 해마다 연초에 3개리가 모여 합동으로 세배를 드리고 동계(洞契) 결산을 하는 행사를 400여년째 지켜오고 있는데, 이 전통은 도촌동약(陶村洞約)이라는 문헌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마을의 연혁과 규약, 상벌규정을 담고 있는 2권의 동약과 입향인들의 성명이 기록된 좌목 등 5권으로 되어있는 도촌동약은 우리나라에서 동계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장 오래된 1권을 강원대학교 모 교수가 빌려간 후 반납을 하지 않아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촌동계를 맡고 있는 김영대 계장은 도촌동약을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로 올해 동계에서는 지내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특강도 진행해 지내리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행사를 통해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고 사건 사고가 없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87세의 고령자부터 40대 중반의 장년층까지 60여명이 참여한 올해의 도촌동계는 새로운 신입 동원 3명이 가입해 더욱 알찬 동계를 꾸릴 수 있게 됐다는 김영대 계장의 전언이다.

강원도 내에는 영동지역 일부에 18세기의 동약이 존재하지만 영서지역에는 오래된 동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데, 400여년째 전통을 이어가는 도촌동약이 영서지역 최고의 동계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향토사학자들의 주장이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시골마을에서 아이울음이 끊기고 전통이 사라지는 시대인 요즘 이런 오래된 전통을 지켜나가는 마을이 춘천에 있다는 것은 춘천의 정체성을 찾고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동철 시민기자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4
(검색일 2021.06.11.)

HOME > 마을이야기 > 봄내시내 옛것새것

[지명에 얽힌 춘천인의 삶] 지내리(池內里) 성문마을

☞ 이학주 | ☎ 승인 2016.07.07 23:18 | 💬 댓글 0

발 빠른 나그네도 가끔 자신이 사는 동네 구석구석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내가 산다고 내 마을을 정말 잘 알 것 같지만 그것은 내 눈에 띈 곳일 뿐이다. 어쩌면 보고 싶은 곳만 보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 때문일 것이다. 바쁜 일상에 봐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요즘의 사정이니, 어쩌면 내 사는 동네도 잘 모르는 것은 당연지사일 게다.

춘천에 몇 십 년을 살아도 지름물이라는 뜻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름물'은 '질우물'에서 음차의 변화로 불리는 이름이다. 한자로 하면 도정리(陶井里)라고 한다. 질그릇 도(陶)자에 우물 정(井)자를 쓴다. 이쯤 되면 '아~하!'하고 다들 아는 체를 할 것이다.

아주 아득한 옛날 이곳에 옹기와 도자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다. 질그릇을 굽기에 좋은 토질의 흙이 나고, 질그릇을 구울 때 사용했던 우물이 있어 '질우물' 또는 '지름물'이라 했다.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부른다.

지름물 사람들은 《도촌동약(陶村洞約)》이라는 오래된 마을규약을 가지고 있다. 질그릇을 굽던 마을에서 비롯된 이름을 한자로 바꾼 것이다. '질그릇마을'이 변해서 도촌동(陶村洞)이 된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스스로 마을규약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했다. 그래서 도촌동의 약속으로 규약집을 만들고, 《좌목(座目)》이라 해서 마을사람들의 성씨와 직위와 자손 등의 가계를 기록해 두었다. 《도촌동약》과 《좌목》이라는 책은 지름물사람들이 살아온 내력을 볼 수 있는 책이다. 《도촌동약》 내용은 이렇게 엮여졌다.

<마을 자치 향약의 대동결날 화목을 도모하는 일>. 봄 삼월과 가을 구월, 계원이 차례로 술을 담그고, 음식을 만들고 하루를 즐겁게 회의를 한다. 술에 취해 잠담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주정하는데 대해서 벌을 주는 일. <해가 바뀌어 상하유사를 서로 바꾸는 일>. 말은 바 일을 게을리 했거나 남을 업신여기고 폭력을 쓴 자에 대하여 벌을 내리는 일.(《도촌동약》 <동헌(洞憲)>의 일부)

지름물 사람들이 어떻게 마을을 이끌어 왔는지 볼 수 있는 자율규약이 잘 나타나 있다. 봄가을로 마을 화전놀이와 단풍놀이가 있었는데, 주정을 하거나 규약을 어기면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일까? 이 마을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난 돌로 된 벽 안을 성문안이라고도 부른다. 돌벽은 성문 바위라 부르고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길은 성문길이다. 지름물마을을 스스로 이상향으로 만든 것이다. 성문(城門)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만의 이상향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마을입구 성문바위에 이렇게 한시를 써 놓았다. 옮기고 번역해 본다.

陶山日光追憶傳(도산일광추억전)
 도산에 햇빛은 추억처럼 전하고
 城門月影古今同(성문월영고금동)
 성문의 달그림자 언제나 같구나
 柳柳靑靑法谷驛(유유청청법곡성)
 버들잎 푸르고 뺨꼭새소리 들리니
 錦錦色色香華村(금금색색향화촌)
 비단처럼 색색이 향기롭고 빛나는 마을

혹자는 맥국의 성문안이라 하기도 하나, 지름물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상향을 일컬었던 듯하다. 여기서 도산(陶山)은 지내리 뒷산을 일컫고, 마을 안에는 월형동(月形洞) 또는 월영동(月影洞), 뺨꼭재라는 소지명도 있다.

성문바위, 지름물(지내저수지), 도촌동약과 좌묵

이학주 (문학박사)

저작권자 © 《준천사람들》 - 시민과 동행하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역사 속 협동조합의 빛과 그림자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거쳐 찾아낸 춘천지역 협동조합, 또는 협동의 기록은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홀썬 시공간을 달리해 사는 관점에서 추측하거나 해석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궁핍한 삶 속에서도 누군가는 생업에 필요한 협동을 일구어내고, 또 누군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혁신 활동을 하기도 했다. 가마니 짜는 기계를 발명하고 생산조합을 만들어 농가 소득에 이바지했다는 박창훈 씨의 이야기나, 빈민구제 사업을 하다가 빈민과 더불어 협조조합을 설립해 공동생산과 분배를 실행했다는 백인배 씨의 이야기 등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빛과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수육과 목탄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공동의 협동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춘천 청년들의 조직인 '산업청년회'는 각박한 식민의 삶에 희망을 품는 방법이였을지 모른다.

협동의 자발적 움직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근농 공제조합이나 누룩제조조합, 일제강점기 반관반민 조직이었던 삼립조합, 금융조합, 수리조합 등은 형식적으로 조합이었으나 목적과 운영 측면에서는 민초들의 삶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우리가 협동조합에 주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삶, 지역을 아울러 함께 나아가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일 것이다. 사람이 함께 사회를 꾸려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나 필요는 시대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과거의 일이 마치 현재의 그 어떤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래도 또 그렇게 현재의 그 어떤 일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입승제조기계의 청년발명가
생산판매조합도 창립
춘천 신남면 박창훈 씨”

부의 축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참한 농민의 삶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마니를 짜는 기계를 생산하여
월부로 판매하여 보급.
가마니생산조합을 만들어
생산자 수 200호가
1년에 14만4천 매 생산,
년 2만8천 원의 매출을 이룸.



춘천 청년 발명가가 일구어낸 혁신과 협동조합

청년 박창훈(朴昶勳)씨와 그가 개발한 가마니 짜는 기계 및 조합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이다. 박창훈 씨는 경성휘문의숙(京城徽文義塾)과 고등공업학교(高等工業學校)의 전신을 2학년까지 다니다가 고향 춘천 신남면(新南面) 퇴계리(退溪里)*로 돌아갔다. 자신의 배움을 바탕으로 가마니를 짜는 기계를 발명하여 월부 판매 방식으로 보급하고, 더 나아가 고향에 가마니생산조합을 만들었다. 생산자 200호가 1년에 14만4천 매를 생산해 연간 2만8천 원의 매출을 성취하였다. 그런데 년 매출 2만8천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 당시 천일염 100근이 1원 50전이었고, 신문 구독료가 월 1원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청년의 발명이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 오늘날의 춘천시 퇴계동을 가리킨다.



차별행위에 대한 비판

위 기사는 차별에 관한 사례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중 춘천과 관련된 내용은 수리조합의 일본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 지급 문제에 관한 것이다. 본래 수리조합은 1906년 관개배수시설의 신설 및 보수와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조합이다.* 춘천 수리조합의 일본인 서기에게 고액의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조합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 위키백과 수리조합 조 참고(위키백과 21.9.17 검색)

조선일보(1927.07.31.)

‘산업청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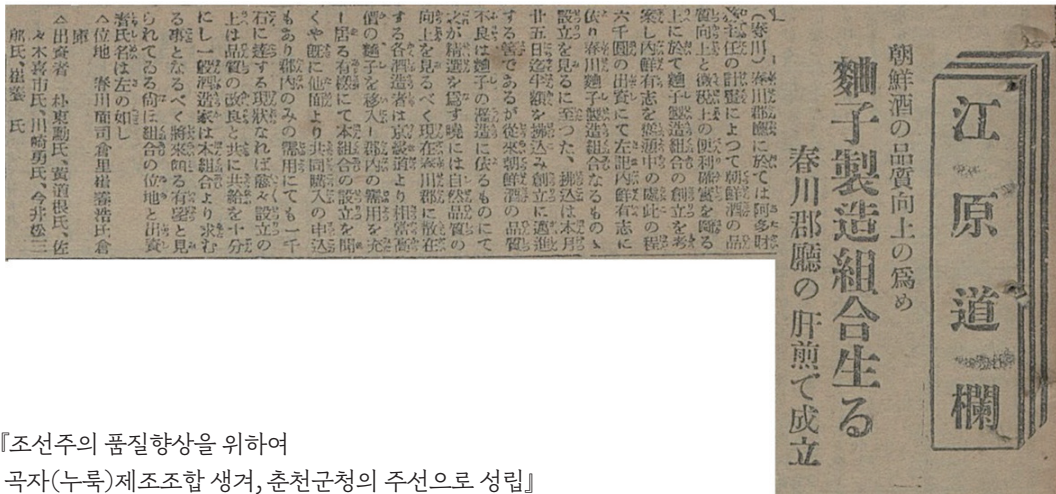
조선 산업화를 위한
청년들의 시도로써 사회가 주목
축산부/농작부/재정부 등의
구조로 연구와 사업을 겸하는
청년 산업 운동을 조직



시대를 선도한 춘천 청년들!

춘천의 청년들이 조선산업화를 목적으로 ‘산업청년회’를 조직하였다는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본 산업청년회는 축산부·농작부·재정부·연구부으로 나눌 정도로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축산부는 양봉(養蜂)·양계(養鷄)·양잠(養蠶)·양돈(養豚)을, 농작부는 전작(田作)·산림(山林)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연구부에서는 독서를 선전할 뿐만 아니라 수의학과 병사학(病史學) 등을 연구한다. 재정부는 회계와 경영을 전담한다. 당시 사회적으로 덴마크(丁抹)의 선진 지식과 경험을 배우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본 산업청년회가 이와 같은 운동의 맥락에서 출현하였다고 분석하였다.

* 실제로 덴마크의 협동조합과 관련된 서적이 해방 후에 발행되었다. 홍병선, 『정말 농민과 농촌의 재건-농촌협동조합조직법』, 광문출판사, 1951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21.9.16 검색)



『조선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곡자(누룩)제조조합 생겨, 춘천군청의 주선으로 성립』

누룩제조조합,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조선주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누룩[曲子]제조조합이 생겼다는 기사이다. 본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춘천군청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순수한 민간의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조선총독부가 세금 징수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누룩제조조합의 설립으로 전국의 누룩제조장의 수가 약 10/1로 급감하고,* 이로 인해 우리 술의 다양성을 잃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 외에도 조합 창고의 위치로 춘천면(春川面) 사창리(司倉里)*** 최양호(崔養浩)****씨 창고를, 출자한 사람의 명단으로 박동훈 씨, 황도근 씨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국세청기술연구소일백년사2009』에 따르면, 1928년 11,883개의 누룩제조장의 수가 1929년에 1,434개로 줄었다. 국세청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기술연구소일백년사2009』, 경부간행물, 2009, 121쪽. (국가기록원 웹페이지 21.9.16 검색)
 ** 이대형 전통주 연구자, 「그 많던 누룩은 어디로 갔나」, (브런치 21.9.16 검색)
 *** 사창리의 일부가 오늘날의 춘천시 소양동 소양로3가(昭陽路3街)가 되었다. 소양로3가와 낙원동 중간에 있는 고개를 사창고개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부르고 있다. (춘천문화원 「춘천의 지명유래」 21.9.16 검색)
 **** 최양호는 춘천의 대표적인 친일파유지자로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春川郡內에 勤農組合 小農의福音

「春川」本郡內에 勤農 共濟組合을 設置할 所는 全郡 十三 面中에 小農들이 第一한 地는 東, 東內, 西下의 三面을 選定한 後다 시 前記 三面內에 잇는 各四處의 小農 部落에 組合을 設置키로 決定되 都合十二 組合을 設置키로 決定되 야지 廿七日에 統一한 一切의 手續을 畢하고 道로부리 認可를 得하였 스므로 이제 道로부리 組合業務 執行의 着手키로 되얏는데 이 外에 더욱 組合設置에 對한 種種을 徹底히 明하고 또 組合事務의 實際運用 上 小農도 遺漏가 없기를 期必키 爲 하야 關係面 職員及 當該 組合의 勤農 輔導委員을 卽시 十六日 道로부리 向 三日 間 郡廳에 招集하고 講習會를 開催한다 드레 組合名及 組合員數, 輔導委員 氏名은 如左 하더라

組合名	組合員數	輔導委員
△東面 月谷洞勤農 共濟組合	二七	安東國
萬泉洞勤農 共濟組合	二五	朴聖在
枝內洞勤農 共濟組合	二七	李平九
甘開洞勤農 共濟組合	三〇	朴世榮
△東內面 碩士洞勤農 共濟組合	二六	李昌夏
後上洞勤農 共濟組合	三〇	李鳳儀
舉頭洞勤農 共濟組合	三三	朴完燮
鶴谷洞勤農 共濟組合	三〇	李寬用
△西下面 上芳洞勤農 共濟組合	三五	趙明九
下芳洞勤農 共濟組合	三一	黃春根
錦山洞勤農 共濟組合	三五	朴性龜
玄岩洞勤農 共濟組合	三五	劉泰鏞

근농공제조합

춘천에서 소농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동면(東面)·동내면(東內面)·서하면(西下面)* 세 군데의 면에 소속된 각기 4곳의 동, 도합 12곳에 근농공제조합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기사이다. 동면의 월곡동(月谷洞), 만천동(萬泉洞), 지내동(枝內洞), 감개동(甘開洞), 동내면의 석사동(碩士洞), 후상동(後上洞), 거두동(舉頭洞), 학곡동(鶴谷洞), 서하면의 상방동(上芳洞), 하방동(下芳洞), 금산동(錦山洞), 현암동(玄岩洞)을 제시하고 있고 있으며**, 각 조합의 조합원수와 보도위원(輔導委員)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근농공제조합은 조선총독부가 생산자금대부사업의 일환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소농을 대상으로 소액의 돈을 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소농을 대상으로 일을 주어 노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입의 일부는 저금하게 하였다. 또 금연이나 금주 등 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 동면, 동내면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행정구역이며, 서하면은 1934년 서상면과 병합되어 서면으로 개칭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웹페이지, 21.09.16 검색)
 ** 월곡동, 지내동은 오늘날의 월곡리와 지내리를 가리키며, 기타 몇 군데는 역사적으로 행정 병합이나 개칭 등의 이유로 현재 지명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다.
 *** 예지숙,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10년~1936년)」,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군포시사편찬위원회, 『군포시사2.군포의 등장과 역사적 변천』,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10, 363-364 참고 (국회도서관 21.9.16 검색).



호자, 농민을 구하다

본 기사는 춘천의 사북면(史北面) 지촌리(芝村里)의 서상규(徐相圭, 60여 세) 씨가 목욕재계하여 기도로서 양친을 병에서 구한 효행과 양식용통조합(糧食融通組合)을 설립하여 마을의 여러 가난한 농민을 구하는 등 크고 작은 공로를 소상하게 기록하였다. 당시 지촌리는 28호 백 수십 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서상규 씨는 마을 주인의 가난 구제뿐만 아니라 마을민의 납세를 돕고 교육에 힘쓰며, 수공업을 도모하게 하였다. 본 기사는 양식용통조합의 면모보다는 서상규 개인의 훌륭한 점을 소개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지만, 서상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마을민의 공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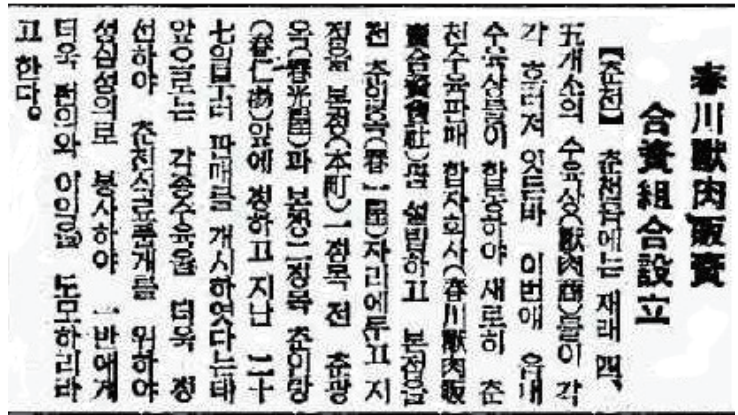


공동생산·공동분배, 빈민의 협조조합

당시 춘천읍 가연리(佳淵里)*에 거주하던 백인배(白仁培, 51세) 씨는 여러 차례 쌀을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빈민 구제에 나섰다, 1929년 무렵 전평리(前坪里)**의 10여 호의 빈민과 더불어 협조조합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는 기사이다. 처음에는 백인배 씨는 자금을 대어 논밭을 구매하여 그들 빈민에게 나누어 주어 협조조합을 설립한다. 협조조합에서는 각 조합원이 공동 생산하여 그 결과물은 평등하게 분배하였으며, 그들은 최초로 자금을 조달한 백인배 씨를 하늘과 같이 믿었다 한다.

* 오늘날의 춘천시 죽림동을 가리킨다. (춘천문화원 「춘천의 지명유래」 21.9.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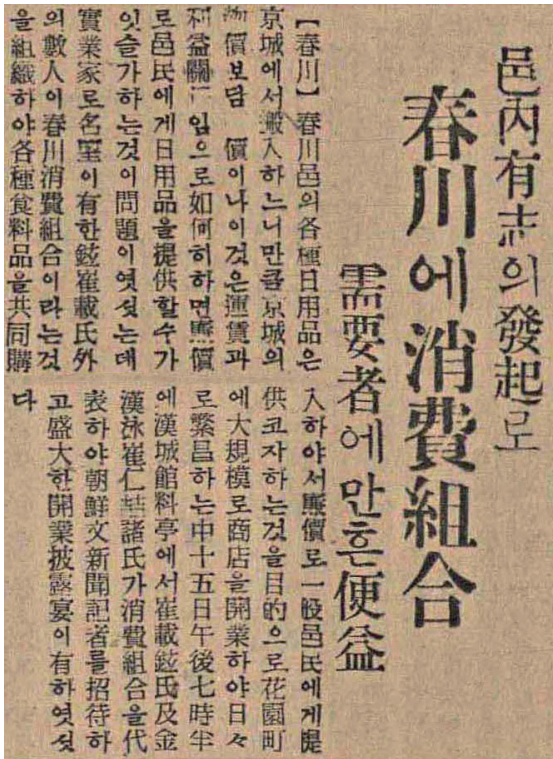
** 오늘날의 춘천시 근화동을 가리키며, '앞두루' 우리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문화원 「춘천의 지명유래」 21.9.17 검색)



수육상들의 판매합자회사

위 기사는 1934년 당시 춘천읍에서 활동하던 네 다섯 군데의 수육상(獸肉商)들이 함께 모여 춘천수육판매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합자회사는 전 춘일옥(春一屋) 본점 1곳과 본정1정목(本町一丁目)과 본정2정목(本町二丁目)*에 지점 2곳을 두고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각종 수육을 더욱 정선하여 춘천식료품계를 위하여 성심성의로 봉사하겠다고 말하며 합자회사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본정1정목과 본정2정목은 오늘날의 춘천시 중앙로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춘천 시간여행, 시내 고갯길, 봄내, 2013. 6, no270, 24쪽 참고.



실업가가 발기한 춘천소비조합

위 기사는 1935년 춘천의 실업가 최재현(崔載鉉) · 김한영(金漢泳) · 최인철(崔仁喆) 등이 춘천읍민에 저가의 상품을 제공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춘천소비조합을 조직하였다는 내용이다. 본 조합은 공동으로 구매하여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도입하였고, 회원정(花園町)*에 상점을 개업하였다. 본 기사는 이들 조합의 대표로부터 한성관(漢城館)이란 요청에서 접대를 받은 이후에 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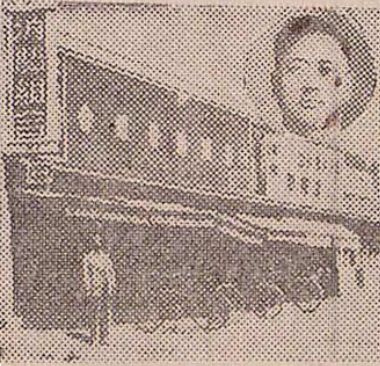
* 오늘날의 춘천시 요선동을 가리킨다. (춘천문화원 「춘천의 지명유래」 21.9.17 검색)

鑛·商業界의 重鎮

春川消費組合主 崔載鉉氏

氏는當年四十一歲의壯年實業家로
 人格과財産이兼備하였다. 氏는果
 斷性있고 沈着한性格의所有者로
 引續 春川農業學校를 卒業한後
 十餘年間官界生活을하다가 京仁
 富野田村合名會社農場을 支配한
 일이잇섯스며 그後다시春川에歸
 郷하여 春川消費組合을設立 食
 料品販賣를 經營하여 獨特한商
 業藝術로 內鮮人間의 日用食料
 品을 獨占配給하고잇스며 最近
 에는 組合內에 洋服部를두어婦
 活動을하고있다. 또한江原糯米所
 를引受經營하는外에 春川邑 新
 北 新南二個邑面에農場을 經營
 하고잇스며 昭和十三年부터 春
 川郡史北面에華德堂石鑛山(鑛區
 三區)을同郡西面에는 同德金鑛
 鑛山(鑛區三區)를買受하여 本

格的作業을하고잇는中으로 年産
 額數十萬圓을 不下하는 好績을
 示顯하고있다. 氏의 活動이多方
 面에 及하고잇는만큼 百科實業
 家란 別呼까지되고잇스며 今春
 에는 春川邑會議員에 當選되어
 邑勢發展에 攄身努力하고 잇는
 活動家이다. (寫眞은消費組合店舖 內崔載鉉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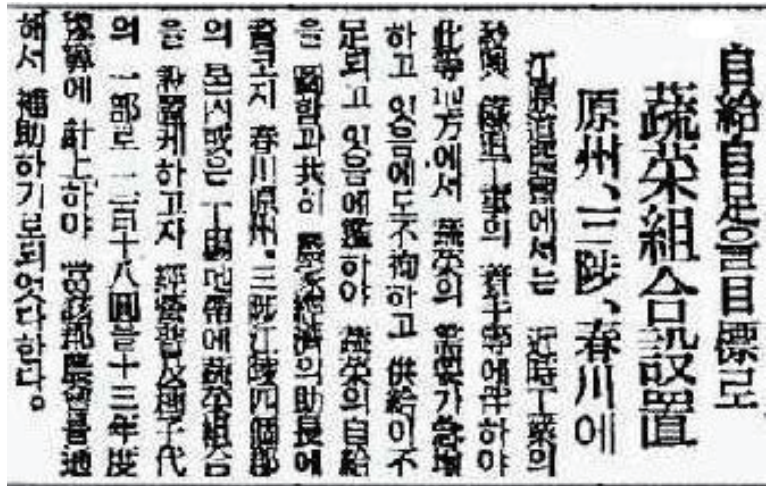
백과실업가 최재현

위 매일신보(1935.12.24.)에 실린 춘천소비조합을 발기한 최재현을 소개하는 성격의 기사이다. 1935년에 춘천소비조합을 설립하고 약 4년 후 1939년에 그를 과찬하는 기사가 다시 매일신보에 실렸다. 1939년 당시 41세의 최재현 씨는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외지의 경인부평전촌합명회사(京仁富野田村合名會社) 농장을 경영한 적이 있고,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한 것을 보인다. 소비조합뿐만 아니라 양장·정미소·광산 등 다양한 사업에 두루 운영하여 백과실업가(百科實業家)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다. 1939년 봄에 춘천읍의원(春川邑議員)으로 당선되어 정계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품질로 호평 받던 춘천의 목탄 조합

춘천의 목탄은 원래부터 품질 좋기로 유명하였는데, 이들 목탄을 생산하는 업자들 중심의 군목탄조합(郡木炭組合)이 조직되고 목탄은 나날이 생산이 늘었다는 기사이다. 군목탄조합은 역시 판매상의 협동조합인 경성연료상협동조합(京城燃料商協同組合)과 계약을 맺고, 강원도를 넘어 경성에까지 진출해 품질에서 많은 호평을 받는다. 또 일부 적지 않은 양은 일본으로까지 수출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자급자급을 위한 채소조합의 설립*

강원도농회(江原道農會)의 주도로 당시 춘천·원주·삼척·강주 4개 군의 읍내 지역에 채소[蔬菜]조합을 만들었다는 기사이다.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고 만들어진 강원도농회**의 성격에 근거해 봤을 때 채소조합 역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발족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사에 따르면, 당시 강원도 지역의 공업 진흥 및 철도공사의 착수로 인하여 채소의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공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채소조합이 요청되었다. 기타 읍내나 공장지대와 같은 설립 지역, 경제적 보조 방식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본 기사는 동아일보(1938.31) 외에도 매일신보(38.2.27)에도 실렸다.

** 조선총독부의 인가로 설립된 농촌단체로 추정된다. 朝鮮總督府官報 1926.9.29., (국사편찬위원회 웹페이지 21.9.17 검색)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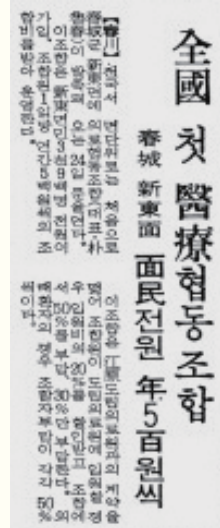
(7) 10版 第16366號

조선일보

西紀 1974年 6月 14日 金曜日 (陰曆 閏 4月 24日 丙戌)

전국 첫 의료협동조합 춘성 신동면 면민 전원 연 5백원씩

1970년대 중반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았을 당시, 시군도 아닌 **면에서 의료협동조합이 최초로 설립된 곳이 바로 춘천이라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국내에서 의료협동조합이 최초로 설립된 곳은 1968년 5월 1일, 부산의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이다. '최초'의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1인당 년 500원의 조합비를 내면 자부담 30%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모든 면 단위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더니 **그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지원인 셈이다.**



이문외 笑話 01
 1. **미친말을 하네**
 2. **시나 곳간의**
 3. **다른 사람이**
 4. **나도 한 번 주면**
 5. **사실과 정반대**

胃腸을 補하며 治療하는 漢方 노루모
 漢方 補劑 胃腸 補劑 漢方 補劑

運轉士 業主에 對한 臨時 對策
 運轉士 業主에 對한 臨時 對策

開通 이틀만에 破損
 시·南部 市外 自動 電話 開通 이틀만에 破損

全國 初 醫療協동조합
 全國 初 醫療協동조합

典當 店의 典當 品
 典當 店의 典當 品

林大統領 故 洪 範 宗 前 副 總 統 領 喪 禮
 林大統領 故 洪 範 宗 前 副 總 統 領 喪 禮

과로운 「市外 自動 電話」
 市內 거는 척... 僞裝 費用 많... 接 客 業 所 등 뜻 밖 의 料 金

서울 釜山 大 師 川 史 業 務 支
 春 日 報 業 務 支 社 監 視 員 도 未 履

조사
 春 日 報 業 務 支 社 監 視 員 도 未 履

NEWS

(23) 30版 第22032号

조선일보

西紀 1992年 6月 29日 土曜日 (陰曆 壬申 5月 27日 甲戌)

「부림제지」
경영난(經營難) 싹고
‘재생’

“재생(再生)
화장지 쓰겠다.”
밀물

「부림제지」經營難 싹고 “재생”

“再生화장지 쓰겠다, 밀물

우유팩 재활용에 전국서 격려·추문전화
“공해추방事業 계속 힘써달라”
부녀회·宗敎단체·호텔·청와대 등 사용



우유팩 재활용에 전국서 격려·추문전화
부녀회·宗敎단체·호텔·청와대 등 사용
“공해추방事業 계속 힘써달라”
밀물
부림제지(이하 부림제지)가 최근 경영난에 빠졌던 부림제지의 대표인 김명배씨가 전국에서 밀려드는 격려서인 추문전화를 받으며 활한 웃음을 짓고 있다.

◇“성원에 감사합니다.” 재생 화장지 애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부족과 정부부처의 의견으로 경영난에 빠졌던 부림제지의 대표인 김명배씨가 전국에서 밀려드는 격려서인 추문전화를 받으며 활한 웃음을 짓고 있다. <轉永照기자>

우유팩을 재활용하여 재생휴지를 만드는 제지회사가 재생휴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품질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경영난에 빠졌지만 반대로 ‘쓰레기 공해’를 줄이는 좋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일어나면서 기사회생했다는 훈훈한 소식이다.

이 제지회사는 춘천과 인연이 있는데 공장의 소재지가 춘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가 1984년부터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공책 3천 권과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왔다는 것이다. 비단 선행을 했기에 사회가 외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

하려는 국민의 앞선 의식이 선도적 친환경 기업을 살린 것이었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재생휴지를 만들고 있는 부림제지의 이야기는 협동조합이나 춘천이라는 연결고리를 내려놓더라도 뜻을 모으는 사람들의 ‘협동의 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춘천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여정*

신협이 한국에 처음 들어 온 것은 1960년.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은 6.25 전쟁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였다. 특히 지독한 가난으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는 중서민들의 고리채는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즈음 캐나다에서 지역사회 개발운동(안티고니쉬 운동)을 연구한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1960년 5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신협인 성가신용협동조합을 부산에서 창립했다. 이후 1964년 신협연합회가 창립되고,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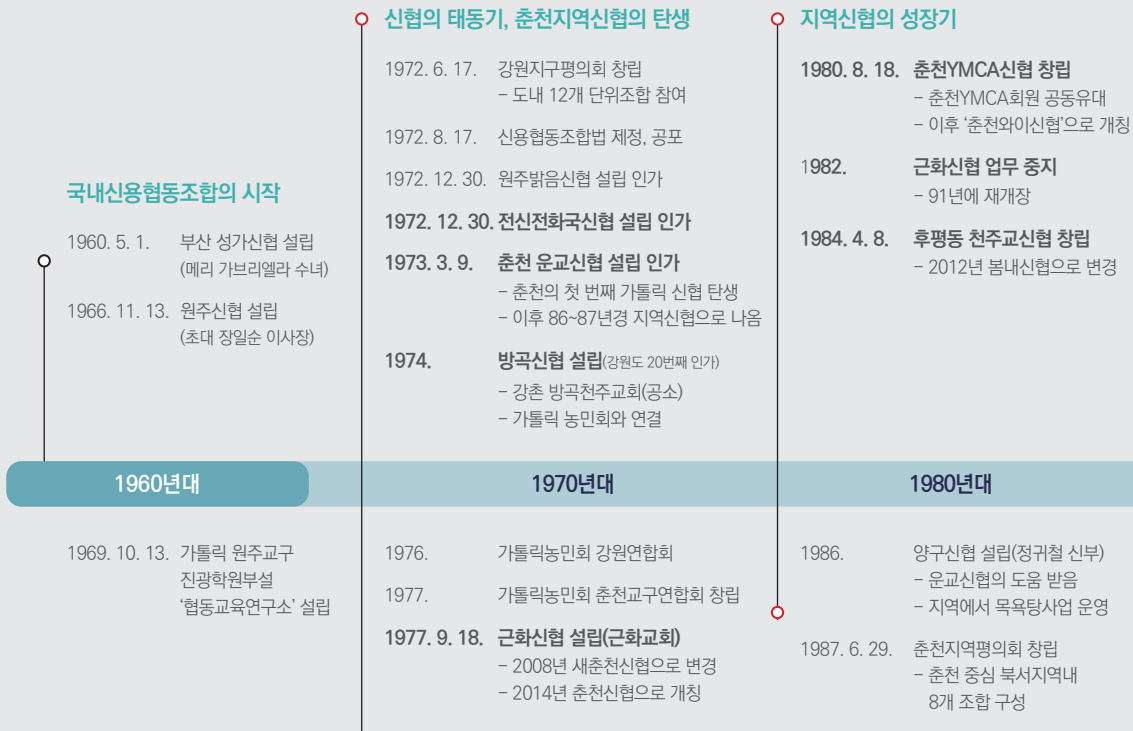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춘천지역에서의 신협운동은, 1972년 12월 30일 전신전화국신협의 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1973년 3월 9일 운교신협, 1974년 방곡신협, 1977년 9월 18일 근화신협, 1980년 8월 18일 춘천와이신협, 1984년 4월 8일 후평동 천주교신협(현 봄내신협), 1991년 1월 29일 춘천신협, 1991년 7월 13일 죽림동 천주교신협, 1992년 3월 9일에는 강원도 건축사신협과 석사신협 그리고 일심신협과 소양로 천주교신협이 동시에 설립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시작했다. 뒤이어 1993년 2월 25일 춘천서부신협과 호반신협, 1994년 7월 14일 춘천중앙신협, 1995년 10월 5일 예맥신협, 1996년 7월 26일 동춘천신협이 창립되면서 총 17개의 신협이 대동하여 활발히 움직였다.**

* 춘천와이신협 30년사, 가톨릭춘천신협 한광수 상임이사의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구성함.

** 박명근 씨 인터뷰에 의하면, 마을 단위 신협으로 방곡신협과 후동신협 설립을 증언함. 후동신협의 인가여부는 불분명하여 설립 수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신협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크나큰 시련기에 봉착했다.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면서 질적인 관리에 소홀했던 많은 조합들의 내부적 부실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회계 사고가 빈번해지고, 신협의 주 업무영역으로 여겼던 개인사업자와 가계자금대출에 은행권이 진입하는 등 전반적인 대출 수요의 감소를 겪었다. 이런 와중에 당시의 IMF 구제금융의 이행조건인 경제의 구조 조정은 금융권의 합병 및 퇴출로 이어졌으며, 신협도 예외는 아니었다.

춘천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여정



춘천시역도 당시의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총 16개 조합 중에서 12개 조합이 퇴출 및 합병 되면서 현재는 가톨릭춘천신협, 봄내신협, 춘천와이신협, 춘천신협의 4개 조합만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신협의 전성기와 IMF의 시련기

- 1991. 근화신협 재개장
 - 이후 새춘천신협을 거쳐
 - 2014년 춘천신협으로 개칭
- 1991. 7. 13. 죽림동 천주교 신협 설립
 - 97. 8. 17. 소양로 천주교신협과 합병
 - 춘천가톨릭신협으로 개칭
 - 이후 2020년에 '가톨릭춘천신협'으로 개칭
- 1992. 3. 9. 강원도 건축사신협, 석사신협, 일심신협, 소양로 천주교신협 동시 설립 인가

*소양로 천주교신협은 97년에 죽림동 천주교신협과 합병됨.

지역신협의 경쟁력 강화

* 부실금융 정리, 신규 고객 확보의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4개의 신협이 운영 중임

- 춘천와이신협
- 봄내신협(구 후평신협)
- 춘천신협(구 새춘천신협)
- 가톨릭춘천신협(구 춘천가톨릭신협)

1990년대

- 1993. 2. 25. 춘천서부신협, 호반신협 설립
- 1994. 7. 14. 춘천중앙신협 설립 인가
- 1995. 10. 5. 예맥신협 설립 인가
- 1996. 7. 26. 동춘천신협 설립 인가
- 1997~ 호반, 일심, 예맥(구 강북), 동춘천, 행정동우회, 석사(전 신망애), 건축사신협, 서부시장신협, 전화국신협 등이 대거 폐업
- 1995. 5. 운교신협 폐업

2000년대 이후~현재

금융사업 경영역량 강화
 전산업무시스템 개편
 지역사회와의 상생전략 모색
 교육의 중요성 강조

신협, 그 기억을 찾아

만남 날: 2021.04.06. 14:00 @춘천 빨간퐁차 카페

만남 사람: 임홍지 신부(前 윤교동성당 주임신부)

이야기 진행: 전홍우, 김윤정, 안서희

임홍지 신부가 협동조합과 인연을 맺은 것은 신학대 재학 시절부터였다. 서울에 협동교육연구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정규 과목으로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했다.

“1976년부터 1979년 사이 지금 효자동 성당 옆에 있는 춘천교구 교육원장으로 있었어요. 처음 지어졌던 1959년에는 수녀원 수련소로 시작했던 건물이었는데, 서울로 철수하면서 ‘마리아의 집’이라는 미혼모를 위한 집이었다가 이후엔 주로 간호대학 여학생들 기숙사로 쓰였었어요. 제가 교육원장을 맡으면서 남학생기숙사로 바꾸고 공부모임을 했지요. 당시 남춘천역 옆에 봉제공장이 있었어요. 우리도 뭐 한 가지 하자 해서 봉제공장 여공들을 위한 야학을 했어요. 저녁엔 강원대 기숙사 학생들이 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조금씩 농민회도 되고, 기도모임도 하고 한 거예요. 1979년에 흥천 서석으로 갔다가 1983년에 윤교동에 와서 기도모임을 하는데 이미 윤교신협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 가톨릭의 서울대교구 소속 협동교육연구원(Cooperative Education Institute)을 가리키며,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했다. 본래 협동조합교도봉사회(Voluntary Cooperative Center)란 이름으로 부산에서 1962년 설립되었다가 협동교육연구원이란 이름으로 1964년에 동교동으로 옮겼다. 1980년대 중반까지 활동하였다가 1996년에 서울대교구에 의해 폐쇄 조치된다. (염찬희, 「한국 협동조합의 산실: 협동교육연구원」, 『협동조합네트워크』 통권 제 55호, 2011 참고)

임흥지 신부는 1983년 춘천 운교동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운교동성당에 와서 보니 운교신협이 설립돼 활동하고 있었는데, 조합원은 주로 운교동성당 신자들과 동부시장 상인들이었다. 현재 동부시장에서 운교동성당으로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상점들이 죽 있었는데, 그 상점 가운데 하나를 신협 사무실로 사용했다.

“전임 신부님 때부터 성당 신자들을 상대로 해서 신협을 시작했어요. 일종의 단체신협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시장 상인들의 참여가 커졌어요. 시장에서 작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신협을 상당히 애용했습니다. 소액으로 꺾다가 갖고 하는 것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신협이 아주 좋았던 거죠.”



임흥지
前 운교동성당
주임신부

신협설립운동은 교구나 성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주로 신협에 대해 공부했던 신부들이 개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각자 자기가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자들이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했던 측면이 컸다. 특히 농촌일수록 농민회와 더불어 신협을 통해 지역을 살리려고 애썼다.

신협이나 농민회 활동에 대해서는 원주교구가 훨씬 앞서 있다 보니 원주지역에 가서 교육도 받고, 춘천으로 초빙하여 강의도 들었다. 임흥지 신부는 신협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신부는 정귀철 신부였다고 기억한다. 임흥지 신부가 1987년 교포 사목을 위해 미국으로 갔다가 1991년 귀국해 양구성당으로 부임했는데, 전임자였던 정귀철 신

부가 양구신협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떠났다고 한다.

임홍지 신부는 1995년에 춘천교구로 돌아와 2년 동안 근무한 후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 효자동 본당 신부를 맡았다. 임홍지 신부가 효자동성당 주임신부로 재직하던 1999년 5월에 춘천 최초의 신협이라고 할 수 있는 운교신협이 폐업했다. 운교동성당에서 대건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했기 때문에 엄마들도 운교신협을 많이 이용했다. 규모가 커지면서 운교신협은 운교동성당에서 독립해 지역신협으로 탈바꿈했지만 IMF 이후 부도를 냈다.

현재 춘천에서 천주교 계열 신협으로는 후평동에 있는 봄내신협과 더불어 죽림동성당 앞에 있는 가톨릭춘천신협 단 두 곳뿐이다.

“그때 마침 죽림동신협이 소양로, 운교동을 통합해 가톨릭신협을 만들었어요. 각 성당에는 분점처럼 회계담당자가 들어가서 교무금,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신협직원이 앉아있으면서 받고 그랬어요.”

가톨릭신협은 죽림동신협과 소양로신협이 합쳐진 것이었다. 춘천교구에 속한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톨릭신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춘천뿐 아니라 강릉에 있는 성당도 다 신협으로 연결돼 있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 등 큰돈이 필요할 때면 가톨릭신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http://www.cccatholic.or.kr/index.php?mid=archive3&category=96083&document_srl=96092
(검색일 2021.06.05.)

‘하나의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천주교 춘천교구

2016.02.17. 17:35

한국 순교성인 운교동 성당

운교동 성당은 1966년 8월 11일에 설립되었고 주보는 ‘한국 순교 성인’이다. 1964년 한국 천주교회가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시복을 앞두고 각 교구마다 순교 복자 기념성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할 때 춘천교구도 1964년 12월 현재의 운교동 성당 부지 1,590여 평을 매입하여 공사를 시작해 병인박해 100주년이 되는 1966년에 ‘한국 순교 성인’이 주보인 “한국 순교 복자 기념성당”이 설립되었



● 운교동성당 초창기 미사 모습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8179>
(사진출처: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다. 건축물로는 대성전, 사제관, 수녀원 외에 부속건물로 소성당과 하상관, 대건관, 예비자 교리실, 만남의 방으로 구성되었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일부가 모셔져 있다. 성당 마당에는 본당의 방문객들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인 한국 순교자 현양비가 있다. 설립 당시 운교동 성당의 관할 구역은 운교동 4구역, 교동 4구역, 조양동 1구역, 효자동 3구역, 옥천동 1구역, 후평동 4구역, 만천리 1구역, 도화리 등 총 19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1965년 9월 6일 죽림동과 소양로 성당에서 진출된 300여 세대 750여명의 신자로 출발하였다. 본당설립을 하며 상거리 공소가 죽림동 성당에서 운교동 성당 관할로 이관되어 왔으나 사제들이 1년에 한 두 번 공소를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할 정도로 교통편이 불편하여 공소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온힘을 기울이던 시기였으나 국민의 경제상황은 좀처럼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웠는데 이 때 교회 안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던 실정을 잘 알고 있던 주임신부가 1973년 1월 14일 운교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991년 운교 신협은 전국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1997년 10월 국가가 IMF를 당하면서 시작된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1999년 5월 문을 닫게 되었고 조합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신자들이 아쉬워하였다.

운교동 성당은 골롬반 외방 선교회 신부들이 활동했던 시기인 1978년까지 ‘행복한 가정 운동’을 펼쳐나가며 재정 자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준비해 나갔고 1979년 한국인 사제가 처음으로 부임한 이후부터는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여 본당이 대외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립의 기반을 다지게 되어 성당의



● 운교동 성당 전경(사진제공:춘천교구청 문화홍보국)

보수와 유지 등에도 교구청의 지원이 아닌 신자들이 성금을 모아 공사를 하였다. 또한 취학 전 아동들의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하여 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교구의 승인을 받아 1981년 3월 ‘대건유치원’을 개원하였다. 대건 유치원의 원명은 1846년 순교한 한국 최초의 한국인 사제인 김대건 신부를 현양하기 위해 ‘대건’이라 명명하고 “인지교육과 정서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지역내 아동들의 올바른 인성과 신앙교육을 담당하며 춘천에서 우수한 유치원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2009년 2월 폐원하였다.

2021년에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한국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 공동체 원형을 되찾고자 성전 복원을 추진해 본당이 간직한 역사를 지키고자 옛 모습을 구현해냈다.

운교신협의 흥망성쇠, 사람 중심의 신뢰를 말하다

—
만남 날: 2021.04.06. 15:00 @춘천 죽림동성당 사무실

만남 사람: 배종구(前 운교신협 이사장)

이야기 진행: 전홍우, 김윤정, 안서희

배종구 전 이사장의 기억으로는 운교신협 이전에도 몇몇 신협이 존재했다. 직장신협이었던 ‘전신전화국신협’과 지역신협이었던 ‘근화신협’이 그 주인공들이다. ‘전신전화국신협’은 전화국 직원들로 이루어진 신협이었다. 근화신협은 1982년에 업무를 중지했다가 1991년에 다시 개장해 현재의 ‘춘천신협’으로 이어졌다.

배종구 전 이사장은 1986년 당시 운교동성당 주임신부였던 임홍지 신부의 추천으로 운교신협에 입사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991년 죽림동천주교신협, 1992년 소양로천주교신협 등이 잇따라 설립됐다. 각 본당마다 신협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성당을 중심으로 신협들이 설립된 것이다.

“1986년에 운교신협 입사를 했는데, 운교신협이 일취월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직장으로도 신협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부에서도 춘천에 신협을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운교신협은 운교동 성당 신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운교신협 첫 번째 조합원은 강원대 호일염 교수였고, 두 번째 조합원은 교육청에 근무하던 유재현 씨였는데, 이들은 모두 운교동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



배종구
前 운교신협
이사장

1986년 배종구 씨가 입사했을 당시 직원은 이사장을 빼고 4명이었다. 5억 정도에 불과했던 자산이 10년 뒤인 1995년에는 150억 정도로 불어났다. 10년 만에 거의 30배로 성장해 운교동에 건물도 새로 지었다.

“사실 서민들 신용대출은 신협이 선도적으로 제일 많이 해줬어요. 그런 맥락에서 서민들은 큰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요. 신도들이나 동부시장 영세상인들을 찾아가서 파출수납을 했어요. 금리는 상호신용금고보다 조금 낮으면서 은행보다 조금 높은 중간 정도였죠. 그리고 당시엔 조합의 자산은 대출과 정비례했어요. 대출을 해주면 반드시 예금이나 적금도 들도록 권유해서 돈이 들어오면 대출도 더 많이 해 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때는 자산을 빨리 키우기 위해 집중하느라 잘 몰랐는데, 가끔 옛날 조합원들 만나면 그때 참 큰 도움이 되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의미를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신협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건 신용대출 관리인데, 운교신협은 신용도 파악을 잘했던 편이다. 예전에 여신위원이 있어 대출을 결정했는데, 위원들은 조합원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논해서 대출여부나 대출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을 반영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매일 파출수납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게 됩니다. 신도나 상인들도 서로 관참은 사람인지를 면면이 다 아는 사이니까 보증을 서 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약속대로 갚으려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인간관계로 맺어지니까 신용대출이 많았어도 상대적으로 부실채권은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운교신협의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배종구 전 이사장이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건물을 짓는 일과 춘천의 신협들이 인가받는 과정에도 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5년 전무로 재직하던 중 임직원들 간의 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그해 말에 퇴사했다. 퇴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장 출마 요청을 받고 1997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사장에 취임하고 보니 1995년 말 퇴사 당시 자산 150억에 8억 정도에 불과했던 부실채권이 자산 200억에 부실채권 80억으로 늘어 있었다. 어느 사이비 종교집단의 신도들이 서로 보증을 서서 대출하는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출 운용이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산 대비 40%가 부실채권이 됐고, 결국 1999년 5월에 파산하고 말았다.

춘천의 신협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악화로 줄줄이 구조조정의 시련을 겪었다. 소양로 천주교신협은 죽림동 천주교신협에 합병되어 춘천가톨릭신협*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운교신협 외에도 호반·예맥·일심·동춘천 등 5개 신협이 춘천에서 사라졌다.

* 하화식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현 가톨릭춘천신협을 가리킨다.

농민을 위해 만났던 신협활동

—
만남 날: 2021.04.06. 16:30 @춘천 효자동 집무실
만남 사람: 유남선(前 춘천교구 가톨릭농민회 회장)
이야기 진행: 전홍우, 김윤정, 안서희

유남선 씨가 가톨릭농민회에 참여한 것은 1976년 2월이었다. 당시 운교동로터리 부근에 있던 세종학원에서 강사를 하다가 원주교구에 가서 가톨릭농민회를 소개받고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다. 1976년 2월 25일경 가톨릭농민회 강원도연합회가 결성되고 나서 유남선 씨는 가톨릭농민회 춘천교구연합회를 조직하기 위해 낮에는 학원에서 강의하고 밤에는 주머니를 털어 조직사업에 동분서주하며 2년을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1977년 11월 7일 마침내 춘천교구연합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유남선 씨는 가톨릭 농민운동을 하면서 신협을 알게 됐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면 꼭 한 시간씩 신협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당시 강원도에서 신협의 중심은 원주였다. 신협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사람을 계도원이라고 불렀는데, 유남선은 춘천교구 계도원을 1년간 맡아 보았다.

“내가 세종학원 강사로 있을 때 운교로터리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한 50m쯤 가면 왼쪽으로 ‘광동문구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종진 씨, 이원무 씨, 유재언 씨 등 나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신협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운교신협이거든요. 다른 데는 성당에서 만들어져서 키우려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운교신협은 밖에서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교신협의 태동이 그래요.”

그러나 그는 주도적으로 신탁운동을 추진하거나 결합한 구조가 아니다 보니 40~50년의 시간을 거슬러 흔적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이나 농민운동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 기억이 뚜렷했다.

“왜 그렇게 신탁, 농민운동을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수출제일주의로 나가면서 도농 간 격차가 커지고, 도시의 영세 서민들은 물론이고 농촌경제도 점점 더 나빠져서 이농이 많아지고 이런 때였어요. 1970년대만 해도 1천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본격화됐거든요. 농촌에서 아주 꼭 필요한 일인데, 어쨌든 농민들이 살아가려면 그렇게 자조적으로 협동해서 힘을 모아야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신탁운동 슬로건이 참 좋잖아요.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농민들이나 도시의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개미군단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폰폰이 출자도 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돕고,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던 일들이었거든요.”

유남선
前 춘천교구
가톨릭농민회
회장



강촌공소에 있던 박명근 씨가 별도로 신협교육을 받고 1974년 무렵 방곡리와 후동리에 신협을 만들었다. 후동리는 유남선 씨의 고향이다. 그 인연으로 박명근 씨도 가톨릭 농민운동에도 참여했다. 이처럼 주로 농민회에서는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신협운동에 참여한 셈이었다. 그러나 신협운동이 생각처럼 활발하지는 못했다. 농촌지역은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라 출자금도 많지 않았을 테고, 각자 농업에 전념하다 보니 활동이나 이용도 쉽지 않았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만남 날: 2021.04.12. 10:00 @인제 박명근 씨 자택

만남 사람: 박명근(前 방곡신흥 설립자)

이야기 진행: 전홍우, 김윤정, 안서희

박명근 씨는 1974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방곡신흥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강원도에서 20번째였다. 강원도 고유번호가 4번이라서 인가번호가 4-20이었다.

박명근 씨는 가톨릭농민회*로 보면 강원도에서 세 번째 회원이었다. 그가 농민운동을 하던 때 유신체제가 수립되고 긴급조치가 발동되던 때였다. 당시에는 각 마을에 관 주도로 마을금고를 많이 설치했으나, 하향적이고 획일적이었다. 가톨릭농민회 본부의 엄명희 교육부장 소개로 만난 '정선생'이라는 사람이 강촌에 와서 신흥에 대해 이야기했다. 운교신흥을 만든 주도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 원주 밝음신흥 설립에 기여한 '정선생'이란 사람이고, 그 '정선생'의 권유로 박명근 씨 또한 신흥 설립에 나섰다. 그리고 그는 서울 '협동조합연구소'에서 20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 신용협동조합의 태동, 역사협동조합의 가치와 운영원리 및 관리, 로치데일 원칙** 등 신흥 설립에 필요한 교육이었다.

* 가톨릭농민회는 농민 스스로의 단결과 협력으로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농촌사회의 복음화와 인류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4년 10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내 농촌청년부로 출발했다. 1966년 10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로 독립했다가 1970년 가톨릭농민국제연맹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동시에 1972년 1월 '한국가톨릭농민회'로 개칭하여 범 농민운동단체로 새 출발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로치데일 원칙은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 지방에서 28명의 노동자가 모여 만든 소비조합인 로치데일 조합에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조합은 근대 협동조합의 효시로, 올바른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다음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출자 및 출자금 이자 제한 ② 우량 품질 ③ 현금거래 ④ 시가 판매 ⑤ 구매고에 따른 배당 ⑥ 1인1표 및 남녀평등 ⑦ 선거에 의한 임원과 위원 선출 ⑧ 교육촉진 ⑨ 보고서의 정기적 제시 ⑩ 정치 및 종교적 중립 등이다. (협동조합연구소, 로치데일 학교 ① 협동조합 원칙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네트워크 통권 제56호, 2011 참고)



박명근
前 방곡신협
설립자

당시 강촌공소^{***}, 즉 방곡천주교회에 근거를 두고 공소 신자들을 중심으로 신협을 만드는데, 역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확장 시켜야 했다. 신협 설립의 추진을 공소에서 마을 단위로 확장하는 데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협에 대한 불신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나 지금이나 농촌은 거의 농협이 장악했다. 농협이 민주화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농민에게 이로운 기관이 돼야지 수탈기구가 되면 안 된다는

*** 강촌공소는 1958년 4월 당시 춘천 죽림동성당 주임신부였던 토마스 신부에 의해 설립됐다. 신부는 구호양곡 등을 배급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고, 초기에는 개인 가정집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교리를 공부했으나 이후 '창촌공회당'(현 창촌농공단지 아파트 앞)을 거쳐 1960년에 '방곡리교회당'(전 면사무소 건물)으로 공소를 이전했다. 암부럽소 블로그, 「강촌성당 순례기-2015년 8월 15일-」, (<https://blog.naver.com/captainjeon> 2021.09.22. 검색)

생각에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견제를 해서 농협이 제 갈 길을 가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당시 농협은 농민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선이자도 떼고 출자금 증액을 강요하는 등 농민들을 어렵게 했다.

박명근 씨는 혼자 법원을 다니며 등기를 하는 등 몇 달에 걸쳐 방곡신용협동조합을 만들고 출자금도 걷고 꽤 열심히 했다.

“교적 상으로 약 70~80명 정도의 신자가 있었는데, 실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20여 명 정도였어요. 조합원으로는 거의 가입했는데 출자금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한 구좌에 1천 원으로 기억하는데, 1년 목표로 3천 구좌를 정했어요.”

방곡신협 이사장은 당시 공소 회장이었던 정광섭 씨가 맡았고, 박명근 씨는 사무국장 겸 여수신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후동리에도 신협을 만들었다. 당시 남면에는 강촌 외에 후동·광관·발산·추곡 등 5개의 공소가 있었는데 후동리에 신협을 만들고 광관리에서는 시도만 하다가 무산됐다.

방곡에는 마을금고가 있었다. 출자금도 방곡신협의 몇 배나 됐다. 그러나 방곡마을 금고는 경영부실로 침체가 되자 그걸 만회하기 위해 정미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미소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박명근 씨는 반대했지만 방곡신협이 정미소를 인수했다. 그러나 방곡신협이 정미소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로 인해 신협 자체가 기우뚱했다. 박명근 씨가 애써 교육을 받고 신협을 조직했던 개인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로치데일 법칙에서 나오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첫째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신협에서 가르치는 ‘만인은 일인을 위하고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이게 정신이니까. 한 사람이 만인을 구할 수 있고 만인이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어찌면 진짜 협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며 정의일 거야. 그래, 그런 마음이지”

농협이라는 곳은 문턱이 너무 높았다. 농민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농민이 급전이 필요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줄 곳이 필요했다. 그게 신협의 기능이고 목적이었다. 박명근은 방곡신협에서 3년간 일하고 그 뒤로는 가톨릭농민운동에 주력했다.

신협정신에 반한 신부님, 지역 신협 설립자가 되다

만남 날: 2021.04.07. 14:00 @강릉 입암성당

만남 사람: 정귀철 신부(양구신협 설립자)

이야기 진행: 전홍우, 김윤정, 안서희

정귀철 신부는 처음에 운교신협의 도움을 받아 양구신협을 시작했다. 양구신협을 설립하면서 정귀철 신부는 스스로 양구신협 1호 조합원이 되었다. 운교신협 직원이었던 배종구 씨가 직접 양구에 출장을 와서 양구신협 설립에 필요한 실무를 지원했다.

정귀철 신부가 신협운동을 처음 접하게 된 건 가톨릭신학대 1학년인 1974년이였다. 비인가로 학생들이 신협을 만들었을 때, 그가 회계이사를 맡았다. 여름방학 때 서울의 협동교육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명동성당 근처 YWCA 앞에 있었던 한국신협의 10주년 기념식에 신학교 대표로 참석한 적도 있다.



● 초기 신용협동조합 통장(사진제공:정귀철)



정귀철
양구신협
설립자

“내가 신부가 되면 신협을 해봐야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요즘도 우스갯소리로 내가 신부가 안 됐으면 아마 ‘신협맨’이 되었을 거라고 해요. 신협정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때 다 가난해서 영양실조도 많았어요. 신협교육을 받으면서 독일의 라이파이젠* 이야기도 알게 되고 하니깐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신협운동이었거든요. 1985년 9월에 양구 본당신부로 갔는데, 가서 1년 만에 세운 거죠.”

1986년 봄부터 양구신협을 만들기 위해 교육원장을 양구까지 초대했고, 사제관에 17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진행한 후 각자 1천 원씩 출자하게 했다. 그렇게 1만 7천 원으로 시작한 양구신협은 현재 자본금이 500~600억 원에 달한다. 다행히 양구 본당 신부로 오래 있었던 덕에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 18세기 중엽 독일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의 소농과 도시 수공업자가 고리 사채에 의해 극심한 수탈을 당했는데, ‘라이파이젠 농촌 신용협동조합’은 농민들을 고리 사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됐다. (김영철, 『독일의 저축은행과 라이파이젠 협동조합』,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7. 1995 참고)

“1985년 9월에 본당신부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 당시 ‘제미니’**라는 차가 있었어요. 대우자동차 전신이에요. 그때 새한자동차라고 했나? 서울에 있는 동창 신부님이 사무실에서 받았는데, 오래된 차죠. 서울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네가 시골 가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주셔서 양구로 몰고 들어갔어요. 당시 양구 읍내에 자동차가 열 대가 안 될 때인데, 29살짜리 새파란 신부가 새까만 세단을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돈 좀 있는 줄 안거지요.”

농협 직원 부부가 사제관으로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농기계를 수리하는 기술직이었지만 그래도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이 신용이 없어 농협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신자였다. 일수나 사채 등 고리채에 많이 힘들었던 것이다. 신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1년 만에 신협을 설립했다. 대출을 해주면서 뒷돈 챙기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다. 대신 대출금의 1%를 출자금으로 받으라고 했다. 직원들을 매일 밖으로 파출을 내보내 예금을 늘리는 한편, 대출을 투명하게 운영하니 마을금고 직원까지 조합원으로 참여할 정도로 믿음이 생겼다.

정귀철 신부는 1992년 2월, 8년간 봉직했던 양구성당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양구신협에서도 손을 떼게 됐다. 1989년인가 1990년인가 그쯤 돼서 천주교 신협이 아니라 지역의 신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20억으로 땅을 샀다. 빠른 성장이었다. 정귀철 신부가 떠날 때 양구신협 자산은 23억으로 불어나 있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강원도에 신협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소멸해 지금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춘천에서 운교신협이 문을 닫고, 인제신협도 폐업했다. 양구신협이 인제신협을 인수하라고 해서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인수하면 같이 망할 것 같아 포기했다. 강릉에서도 중앙신협과 주문진신협이 망했다. 강릉신협·양양신협·속초신협도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다들 건물을 키우느라 부실해졌고, 불법 대출이 비일비재했던 시절이었다.

“가입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입한 사람들을 모아서 반드시 교육을 받게 해요. 교육을 받으면 선물도 주지만, 대출할 때 우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오죠. … 제

** 1977년 12월에 새한자동차에서 출시한 소형차. (위키백과 제미니 조 참고, 21.09.22 검색)

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모든 게 교육이에요. 머리가 썩으면 걸이 화려해 보여도 다 무너집니다.’

정귀철 신부는 늘 교육을 강조한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직원도, 조합원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은 조합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고객이 되어, 신협이 은행인 줄로만 안다. 신용협동조합 본래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시 볼 것들이 제법 많은데도 말이다.

‘니눔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

만남 날: 2021.04.12. 14:00 @속초 청호동성당
만남 사람: 하화식 신부(前 가톨릭춘천신협 이사장)
이야기 진행: 전홍우, 김윤정, 안서희

하화식 신부는 1970년 신학교 재학 시절 서울의 협동교육연구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교육을 받고 신협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신협의 근본정신은 서민들의 금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당시만 해도 돈을 빌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계나 사채 등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순한 논리로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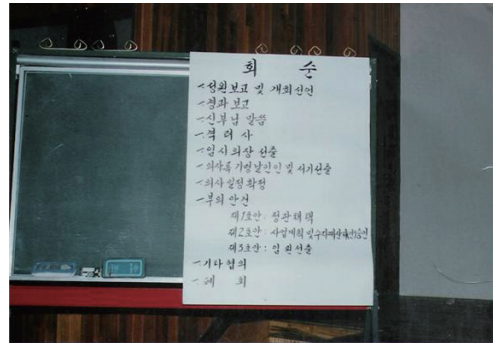
춘천교구에 속한 천주교회들의 신협설립운동은 춘천 윤교동에서 시작해서 죽림동과 소양동, 그리고 영동으로 넘어가 강릉신협과 묵호신협으로 확대됐다. 이들의 특징은 성당 안에서 신자들만의 협동조합으로 남지 않고, 지역사회에도 문호를 개방해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다.

하화식
前 가톨릭춘천신협
이사장



“신협의 길을 제시해서 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하면 실무진이 관리해요. 여러 성당에서 시작했지만 지속성의 문제는 운영하기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소양로 성당이랑 죽림동 성당 신부님이 본당에서 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니 통합 이야기가 나왔어요. 1997년에 춘천 소양로신협은 죽림동신협과 통합해 현재의 가톨릭춘천신협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신부는 개입하지 않고 신자 중에서 이사를장을 선출했으나, 돈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에 욕심이 생기고 이권문제도 불거졌다. 1991년이나 1992년쯤 퇴계동성당 주임신부를 맡고 있던 하화식 신부가 이사를장을 맡기로 했다. 이사를장을 맡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자산은 적는데 직원은 너무 많았다. 이후 다른 곳으로 가면서 후임 신부에게 넘겼다가 공교롭게도 춘천으로 돌아오면서 이사를장을 다시 맡게 되었다. 춘천가톨릭신협은 춘천신협과 명칭이 혼동되는 일이 많아져 2020년에 ‘가톨릭춘천신협’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동안 3번째 연임으로 이사를장직을 맡았던 하화식 신부는 2021년 6월에 퇴임하였다.



▶ 1991. 소양로천주교회신협 창립총회(사진제공:가톨릭춘천신협)



▶ 2000. 조합원교육(사진제공:가톨릭춘천신협)

금융사고가 생기면서 신탁은 독자성이 많이 사라졌다. 지원을 받는 만큼 제재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 경영은 금융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관리·감독도 받아야 한다. 자본 비율도 맞춰야 하니 신탁의 근본정신은 점점 희박해졌다. 그저 일반 금융권의 제2금융권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가톨릭춘천신탁 만큼은 지역을 넘어 가톨릭 신자면 교구안에서는 모두 들어올 수 있다. 가톨릭춘천신탁은 나눔의 정신을 강조한다. 이사장에 대한 보수도 거의 없다. 신탁의 근본정신을 살려 조합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교육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방식을 지키고자 한다. 또 그는 지금의 새마을금고 역시 일정 정도 신탁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 2020.08.20. 수재의연금전달(사진제공:가톨릭춘천신탁)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종교, 신탁에서 그걸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민들 사이에서 운영하고 있던 협동사업이나 일들을 정책으로 가져와서 정부에서 만든 게 새마을금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탁이 하나의 뿌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1960년대 제일 먼저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죠. 대전의 연수원*에 가면 그 역사에 다 나와 있어요. 춘천에는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아도 이 가톨릭 안에서 시작되었으니 여러 측면에서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신탁중앙연수원'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하화식 신부를 비롯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농민회와 신협 관련자들과 여러 차례 인터뷰하였다. 신협을 통해 방향을 제시한 신부님들, 그들을 따라 종교를 기반으로 연대했던 지역민들이 사실 거창한 가치나 운동을 기치로 내세웠다기보다는 시대적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동’의 방식이 요청되었던 것은 아닐까?

또한 춘천지역 신협의 시작에는 서울의 협동교육연구원이나 원주의 협동조합 리더들, 가톨릭농민회 등에서 만났던 협동조합 교육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신협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했던 부분도 교육의 소홀함이었다. 당시의 사회구조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협동하는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협동조합은 끝까지 교육이다.”*라는 말을 다시 새기게 된다.

* 캐나다 동북부의 Nova Scotia 지방의 StFX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농어촌개발과 지역사회교육 사업인 ‘안타고니쉬 운동’을 주도했던 Cody 박사가 강조한 말. 1957년 박사가 사망한 후 ‘코디국제연수원’이 창설되어 안티고니쉬 운동은 캐나다에서 세계로 확장된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한국민주시민교육원)

묵묵히 견뎠은 ‘함께’의 시간이 지역으로 향하다

만남 날: 2021.04.08. 10:00 @춘천와이신협

만남 사람: 남준섭(춘천와이신협 이사장), 홍순신(춘천와이신협 상임이사)

이야기 진행: 김윤정, 안서희

해방 전후부터 한국의 협동조합 역사가 100년이나 됐다.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많지 않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신협 중심의 움직임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 중심의 운교신협이나 공소를 중심으로 면이나 리 단위의 흔적들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가톨릭 외에 기독교 중심으로 와이신협이 있고, 종교와 무관하게 근화신협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준섭 이사장은 신협이 원래 가톨릭에서 출발했고 근화신협은 개신교에서 나왔는데, 현재 춘천에 신협이 4곳이지만 한창때인 1990년대에 16개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순신 상임이사는 16개까지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IMF를 계기로 대부분 구조조

남준섭
춘천와이신협
이사장



정이 됐다. 춘천의 대표적인 신탁은 운교신탁·호반신탁·일심신탁(구, 춘천신탁) 등이었다. 예맥신탁으로 이름을 바꾼 강북신탁, 동춘천신탁, 석사신탁으로 이름을 바꾼 신평신탁 외에 행정동우회신탁, 서부시장신탁, 전화국신탁 등 다양한 신탁이 있었다.

신탁은 여신의 대부분이 신용대출이었다. IMF 당시 금리가 24%까지 치달자 서민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그게 고스란히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졌다. 농협, 신탁, 새마을금고 중에서 신탁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았는데 금융감독원이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신탁들이 모두 퇴출되고 말았다. 2002년 11월경 전국에서 100여 개에 이르는 신탁이 사라졌다. 대신 행정안전부 소속 새마을금고는 통폐합 쪽으로 갔다.

춘천와이신탁은 지달건 전무로부터 시작됐다. 지달건은 일제강점기에 금융조합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후 건설회사 쪽에서 일을 하던 지달건은 성당 등에서 신탁을 설립하자 YMCA에서도 신탁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해 춘천에 와이신탁이 생기게 됐다. 춘천 외에 목포, 제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와이신탁이 설립됐다. 지달건은 1980년 8월 신탁을 설립하기로 하고 지인들을 죄다 찾아다니며 1천 원씩 출자를 받아 40만 원인지 80만 원인지를 모았다. 예금 원장이나 전표 등은 모두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했다. 지달건은 1994년 정월 대보름에 사망했다.

1990년 전후로 춘천에 신탁이 많이 설립된 배경에는 신탁강원도연합회의 정성래 국장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 신탁이 여러 곳에 설립되자 연합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연합회가 생기고, 또 중앙회도 생겼다. 정성래는 춘천이 도청 소재지인데 신탁이 왜 이렇게 없냐고 하면서 광산촌을 비롯해 시군지역을 직접 순회하면서 신탁을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IMF 이후 정리된 신탁들 대부분은 정성래가 뛰어다니며 만든 것들이었다. 정성래는 1992년인가 1993년인가 속초 어느 신탁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정성래 국장보다 앞서 이경국 사무총장도 신탁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 많이 다녔다. 이경국은 아직 생존해 있는데, 진짜 초창기에 강원도에 신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농협중앙회의 자문을 받고 신부들을 만나 신탁운동을 펼쳤다. 그러다가 IMF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더이상 인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됐다.

신협 강원도협의회에는 지역별로 평의회가 있다. 강원도에는 춘천권, 원주권, 태백권(영서평의회), 동해권(영동평의회) 4개 평의회가 있는데, 전체 35개 신협 중 춘천평의회 소속이 7곳, 원주평의회 소속이 8곳, 영서평의회 소속이 10곳, 영동평의회 소속이 8곳이다. 춘천평의회 소속으로는 춘천 4개 신협과 화천·양구·홍천 신협이 있다.

남준섭 이사장은 20세에 농협에 입사하여 1968년부터 2005년까지 농협중앙회 내 여러 지점의 지점장을 거친 바 있다. 농협 재임 시에는 강원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관심도 컸기에 지역 신협으로서의 사업을 만들어가면서도 신협이 금융사업에 대한 체계를 잡고 역량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 협동조합의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금융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홍순신 상임이사는 양양이 고향이고 강원대 회계과를 나왔다. 신협에서 강원대에 직원 추천을 요청해서 신협에서 일하게 됐다. 당시 지달건 전무가 순복음교회 김진현 법대 교수를 통해 경영대 교수에게 이야기를 해서 추천이 됐는데 적성에 맞아 35여년을 근무하게 됐다. 당시에는 신협에 입사하면 대전에 있는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실무는 선배들에게 배웠다.

가톨릭계 신협처럼 와이신협도 YMCA라는 단체조합에서 출발해 지역조합으로 발전한 경우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합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신자 6, 비신자 4로 비신자 조합원의 비율이 늘어났다. 서민금융사업 외에 장학사업과 함께 독서실을 운영했다. 장학금으로 지급한 게 누적해서 1억2천만 원이 좀 넘는다.



● 춘천 YMCA 건물 전경 초기(사진제공:춘천와이신협)

독서실은 신협 건물 2~3층에 있었는데, 1998년경까지 운영했다. 춘천신협 또한 근화교회에서 근화신협으로 출발했다가 운영이 쉽지 않아 수년간 휴업한 후 새춘천신협을 거쳐 오늘의 춘천신협으로 뿌리를 내렸다.

IMF 이전까지는 경기가 좋아 신협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거품이 많았고, 그로 인해 IMF 당시 5년 정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됐다. 와이신협 같은 경우도 5년 동

안 누적 적자가 14억 원까지 이르렀다. 적자가 나니 배당도 할 수가 없었는데, 조합원들이 묵묵히 견뎌줬다. 지금은 쌓아놓은 이익금이 20억 원이 넘는다.

홍순신 상임이사는 1986년에 입사해서 1994년까지 지달건 전무와 함께 일했다.

“당시 대출금리가 14% 정도였는데 예금이 부족해 상호신용금고에서 18%의 고리로 돈을 빌려 대출을 해준 경우도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지만 지달건 전무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곤 했지요. 동부이발소 이사장이 예금을 찾으러 왔는데 지급할 돈이 없어서 다음날 오라고 돌려보낸 후 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려다 지급한 적도 있었어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가져갈 리가 없었다. 전산화도 신협이 제1 금융권보다 3~5년 정도 늦었다. 신협은 199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전산화가 됐다.

현재 신협의 문제는 예대금리다. 제2 금융권은 수신이나 여신 모두 고금리로 운영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예금에 높은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또한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출금리가 너무 높으면 금리가 낮은 제1 금융권으로 이탈하고 만다. 돈을 맡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겐 이익이지만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에게는 역으로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면 원가 구성이 높아져 역마진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제2 금융권에 대해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지자체 금고에서 나오는 보조금 등 각종 저원가성 자금을 제2 금융권에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거의 제1 금융권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홍순신 상임이사가 어느 농협 지점장을 만나 자금조달과 운영마진에 대해 물었더니 1.99%~2% 정도를 마진으로 가져간다고 했다. 그러나 신협은 1.7% 정도밖에 안 된다. 조달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적정 마진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제2 금융권에서 예치하게 되면 금리가 거의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 등 더 많은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정선군과 횡성군은 지역 차원에서 제2 금융권을 밀어주고 있다. 현재 춘천에 있는 4개 신협 조합원이 3만5천 명 정도 된

다. 와이신협만 해도 벌써 8천8백명이다. 유권자가 3만 명이 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이 다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신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현재는 온라인 금융까지 가세해 금융시장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순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신협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김운정 소장>

“신협이 IMF 이전처럼 신용대출을 많이 하는 게 기본 틀이 돼야 하는데, 관리·감독이 심해지고 대출 제한이 많아서 본래 신협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긴 해요.” <홍순신 상임이사>

“신협이 현재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조금도 우대를 받지 못한 현실이다 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측면도 있지요.” <남준섭 이사장>



▶ 1982.02. 춘천와이신협 제1차 정기총회 모습(사진제공:춘천와이신협)



▶ 1990.02. 춘천와이신협 제9차 정기총회 모습 (사진제공:춘천와이신협)



▶ 1998.01. 춘천와이신협 제17차 정기총회 모습 (사진제공:춘천와이신협)

춘천 4개 신협이 움직이는 자금 규모는 8천억~1조 원 정도다. 지역경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이다. 농협이나 우체국, 마을금고도 있지만 제1 금융권 점포는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래도 신협은 4개 기관의 점포가 지점까지 10곳이 넘는다. 금액이나 물량, 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온뱅킹 전자금융도 거의 완벽하다. 서민들은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 오프라인도 신협 365코너가 눈에 띄게 많다.

“초창기 협동조합이 인적 단체이자 경제적 단체로서 경영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의욕만 가지고 설립에 비중을 두다가 비전문적인 인적 요소로 인해 실패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남준섭 이사장>

여기에서 신협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일정 정도 노출이 된다. 신부 등 신협 설립자들은 운동의 관점에서 경영을 무시하다 부실을 초래하고, 실무를 책임져 왔던 전문그룹은 경영을 강조하다 보니 너무 시장화로 기울어져 신협 본연의 운동성과 협동성을 소홀히 여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다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지만 연 2회 정도 꾸준히 교육을 이어왔다. 이르기까지 교육 내용도 다양하다.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산악회나 파크 골프 등 각종 동호회도 지원해 왔다. 파크 골프는 춘천 골프동호회 중에서 와이신협이 제일 활성화돼 있다.

홍순신 상임이사는 조합원이나 고객 중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적다고 말한다. 그래서 환경포럼을 만들자는 얘기부터 출산장려금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홍순신
춘천와이신협
상임이사



▶ 2005.02. 춘천와이신협 강남지점개점식
(사진제공:춘천와이신협)



▶ 2007.03. 춘천와이신협 직원워크숍 목표달성대회
(사진제공:춘천와이신협)

있다. 장학사업은 기본이고 노인들을 위해 영정 사진을 찍어주는 사업도 있고, 개신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교활동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요양원이나 무지개동산 지원, 연탄후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신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역시 현재 신협의 모습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IMF 이후 경영의 전문성을 높여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안착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제1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IMF 전에는 서민 위주로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체제와 규정이 현재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인적 조직에서 이렇게 실리적인 조직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것을 사실 어떻게 인적인 조직의 신용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을 갖춰가나? 네. 이것은 참 숙제입니다.”

남준섭 이사장, 홍순신 상임이사의 말처럼 이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따뜻한 금융"으로 선순환하는 지역을 꿈꾸며

만남 날: 2021.04.16. 14:00 @가톨릭춘천신협
만남 사람: 한광수(가톨릭춘천신협 상임이사)
이야기 진행: 김윤정, 안서희

한광수 상임이사는 2016년 9월에 춘천가톨릭신협(현 가톨릭춘천신협)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2018년 2월에 상임이사제가 생겨 퇴임 1년 6개월 만에 임원으로 다시 일하고 있다.

가톨릭춘천신협은 올해로 30년이 됐다. 1991년 죽림동천주교신협이 창립됐고, 1993년에 소양로천주교신협이 창립됐다. 이 두 신협이 1997년에 춘천가톨릭신협으로 통합했다. 당시 다른 신협들이 거의 구조조정이 되면서 춘천가톨릭신협이 반사이익을 봤다. 2개 성당의 신협이 통합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춘천교구 전체를 포괄하는 신협이 된 것이다. 가톨릭춘천신협처럼 교구 신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신협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고, 전국적으로도 몇 개 되지 않는다.

초기 개별 천주교회를 기반으로 한 단체신협들이 지역신협으로 나간 반면에 가톨릭춘천신협은 지역신협이 아니라 춘천교구 전체를 포괄하는 신협이 된 것이다. 춘



● 1997. 합병후 직원 전체사진(사진제공:가톨릭춘천신협)



한광수
가톨릭춘천신협
상임이사

천교구의 관할구역은 춘천·홍천·인제·양구·화천·철원 등 영서북부지역과 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 묵호 등 영동지역 일부 및 평창 일부지역(봉평·용평·대관령·진부), 그리고 경기도 가평·포천은 물론 지금은 북한지역인 옛 북강원도를 포괄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 보통예금 같은 건 어렵지만 정기에금이나 대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성전을 건립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 춘천가톨릭신협은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시행한다. 은행보다도 낮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다 보니까 수익도 많아지면서 공간에서 인심 난다고 사회공헌 활동도 많아졌다. 소속된 성당이 50여 개에 이르다 보니 장학금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후원도 많이 한다. 신협에서 2억 정도를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만들고자 했다. 전국에서 춘천교구청에만 장학재단이 없다고 하여 춘천교구청에서 관리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였으나, 2016년 한광수이사 퇴직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가톨릭춘천신협 차원에서 다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협 앞에 이주여성상담소가 생겼다. 상담소가 춘천에만 있어 강원도 전체를 책임 지다 보니까 많이 다녀야 하는데 차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를 후원 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는 춘천에 택시협동조합이 여러 곳 생겼다. 조합원 20명 정도가 4천3백만 원 씩 필요하다고 해서 금리를 좀 낮게 해서 신용대출을 하기로 했다. 상상협력 대출금 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상환능력이 조금 의심스러워도 지속가능하다는 판단만 있으면 대출을 해주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신협은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강원도에서 원주 밝음신협 과 가톨릭춘천신협만 하는 사업이다. 그렇다고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강원피스투어라는 여행 관련 협동조합의 경우 지속 가능성이 아주 낮아 거절한 적이 있었다.

지역을 위해서 사회공헌활동 같은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옛날 초기 신협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예전에는 조합원의 사회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보통 연간 1억~1억5천만 원 정도는 후원을 했다. 가톨릭신협이라고 해서 교회에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 이웃을 위해 후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언젠가 중앙회에서 교육을 받는데, 신협이 조합원만 위하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 라고 했다. 그래야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지금은 흔히 얘기하는 문화교 실을 2009년 4월인가 시작했어요. 오랜시간 직장생활하다 은퇴하니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 었죠. 컴퓨터 세대가 아니니 손주 들과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잘 모 르셨지요. 그래서 어르신들 놀이터 를 한 번 만들어드리자 했어요. 말 등회관이라는 천주교 건물에서 교 우들의 놀 공간이 만들어진게 시작 이었어요.”



● 문화아카데미(사진제공:가톨릭춘천신협)



▶ 문화아카데미(사진제공:가톨릭춘천신협)

2009년 4월부터 문화교실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은퇴자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시작했다. 컴퓨터를 20대 들여놓고 놀이터처럼 편하게 배울 수 있게 했다. 은퇴자들 중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어 진행했는데, 수강생 중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각자가 재능기부 형태로 민화반, 한지공예반, 성가반 등이 만들어져 현재 약 30여 반에 수강생이 5백여 명 정도가 됐다. 강사들에게 처음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교통비만 지급해도 연간 3천6백만 원이다.

여러 군데 소소하게 웬만하면 다 후원을 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광주문화신협의 경우 자산이 1조 원이 넘는데, 중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지급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주고 있다. 그래야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번씩 주는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광수 상임이사는 “따뜻한 금융”을 강조했다.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에게 대출을 할 수 없지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1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기도 했어요. 은행들이 수익이 엄청 많은데 대부분

외국계 자본에 빠져나가요.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는데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게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이니 5천만 원 이하는 1%, 5천만 원 초과는 0.5% 인하를 해주고 분할상환 하는 것도 6개월, 1년 유예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감면해준 것이 1억 원 정도 되었어요.”

가톨릭춘천신협은 땅을 사서 지점을 내려고 한다. 단체신협이라 가톨릭과 관련된 건물이거나 부동산이어야만 지점을 낼 수 있었는데 규정이 조금 완화됐다. 성당이 있는 동네면 지점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두리 쪽에 땅을 사서 5층 건물을 짓고 1층에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5층은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이나 공동 교육장처럼 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하상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점이 있다. 2019년 9월 소유권이 춘천시로 넘어가기 전부터 지하상가에 공실이 많았다. 오랜 기간 방치된 공실을 가톨릭춘천신협에 관리비 정도로 임대해주면 그걸 상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싶어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두리에 신협 건물을 새로 지으면 한 층 정도는 관리비만 받는 정도로 지역사회에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성당과 신자들의 공동유대가 조합원의 필요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함께 순환할 수 있는 여정을 만들고자 하는 동력이 되고 있었다. 30년의 시간을 담아오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사이를 오가는 이야기가 더 자주 만나져야 할 것 같다.

지역 금융 속에서 ‘사람’을 향한다는 것

만난 날: 2021.04.16. 10:00 @봄내신협

만난 사람: 이상범(봄내신협 상임이사)

이야기 진행: 김윤정, 안서희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협 안에 생활협동조합이 있었다.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 활동하다 수익도 안 나고 해서 2000년대에 중단했다. 춘천에는 현재 봄내신협을 비롯해 가톨릭신협, 와이신협, 춘천신협 등 4개의 신협이 있다. 예전에는 15개 정도 있었다. 모두 금융업만 하고 있는데, 양구신협 같은 곳은 목욕탕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봄내신협은 후평동성당 신부와 수녀, 그리고 신자들이 모여서 설립했다. 1983년 후평동성당 초대 주임신부인 나요한 신부를 비롯해 서영권 전 이사장 등 16명이 시작했다. 이상범 상임이사는 원주 출신으로 신협중앙회에 있다가 퇴직하고 2005년경 춘천으로 왔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 자산이 1천억 원이 넘는다.

신협은 금융업이다. 제일 중요한 게 건전경영이다. 그런데 서민금융이다 보니 신용대출이 많았다. 외환위기 당시 서민들이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조합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에 신협 또한 그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실은 당연한 결과였다.

봄내신협 조합원은 약 8천 명 정도다. 그중에서 신자는 약 25%인 2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후평동신협에서 봄내신협으로 이름이 바뀐 건 2008~2009년 무렵이다. ‘후평’의 ‘後’가 퇴행적인 느낌이 있어서 ‘봄내’로 이름을 바꿨다. 이상범 상임이사



이상범
봄내신협
상임이사

가 올 때 봄내신협(옛 후평신협)의 자산은 180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1천억 원을 훌쩍 넘겼다. 주말에도 전단지를 돌리는 등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결과다. 여직원들도 데이트를 할 시간이 없었다. 당시 직원은 모두 그만두고 지금 단 두 명만 남아 있다.

2005년부터 부실 정리를 시작해 정상화까지 4~5년 정도 걸렸다. 신규 고객을 찾아다니는 등 일을 안 하면 성장할 수가 없었다. 금융조직은 윤리의식이 중요하고, 같이 가는 환경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금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할 소중한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을 매주 하다시피 했다.

어려운 시절, 직원들을 데리고 안마산을 갔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배낭에 요구르트를 200개나 넣어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데 한참 올라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당시 여직원이 힘들다고 많이 울었는데, 그 직원이 아직도 일하고 있다. 더 성장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계속 거래한 조합원도 있다. 협동조합으로 금융을 한다는 건 신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지 10년 정도는 해야 신뢰를 얻고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신협 가치다. 그 정신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금융은 철저히 이익 중심이다. 그렇지만 지역금융이라는 가치는 이익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연결고리로 신협의 기반을 확장하는 것과 순환경제를 만드는 것,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신협은 영업구역이 제한돼 있다. 춘천시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지역에 밀착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왔으니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다. 지역 안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신협은 그 자체로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신협은 자발적인 조직이다. 농협과 달리 정부에서 도움을 받게 없다. 오히려 관리·감독만 철저히 받는다. 예대마진도 박하지만 성장에 가장 큰 장애는 지역제한이다. 양구나 횡성 같은 군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 온라인 금융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신협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신협의 입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역 밀착이다. 더 밀착해야 한다. 8천 명 명 조합원과 거래하면서 생일카드를 보내거나 케이크를 보내는 것도 밀착을 위해서다. 이런 게 신협의 경쟁력이다. 2022년에는 화천에 있는 하나원 출신들이 춘천에 정착할 때 쉬운 대출이나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춘천은 신협이 4개밖에 안 돼서 교류가 잘 되는 편이다. 다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각각 조금씩 특색이 있다. 협동조합 원칙 중에 협동조합끼리의 협동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관심도 크다. 특히 자금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다

른 협동조합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계기만 마련되면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금을 만들자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협이라는 금융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신협의 조합원으로서 지역 금융을 많이 이용하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신협의 초창기 가치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사실 사람이예요. 누가 경영하느냐? 누가 원칙을 가지고 경영하느냐? ... 그런 원칙을 아마 약간 좀 잊은 것 같아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한 신협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 기본은 사실은 사람이죠.”

기본은 사람이다. 이상범 상임이사는 누가 원칙을 잘 지키면서 경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 불내신협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진행(사진제공: 불내신협)

춘천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흐름

“생협”은 생활협동조합을 줄여 말하는 것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체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유통구조가 아닌 생산자와의 계약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받고,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서로의 필요를 이어가는 구조이다. 생협의 조합원들은 생산자와의 교류를 통해 생산과정에 관심을 갖고 산지의 어려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 스스로가 물품을 요청하거나 선별, 보완하는 생활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합원이 학습하고,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도 이루어진다. 거래의 관계에서 생명, 자연 중심의 상생과 협력, 연대의 정신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생협의 방식이다.

『생협의 정체성과 발전방향』*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생협의 역사적 전통은 일제시대의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농민사’ 그리고 YMCA의 협동조합운동과 ‘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社)’로 이어져 왔지만, 현재와 같은 생협의 시작은 1979년 3월 설립된 강원도 평창의 ‘신리소비자협동조합’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리소협과 같은 초창기 생협의 출현은 1972년 8월 일어난 남한강 대홍수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절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지역 농민과 탄광 노동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마을구판장의 조직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마을구판장형 협동조직이 오늘날 생협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신리소협 이후에 구판장형 소협**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도시지역에도 광범위하게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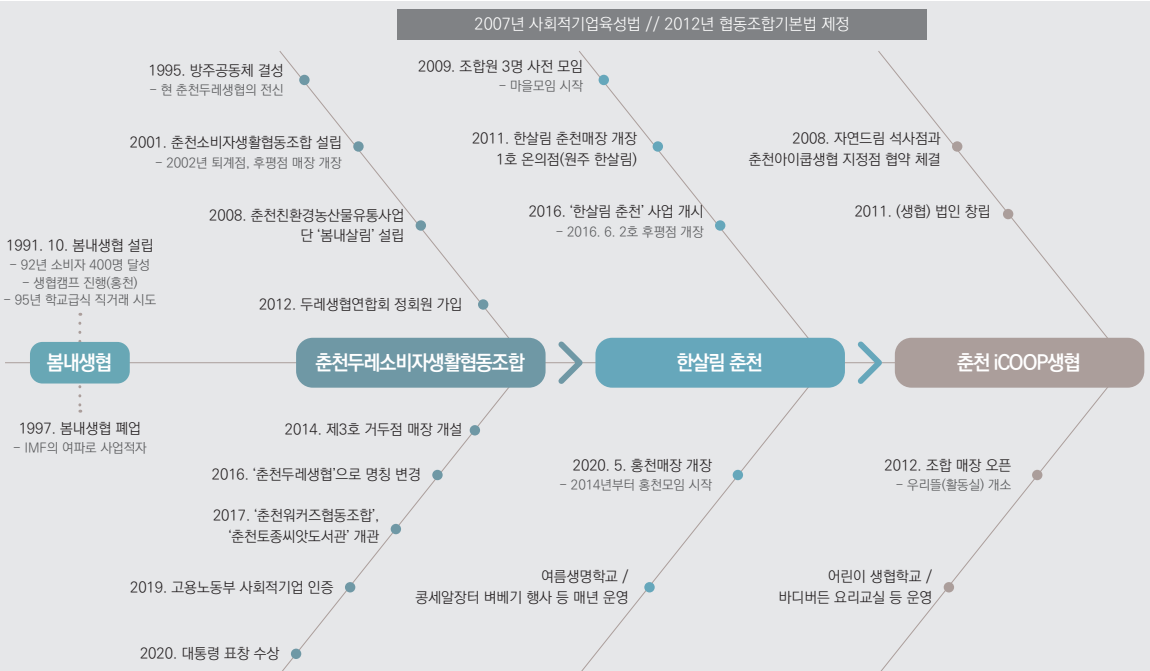
* 『생협의 정체성과 발전방향』, 협동조합학회 2003 하계세미나 발표원고(2003. 6 / 협동조합학회 / 박상신)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이재욱 자료제공).

** 생협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1993년부터 사용하였지만 실제 8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고 있었으며, 생협 초창기에는 모두 소비자협동조합(소협)이라고 하였다.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원주지역은 생협운동의 탄생지 역할을 하였다. 생명가치를 중시한 농민운동과 생협의 만남으로 현재와 같은 친환경 농산물의 도농직거래 방식이 자리잡기도 했다. 춘천지역 생협들의 태동을 보더라도 협동조합을 배우고,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주지역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춘천지역의 생협은 1991년 10월 ‘봄내생협’을 시작으로, 1995년 설립된 ‘방주공동체’를 통해 2001년 ‘춘천생협’이 2개의 매장을 개장하며 본격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운영을 시작했다. 2011년 한살림이 춘천매장을 개장하고, 2016년에는 ‘한살림 춘천’으로 분리되었다. 춘천아이쿱생협은 2011년에 법인 창립을 하고, 이듬해 조합매장과 활동실을 개소하였다. ‘봄내생협’은 1997년 폐업을 하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3개의 생협은 공동연대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자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춘천지역 생활협동조합의 여정



생명운동을 통해 공동체의 연결을 실험하다

—

만남 날: 2021.04.30. 16:30 / 2021.07.12. 09:30 @춘천시장실

만남 사람: 이재수(前 봄내생협 상무이사, 이사장 / 前 춘천시장)

이야기 진행: 김윤정, 안서희

춘천에서 생협의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는 ‘봄내생협’은 1991년 10월에 창립해서 1997년에 문을 닫았다. 당시 지역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가치와 운동을 통해 농업과 생명에 대한 관계를 협동 경제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이야기를 사라진 시간이 아닌 이어진 시간의 관점으로 들어보았다.

당시 민주화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학생운동 중심의 현장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했던 젊은이들은 농촌이나 노동 현장으로 옮겨 가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었다. 이재수 씨는 교회운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던 중 ‘문명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다. 시대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념이나 계급적 관점보다 더 근원적인 고민을 요구하던 가톨릭농민회의 생명운동전환사회에 대한 시야는 이후 기독교농민운동과 생명평화운동으로 분화되었고, 협동조합에 대한 만남으로 이어졌다.

원주에서 활동하던 한살림, 원주생협, 밝음신협의 협동조합 활동가 그룹과 연결되면서 이들이 직접 춘천으로 와서 지도해주기도 했다. 실무적 간섭은 안했지만 새롭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는 사회적 책무를 느끼듯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준 셈이었다.



이재수
前 봄내생협
이사장

“1989년, 1990년 이쯤에 소위 사회운동 그룹들에는 여전히 계급 운동과 체제와 관련된 운동들이 있었는데,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게 생명사상이었어요. 생명평화운동. 그래서 한살림과 대화문화아카데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초기 협동조합운동과 생명평화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1991년부터 준비모임을 만들어 30~40명씩 모여 학습을 하면서 전국 단위의 생명운동 그룹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직접 실무자가 되어 10월에 창립했다. 60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해 이듬해인 1992년에는 소비자가 400명까지 늘어났다. 수입농산물과 화학비료 농산물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 이슈가 되어 건강 문제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에 관심이 부쩍 높아졌던 시기이기도 했다.

근원적인 생명의 위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던 부분에 관심을 두었던 만큼 농업문제, 농업이 가진 생명성 복원의 문제,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고, 사회적 관계를 재조정하자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고민에서 새로운 거래 환경을 만들자는 시도가 생겼다. 원하는 대로 소비하는 방식에서 지나친 필요를 제어하는 소비패턴의 변화, 생산 농가들로부터 식탁까지의 과정과 가치를 알리고자 했다.

그런 취지에서 소비자를 5명 단위로 조직하는 일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산지 견학 등을 바빠 운영했다. 여름마다 흥천군 내촌면 답풍리에서 생명캠ป์를 열어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노력을 했다. 캠ป์를 통해 수입농산물의 관리부실이나 농약 문제를 고발한 비디오 자료를 입수해서 보여주며 교육을 하기도 했다.

“그때 우리가 매장 거래 방식은 안 된다. 5명이 공동구매를 하게 하자. 최소 단위 5명을 거점으로 필요한 것을 모아 목록표를 통해 물건을 갖다주면 나눠 갖는 소모임 형태로 거래를 했어요. 물품이 작아 불평이 생길 때마다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거래 관계의 나눔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하고 다녔어요.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자꾸 깨졌던 이유가 우리 안에 자체적인 생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단순상품을 구매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인격을 함께 나누는 얼굴있는 거래를 만들어가고자 했지요.”



● 生活협동조합 시민운동 세화(출처:강원도민일보 1993.06.24. 8면)

1991년, 1992년 즈음에는 지역 안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할 수가 없어 화천 계성리를 발굴해 생산물을 연결했었다. 당시엔 친환경 농가에 대한 기준도 없어 유기농 운동에 속해 훈련을 받거나 가치를 공유하는 곳들을 유기농 생산단지라고 보았다. 가공품에 대한 수요는 서울 양재동의 한살림중앙회에 새벽 4시쯤 가서 기본적인 물품 확보를 하곤 했다. 품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외부에서 물품을 찾아 공급하는 방식은 4년쯤 지난 1995년 무렵에 이르러 한계에 다다랐다.

“내가 생협이 책임자였지만, 여직원 한 사람을 두고 새벽 4시에 생산지 갔다 와서 소모임에 배달까지 해요. 배달하면서 같이 교육하고, 토론하는 일도 하고, 저녁엔 생산 농가 발굴이나 작업을 하면 12시가 되어서 집에 가는 일상이었어요. 3년이 넘어가니 체력도 바닥나고, 중요한 건 수수료 구조에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운영에 한계가 온 거지요.”



**우리민식당 「인수해」 추진실
지배인**

李載洙 씨
우리민식당 대표이사 부회장

채운동입니다. 저는 우리민식당에서 1년 반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백여만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공해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화천 계성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식당은 인공조미료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민식당의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우리민식당은 우리민식당 지점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고루잡이 (전직여원)를 출퇴근 시에 공복상태로 이식당에서 근무하게 하여 주유로 인원과 차량을 함께 나갈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민식당 「일수해」는 오는 11월 초순경부터 인공비료와 화학공해물 사용이 금지된 우리민식당에서 완공되면 내년부터 우리민식당도 친환경 계획.

우리는 친환경농산물의 투혼을 지키기위한 운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것을 당부합니다.

「일수해」는 것을 살펴보는 생명운동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

주의의음

오른쪽의 만화책 앞의 수인 및식당은 건강만입니다. 우리 생태계 농산물과 파과시키고있고 지적됩니다.

「身土不二」 지키는 무공해 都市人

○ 도시형년인 우리민식당을 개발, 손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민식당(11)도형의회사부회장 **李載洙** 씨(31), 23일 춘천군 동면 장학리에서 열린 우리민식당 「일수해」 추진실 지배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북동쪽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3번째로 설립된 우리민식당은 우리민식당(11)도형의회사부회장 **李載洙** 씨(31)가 사장으로 있는 우리민식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민식당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식당(11)도형의회사부회장 **李載洙** 씨(31)가 사장으로 있는 우리민식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민식당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민식당(11)도형의회사부회장 **李載洙** 씨(31)가 사장으로 있는 우리민식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민식당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민식당(11)도형의회사부회장 **李載洙** 씨(31)가 사장으로 있는 우리민식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민식당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민식당(11)도형의회사부회장 **李載洙** 씨(31)가 사장으로 있는 우리민식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민식당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문화 되살린 순토종 협병
생명줄 지키는 일 모두가 동참해야**

○ 도시형년인 우리민식당을 개발, 손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민식당(11)도형의회사부회장 **李載洙** 씨(31), 23일 춘천군 동면 장학리에서 열린 우리민식당 「일수해」 추진실 지배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북동쪽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3번째로 설립된 우리민식당은 우리민식당(11)도형의회사부회장 **李載洙** 씨(31)가 사장으로 있는 우리민식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민식당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민식당(11)도형의회사부회장 **李載洙** 씨(31)가 사장으로 있는 우리민식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민식당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민식당(11)도형의회사부회장 **李載洙** 씨(31)가 사장으로 있는 우리민식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민식당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민식당(11)도형의회사부회장 **李載洙** 씨(31)가 사장으로 있는 우리민식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민식당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身土不二」 지키는 무공해 都市人
(출처: 강원도민일보 1994.09.30. 9면)

그래서 매장형 사업으로 운영을 바꾸었다. 매장 중심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좀더 편리한 소비패턴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현실적으로 지역 내 생산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소비자 그룹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물음이 제기되었다.

당시 먹거리에 대한 여러 사회적 이슈로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봄내생협이 새로운 길을 모색 하던 중 지역 생산물을 농민과 직거래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1995년에 학교 급식을 농민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춘천지역의 생산농가를 새롭게 조직했다. 처음엔 의기투합해 열 몇 명에서 나중에 약 30명까지 확장되었다. 학교 급식을 통한 협동 경제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경험이었다. 하지만 철학적 가치와 현실성의 담보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30년 전이 되어버린 이야기지만,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농업에 대한 지역적 고민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가치를 담아 재구조화 하려던 과정엔 치열한 토의와 정신이 있었다고 한다. 돌아보면, 기술적인 영민함이나 사업적인 세련됨이 부족했다는 점, 함께 만드는 길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충분치 못했던 점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추구하기에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협동조합의 경험을 통해 이재수 씨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시스템이라는 것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과 생명성과 생명평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를 일찍부터 고민하고, 진지하게 배웠다고 소회를 밝힌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정부를 구성하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한다.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먹거리와 기초 생명의 유지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탱할 수 있어야 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격적 관계로 상호 관계망을 분명히 만들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민도 지역주민도 생산과 소비에 대한 주도성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그런 조절력과 힘을 키우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다섯 집으로 시작했지.

만남 날: 2021.05.06. 16:00 @커먼즈필드

만남 사람: 이재욱(前 방주공동체 설립자 / 前 춘천생협이사장)

이야기 진행: 이진천, 김윤정

방주공동체의 탄생

1991년 춘천에 삶의 뿌리를 내린 이재욱 씨는 부인과 함께 1993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94년 우리 농산물, 즉 오늘날의 공동체 친환경 농산물을 인근 서상교회와 금산교회를 통해 서울에 있는 교회의 교인에게 공급하거나,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춘천중학교에 장터를 만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가 다섯 가구가 뜻을 모았고 같은 해 12월, 이러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려는 취지에서 소비자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때 이재욱 씨의 농장인 방주농원에서 그 이름을 따온 방주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이재욱
前 방주공동체
설립자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장돌뱅이처럼 열리는 데 서울 쫓아가고 뭐 남 물건 공급하는데 물건 주고, 내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더라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안정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싶었지. 내가 이런 농사를 지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농산물을 공급할 테니 같이 할 사람 찾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다섯 집이 같이 하겠다고 해서 다섯 집으로 시작을 했지.”

우여곡절, 생협으로의 변신

방주공동체의 농산물의 인기가 날로 좋아지면서 소비는 꾸준히 늘어났다. 당시는 주문한 물품을 개별 소비자의 집으로 배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일정 거주 지별로 묶어서 배송하면 소비자끼리 서로 당번을 정해 주문한 물품의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곤 했는데 이 수고스러운 일이 자꾸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문받은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급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대두되었다. 이처럼 거래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생협으로의 전환이 논의되었는데 일부 반대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생협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일부 생협이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고 소리소문 없이 해산되는 일이 있어서 생협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 생산자회 결성식(사진제공:춘천생협)



▶ 2004. 제4차 춘천생협 정기총회(사진제공:춘천생협)

“방주공동체라는 틀로 유지해왔던 방식과 내용으로 더이상 하기 어려웠지. 사람도 많이 늘어서 이미 100가구 정도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하는 건 나도 힘들어 못하겠고,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유명해져서 농산물 팔 곳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꺼면 하지 말자. 그런데 해야 한대. 그러면 이 상태로는 못하니 생협을 하자고 했더니 그 중에 몇 사람이 생협은 안 된다는 거야. 생협이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도 생협을 한 적이 있는데 흐지부지되고, 투자금도 안 돌려주고, 생협을 해산한다는 얘기도 없이 슬그머니 없어졌대. 그러면서 그런 건 하면 안 된대.”

하지만 매주 모여 내부 토의를 거치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생협의 주인은 조합원 모두라고 설득하여 마침내 2001년 11월 창립 총회를 열 수 있었다. 그런데 생협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전국적으로 소규모의 생협도 많았고 동네 슈퍼마켓도 소비자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어느 집 하나에 사랑방 하나 뜯어서 거기에 진열대 맡겨놓고 라면, 밀가루, 설탕 팔고 하는 구판장이 있었지. 그게 이동농협(리와 동단위 농협)이면서 농협의 구판장 시작이었고, 생협의 초기 소비자협동조합, 농촌의 소비자협동조합 구판장도 거의 그런 식이었지. 도시는 슈퍼마켓처럼 있었는데, 예전 강원도 농촌지역들은 거기에 간판 하나 달아 놓고 파는 식이 대부분이었어. 동네에서 외상 주고 그러다가 자금회전이 안 되면 많이 망하기도 했지. 만 원어치 팔았는데 팔천 원밖에 안 들어오면 나중에 물건을 사러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생협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초창기 생협‘운동’이라는 표현은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고도 경제 성장의 시기에 일반 생필품 중심의 판매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웠다. 바로 그때 일본에서의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의 출현, 우리나라의 공해문제와 단위 면적당 평균 농약 살포량이 세계 1~2위라는 뉴스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안전한 농산물, 즉 유기농업으로 방향을 선회해 소비자를 붙잡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유기농업에 대한 이론적 공부도 없이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누구나 쉽게 반론할 수 없는 논리로 농약을 친 농산물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농약을 사용하는 것에 적대감을 품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옛날에 이동농협들을 할 때는 선배들이 농협운동 한다고 했는데, 면단위 조합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직원으로 갔을 거고 그러면서 운동이란 말이 농협에서 사라지게 됐지. 신협도 처음엔 신협운동, 생협도 생협운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제도화되거나 틀을 갖추면서 운동이란 말을 안 쓰게 되었지. 한살림도 한살림운동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직원들도 그렇게 잘 안 쓰더라고. 협동조합 정신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자본주의 성장의 속도가 훨씬 빨랐으니 협동조합의 운동성이나 정신이 뿌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 거지.”

향후 협동조합의 방향성에 대해 먼저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방식에서 내적 성장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 보조금의 지원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요즘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들을 보면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만원, 이만 원씩 내서 사업을 하겠대. 기본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규모로 돈이든 사람이든 모아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름뿐인 조합원 구성도 많고. 뭐 하면 발표(프레젠테이션)하게 해서 오백만 원 주고, 지난번에 심사 한 번 했는데 많이 주는 게 500만 원. 그런데 내용도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와서 몇 폰 되지도 않는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 보면 심사하면서 한심하단 생각이 들기도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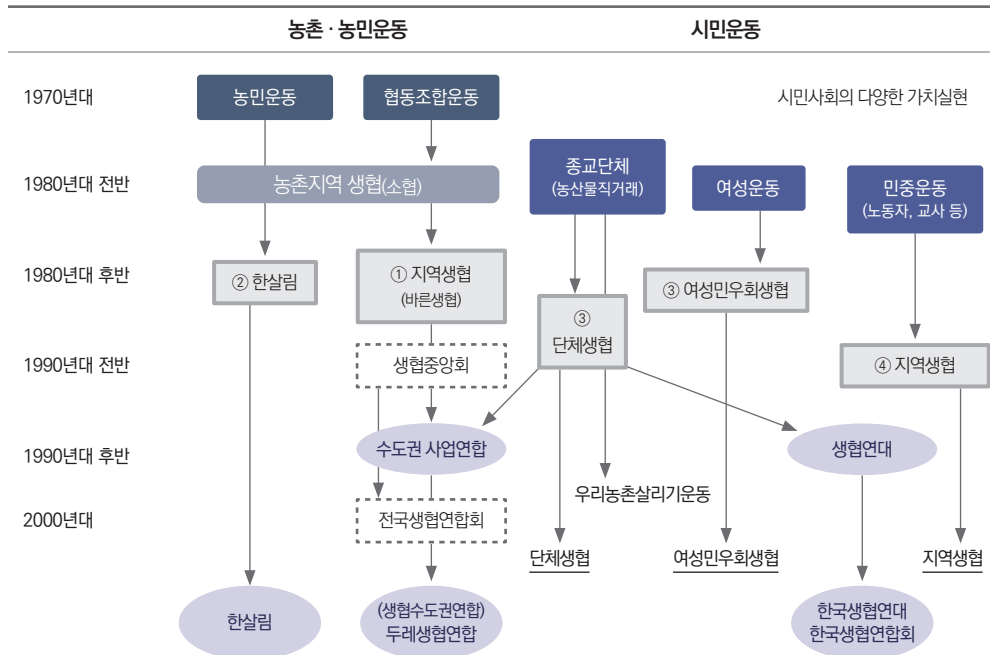
홍망성쇠를 거치면서 생존해 있는 협동조합 역시 보조금 지원이 없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반문하며 협동조합이 사업 추진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교육적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한다. 실제로 종이풍선(紙風船, かみふうせん)이라는 협동조합은 옷을 해체해서 주머니나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 공급 같은 일을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일을 창출하거나 계약해오면서 조합을 운영해나가는 것이다. 이재욱 씨의 조언은 협동조합의 성장과 활성화를 바라면서도 우리의 자구적 노력과 도전은 어떠한가를 들여다보게 한다. 협동조합들이 조직 내의 협동보다 외부의 지원에 밀착된 협동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가장 기본적으로 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래서 원조는 누구?

생협의 전신은 1979년 강원도 평창군의 신리소비자협동조합으로 주로 공산품의 공동 구입과 농산물의 공동출하를 전개했다. 한편 공동구매형 지역생협인 안양의 바른 생협은 1985년에, 생명운동 사상을 지닌 농민 운동가들이 도심에 매장을 개설하여 소비자를 조직한 한살림은 1986년 설립된다.

▶ 한국 생협 조직의 변천



출처: 한국생활협동조합의 특성(정은미, 2006)

엄마의 마음으로 가꿔낸 지역 '삶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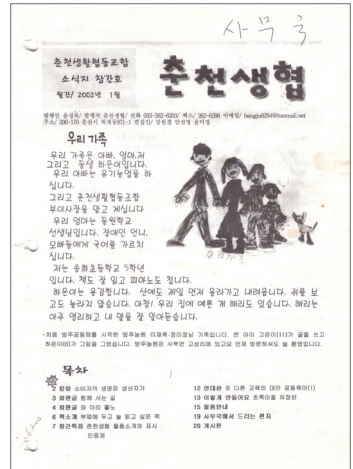
만남 날: 2021.07.02, 10:00 @춘천위커즈협동조합

만남 사람: 김선옥(前 춘천두레생협 이사장, 現 춘천위커즈협동조합 이사장)

이야기 진행: 김윤정, 안서희

‘춘천두레생협’의 원래 이름은 ‘춘천생협’이다. 춘천생협은 1995년 설립된 ‘방주공동체’가 씨앗이었다. 춘천생협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등록한 것은 2001년 12월이었다. 춘천생협 1년 동안은 ‘방주공동체’를 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만들었다. 김선옥 이사장이 생협에 들어갔을 때는 구성원들이 너무 지쳐 뿔뿔이 흩어지고 공동체가 거의 해체된 상황이었다.

춘천두레생협의 역사를 보려면 소식지를 봐야 한다. 소식지가 끊긴 적이 없었다. 소식지를 통해 임원 등 리더들이 자신의 소신과 가치를 밝혔다. 한재천 이사장은 홈페이지와 메일로 122호에 걸쳐 편지글을 썼다. 감동적인 글들이 많았다. 유정배 이사장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 이 시기의 소식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2년 동안 ‘봄내살림’에 가서 일을 하다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공백상태나 다름없다. 이진천 이사장이 들어와서 현재 형태의 소식지로 전환이 됐다. 소식지팀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 춘천두레생협 소식지 창간호
(자료제공:춘천두레생협)

해낸 결과물이다. ‘방주공동체’의 소식지가 따로 있었다. 소식지만 봐도 춘천생협을 거쳐간 이사장들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도부터는 GMO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

당시만 해도 물류가 중앙물류가 아니었어요. 지역과 팔당에서 생활재를 가져왔고 가공품은 예장생협에서 가져왔어요. 1주일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새벽같이 가도 춘천에 도착하면 오후 2시쯤 됐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거예요.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프기라도 하면 대책이 없어 늘 그게 스트레스였지요.

불안정한 물류 때문에 힘들었지만 초창기에 조합원들은 생협을 ‘내 가게’라고 여겼다. 두부가 오면 날짜가 지난 것부터 구매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합원들이 불어나고 교육도 부실해지고 하면서 그냥 좋은 먹거리를 사서 먹겠다는 소비자 조합원들이

김선옥
前 춘천두레생협
이사장



몰려들면서 공동체적 의식이 사라져 갔다. 이제는 2시에 기다리는 게 신선한 물건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초창기 ‘방주공동체’부터 있던 조합원들은 여전히 책임구매 의식이 있었다.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대형마트 안에 친환경 코너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조합원들은 가격을 비교해 가며 메뚜기 소비를 했다. 소비가 들쭉날쭉하니까 경영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물류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까가 당시 최대의 고민이었다.

매출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게 본연의 목적이었다. 원래 북한강생산자조합원이 100명이 넘었다. 북한강유기농이 2019년에 20주년이 넘었다. 당시만 해도 100명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지 못했다.

춘천생협은 우리 농업 살리기, 우리 땅 살리기라는 취지 아래 지역의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로컬에 대한 관점 하나만큼은 명확했어요. 당시 생산자가 여러 곳에 퍼져 있었지만 핵심은 사북면 내에 있는 두 곳이었어요. 고탄리 일대는 귀농자 중심이었고, 사북면사무소가 있는 신포리 일대는 1960~1970년대부터 가톨릭농민회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었었는데 한주희 목사가 정착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산자 집단이 형성됐어요. 당시 프라이드 웨건을 몰고 1년 내내 매일 생산지를 드나들다시피 했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되는 생산물을 춘천생협만으로는 소비하기가 어려웠다. 조합원이 1천 명이 넘었는데 1천 가구의 소비 규모로 생산자 한 농가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2008년 12월 ‘봄내살림’을 만들었다. 좋은 먹거리를 지역에서 순환시키는 순환경제를 제대로 이루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공공급식을 시작했는데 친환경 급식이 아니라 무상급식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친환경 쌀만큼은 그래도 전량 소비를 할 수 있었다.

‘봄내살림’을 시작할 때 서부시장 지하를 1백만 원에 임대해 16명이 들어갔다. 처음에는 춘천생협을 모범인으로 한 ‘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이었다. 나중에 사회

적기업으로 가면서 ‘봄내살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2002~2003년 고용포럼으로 실업극복운동을 했는데 농업과 관련된 분과의 결과물로 나온 게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이라는 프로젝트였다. 지역의 먹거리 순환과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풀어갈 것인지 논의하는데 마침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으로 풀 수 있게 됐다. 딱 16명 인건비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국물도 없었다. 그래서 춘천생협이 아니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실무자가 김선옥 이사장 한 명뿐이었는데, 춘천생협이 포기하면 이 프로젝트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춘천생협은 시작 자체가 지역이었다. 생협 상황이 어려웠지만 임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김선옥이 ‘봄내살림’에 가기로 했다. 생협은 이사들이 역할을 나눠서 감당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임원은 거의 남성 중심이었다. ‘봄내살림’을 시작하면서 그런 지형도 바뀔 수 있었다. 오춘재 이사가 매장지기를 하면서 식품 관련 위원회도 맡기로 했고, 황호중 이사는 김선옥과 함께 ‘봄내살림’ 반찬사업을 했다. 그렇게 여성 임원들이 조직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춘천생협이 단단해졌다. 그저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한 생협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함께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

김선옥 이사장의 기억으로는 봄내살림에서 꾸러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꾸러미 사업은 봄내살림이 생기기 전에 고탄리 생산자들과 함께 노동복지센터 시범사업으로 6개월 정도 하던 거였는데 그걸 더 확대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명로컬밥상을 탄생시켰다.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간 이후 어린이집이나 지



● 봄내살림(사진제공:김선옥)



● 2010. 제10차 정기총회(사진제공:김선옥)

역아동센터에도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때 안경술 선생과 인연을 맺었다. 생산자 대표인 고성리 김태수 씨가 단장을 맡았는데, 김선옥은 직책도 없었다. 교육과 회의를 통해 16명 조직을 관리하며 사업을 진행했다. 그때 이민아 현 ‘교육과나눔’ 상임이사를 처음 만났다. 현 김지숙 시의원도 당시 같이 일하면서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쌀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돌아다녔다. 이진천 이사가 그때 춘천으로 왔다. 그러면서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현재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봄내살림이 꿈꾸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먹거리에서 1차 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지고 대신 가공품의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 로컬을 얘기하면서 먹거리만으로는 포괄되지 않았다. 서비스까지 개념을 확장시켜야 했다. 그 결과 ‘봄내가 자란다’라는 브랜드가 나왔다. 또 전국에 ‘36.5 스토어’가 생기면서 강원도에도 ‘강원곳간’이 생겼다. 그 1호점을 춘천두레생협이 맡았다. 우리 지역의 자활기업, 마을기업 상품들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더 질이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 생협은 재정여력이 안돼서 ‘이장’의 신진섭 대표와 함께하면서 콤팩스에 강원곳간이 입점하게 됐다. 봄내살림을 1년 6개월 정도 하다 다시 생협으로 소환됐다. 생협이 더 어려워진 이유도 있고 봄내살림은 또 봄내살림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이다.

춘천에는 세 개의 생협이 있다. 춘천두레생협과 아이쿱, 그리고 한살림. 3개 생협모임을 3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다. 전국에서 3개 생협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따지고 보면 서로 경쟁 관계다. 유일하게 춘천에서만 있는 현상이다. 춘천두레생협이 25년, 춘천아이쿱이 10년, 춘천한살림이 6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 2004. 춘천생협 आय�회(사진제공:김선옥)

“처음에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3개의 생협은 성격이나 형편이 많이 다르다. 춘천두레생협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아이쿱은 사업성이 강한 편이고, 한살림은 원주와 더 밀접하다.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춘천생협은 생협만 보지 않는다. 생협의 시각에서 지역을 바라보지 않고 지역의 시각에서 생협을 본다. 3개 생협이 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3개 생협 이사장 모임을 하면서 퇴임하는 이사장들이 사단법인 식생활교육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로컬푸드와 관련된 일들을 민간 단위에서 실현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춘천두레생협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 자신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면서 부족함을 타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어떻게 그걸 함께 해결할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 그렇게 동반 성장하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 지역에서 생협이라고 하니가 그거를 이제 생협운동은 가치 중심이잖아요? 그것을 잃지 않고 어떻게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그걸 계속 만들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로 있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소비에 불을 지피고 더 좋은 것을 먹게 하고 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불어 사는 삶을 일상에서 함께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가치죠. 그것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갔으면 좋겠어요.”

‘묻지마종갓돈’은 엄형식이 계기가 됐다. 엄형식이 벨기에에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춘천에 들어와 봄내살림이 운영하는 다문화카페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던져준 것 중 하나가 투자자클럽이라는 것이었다. 여성 이사 6명과 함께해보자고 작당을 해서 2013년에 시작한 게 ‘묻지마종갓돈’이다. 벌써 10년이



● 묻지마 종갓돈 모임(사진제공:묻지마 종갓돈)

다 돼간다. 6만 원으로 시작한 종잣돈은 현재 2천1백만원이 됐다.

방주공동체부터 시작해 춘천생협을 거쳐 춘천두레생협으로 오기까지 25년의 역사에서 이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동이 기여한 바가 크다. 역대 이사장들도 많은 역할을 했다. 생협 편지로 가치와 꿈을 심어준 한재천 이사장, 끊어질 시점에 조직이 계속 갈 수 있게 한 유정배 이사장, 그리고 생협을 생협답게 한 단계 더 도약시킨 이진천 이사장 등. 특히, 이진천 이사장은 “나는 춘천생협 조합원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긴 시장바구니를 만들어 조합원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춘천생협처럼 독자적인 물류로 끝까지 버틴 곳은 거의 없다. 마지막에 ‘두레’를 선택한 것도 ‘로컬’이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레’만이 로컬 생협들을 묶어서 물류를 공동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난해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소통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사회를 건너뛸 적이 없었다. 임원들이 끊임없이 삶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거리를 좁혀갔다.

“생협이라서 저한테 맞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성, 저는 여성이잖아. 저는 오빠가 넷이에요. 제가 막내고, 하여튼 집에서 처음부터 우리 엄마는 맨날 여자라서 못할 일은 없다고 하는 거야. 항상 주장이 여자라서 못할 것은 없다. 그리고 정말 오빠들한테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물도 안 떠다 먹었어. 밥도 다 차려주는 거 먹었어. 그런데 이제 사회에 딱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거야.”

그런 김선옥 이사장에게 시대살이가 쉽지는 않았다. 5년 동안 내적 갈등이 많았지만 저임금으로 생협 일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받는 상처보다 여성으로서 펼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다. 여성민우회에 가면 매일 남편하고 싸워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생협에서 언니들과 함께하면서 그걸 극복했다.

협동조합의 핵심은 사람 관계다. 협동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다른 크기의 사람들이 모여 협동하는 것이다. 협동은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바탕 위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게 기본이다. 이것이 없으면 협동조합일 수가 없다.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젖어 들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생협 안에서 협동이라고 하는 게 지속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생협 직원들은 ‘멀티’다. 그 ‘멀티’가 자산이 된다.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성장의 기회. 생협인으로서 자기 삶의 가치 속에서 성장하는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이라서 좋았다. 돈은 조금 주는데 정말 ‘멀티’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이라서 힘들지만, 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렀다.

“버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기 가치나 철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당당하게!”

춘천두레생협

: 지역 연대가 뿌리내리며 성장한다는 것

주요 연혁

- 1995.06.01. 춘천지역 소비자·생산자 직거래단체 [방주공동체] 결성
- 1998.12.07. 유기농업 생산자조직 [북한강유기농운동연합] 설립
- 2001.12.21. [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 2002.01.01. 제1호 친환경·유기농 전문매장 개설 (퇴계점)
- 2002.11.01. 제2호 친환경·유기농 전문매장 개설 (후평점-)석사점)
- 2008.10.15. 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 [봄내살림] 설립
- 2012.08.24. 두레생협연합회 정회원 가입
- 2012.11.01. 강원도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강원곳간] 숨인숍 1호점 선정
- 2014.07.12.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 설립
- 2014.09.16. 제3호 친환경·유기농 전문매장 개설 (거두점)
- 2016.04.07.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2017.05.19. [춘천토종씨앗도서관] 개관
- 2017.11.17. [춘천워커즈협동조합] 설립
- 2018.03.01. 제2호, 제3호 매장 통합운영
- 2019.12.31. 고용노동부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 인증 (제2019-316호)

영역 표상

- 2013. 07. 13. 강원도지사 표창 (제1447호)
- 2020. 07. 01. 대통령 표창 (224156호)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춘천두레생협)은 1995년 생산과 소비공동체로 출발하여, 열악한 지역 친환경 농업을 지키고 지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춘천시민과 농민들이 함께 출자하여 만든 자생적 협동조직이다. 주로 지역의 농업·환경·먹거리·여성·사회적경제 분야의 문제를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해결하고 발전시켜 지역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1. 춘천생활협동조합 1호 매장과 초기 매장 내부 모습(사진제공:김선옥)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 및 농업·농촌 문제의 협동적 해결 노력

2002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2005년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2008년 춘천 최초의 사회적기업인 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인큐베이팅하였으며, 지역산 친환경 로컬푸드 상시 유통 기반 구축과 친환경 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5년에 걸친 춘천두레생협의 노력들은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춘천시 푸드플랜 수립 등의 정책 발전과 안전한 로컬푸드 순환시스템 제도 구축의 발판이 되었다.

2017년 춘천토종씨앗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유전자 변형 종자로 획일화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우리 씨앗을 복원하고 작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토종씨앗 수집, 씨앗 대출과 모종 나눔, 채종포 운영, 친환경 농사법교육 등으로 토종씨앗 보급 및 확산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토종작물 재배가 늘고, 우리 씨앗의 중요성이 춘천시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춘천시 환경문제 대응 활동과 시민모임으로의 확장

춘천두레생협은 2014년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 설립을 주도하였다. 춘천의 방사능 문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 촉구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및 주거지 방사능 실태와 원인을 전문기관과 함께 규명하고, 춘천 시내의 생활방사능 측정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생활방사능에 대한 알림과 시민 관심 그룹 형성은 방사능 차폐재 개발 및 시험 설치 방안 모색이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 및 보완 활동 등을 함께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7년 결성된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춘천모임’은 춘천의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 및 문제해결 촉구를 목적으로, 2019년 3월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2019년 5월 춘천시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이 공식 발족하는 데 발판을 마련했다.

건강한 가족과 행복한 육아 커뮤니티 기반 마련

2004년부터 춘천두레생협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아토피가족모임을 결성하고 아토피 극복 사업을 전개하였다. 바른 먹거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가족의 아토피 극복을 목표로, 2008년 이후 춘천시 보건소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으로 정례화되는데 기여했다.



2017년부터 건강한 육아를 위한 부모 교실 육아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발도르프 육아법을 조합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또래 부모들의 교류 및 건강한 육아 문화와 공동육아 커뮤니티 조성에 힘쓰고 있다.

▶ 2004. 제4차 정기총회 모습(사진제공:김선옥)

지역의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협동과 나눔

2011년부터 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에서 생산하는 유정란을 공급받아 조합원에게 판매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지역자활기업 ‘참닭갈비’에 초기 제품개발 지원과 지속적인 생산제품 판매를 통해 자활기업의 자립과 정착을 돕는 한편, 조합원과 생산자가 주축이 되어 유기농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유기농 김장을 매년 제공하고 있다.



● 2016. 유기농 김장 나누기(사진제공:춘천두레생협)

2020년부터 조합원과 지역 협력조직과 함께 만드는 방학중 결식아동 반찬나눔행사는 지역사회의 촘촘한 돌봄 관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시도로 진행되고 있다.

춘천시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활동

춘천두레생협은 2006년 이래로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인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출범과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춘천두레생협 임원들이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와 임원진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발판으로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춘천사회혁신센터 등에서 조합원과 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춘천위커즈협동조합을 2017년 설립하여, 40세 이상 여성들의 함께 일하고 즐겁게 나이 드는 직장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월 회원제 친환경 반찬 사업, 도시락 사업, 행사음식 사업 등을 펼치면서 지역내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여성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 맞벌이 가정,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조리반찬 공급, 친환경 로컬푸드 소비 증대로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종갓돈두레로 시작한 ‘문지마종갓돈’은 2013년 시작된 자생적인 사회연대기금으로, 춘천두레생협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사회적경제나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무이자긴급자금대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고 5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무담보·무이자 대여 원칙으로 지역 내 사회적금융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업체에게 총 19건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대출금 누적 규모는 약 6천5백만원에 달한다.

2019년부터는 ‘춘천지역소비자생협연대(춘천생협연대)’ 결성을 주도했다. 다른 지역에 유례가 없는 협동조합 간의 연대체로서, 춘천두레생협, 춘천한살림, 춘천아이쿱생협이 상시적으로 모이고 있다. 춘천시 환경(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 운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캠페인과 공유 장바구니 활동 등의 공동사업 진행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 측면으로, 2009년 이후로 춘천두레생협은 일본 나가노 생활클럽생협과 3회 방문과 3회 초청 등 꾸준히 교류하고 있으며, 2018년 춘천 방문 시 춘천두레생협이 춘천시와 함께 개최한 춘천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가해 일본측 사례를 지역에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일 국제교류를 통해 춘천은 나가노 생협의 안정적인 운영방식을 배우고, 나가노는 춘천두레생협의 에너지와 다양한 시도들을 서로 배우고 있다.



▶ 초기 춘천생협의 다양한 조합원 활동 모습(사진제공:김선욱)

춘천두레생협은 2019년 고용노동부의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지역사람이 조합원으로, 시민으로 만들어 온 많은 활동과 사업은 20년이 훌쩍 지나 돌이켜 보면 꽤 앞선 시도들이 많았다. 늘 맘처럼 성과를 남기진 못했어도 스스로 문제를 마주하는 데에는 스스로움이 없는 것이 큰 성장인 셈이다. 이런 평가와 확인들이 연결된 덕분인지 2020년 7월에는 생협 최초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살이와 사람살림에 속속들이 맺혀진 크고 작은 노력들이 지역의 뿌듯함으로 힘을 얻게 한 의미있는 일이었다. 생협의 가치는 지켜가되, 지역의 필요와 사람들의 변화를 유연하고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것은 답과 시한이 없는 일일 것이다. 늘 그렇듯이 나이가 들어가는 조합원들은 함께 일하며 재미있게 살기, 서로를 돌보는 지역살이를 꿈꾸며 춘천두레생협의 모습을 작당하고 있다.



▶ 초기 춘천생협의 다양한 조합원 활동 모습(사진제공:김선옥)

춘천 친환경 로컬푸드 상생로드 : '봄내살림' 이야기*

주식회사 봄내살림은 그동안 춘천생협이 담당해 온 친환경 로컬푸드 사업을 농민조직, 시민사회와 함께 특화시키자는 뜻에서 2008년 12월에 <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으로 출발했다. 당시 지역 토박이 춘천생협과 80개 농가가 모인 춘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노동복지센터, 한림대산학협력단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총 6개 조직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당시 인력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16명을 지원받고, 춘천생협에서 직원이던 김선옥 씨를 파견했다.

2009년 4월 <봄내살림>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모색한다. 3월



● nondureong 축제(사진제공:이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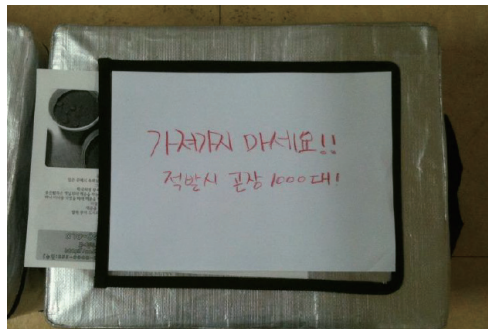
* 봄내살림 이야기는 2011. 9. 1. 이진천 전 대표이사의 사례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부터 시작한 꾸러미사업 ‘생명밥상’은 초기 40가구로 시작해 연말엔 80가구까지 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추수 행사로 ‘논두렁축제’도 했다. 무항생제 유정란을 자체 생산하고, 어린이집과 관내 복지시설 19개소에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했다.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다문화카페와 반찬사업 등을 운영하며, 사업 성장을 위한 선진지 견학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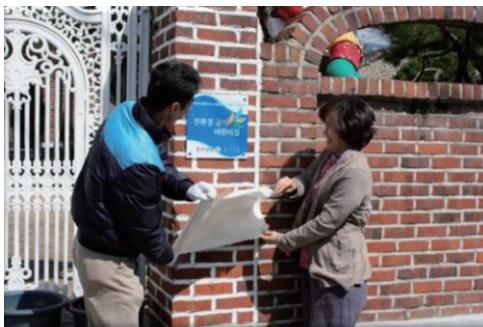
2010년의 주된 방향은 ‘외부 지원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갖춰자’는 것이었다. 2년차의 ‘생명밥상’ 꾸러미사업은 최고 140가구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봄내살림에 대한 입소문과 홍보가 신규회원 증가로 이어졌다. 이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읍면지역의 초중등학교 18개소에 친환경 쌀을 공급했다. 기존의 급식 공급업체가 기피했던 면단위 작은 학교에는 급식 전 품목을 배송하기도 하면서, 친환경 식당, 친환경 학교급식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 전환을 모색했다.

친환경 지역 먹거리 생산과 소비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교육, 소비자 체험, 주말농장 등의 활동과 로컬푸드에 대한 지역 토론회, 친환경 농산물 급식 기관 등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기반사업도 필요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촉구활동이나 찾아가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대표적 노력들이었다.

2011년 이후 모기업인 춘천생협에서 분리 독립하여 주식회사로 모습을 바꾸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친환경식당은 문을 닫고,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지역 내 꾸러미사업을 통한 사회적 신뢰구축과 친환경 생산농가, 지역소비자, 농산물유통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 춘천 시내 회원에게 직접 배송되는 봄내살림 꾸러미(사진제공:이진천)



▶ 봄내살림 활동사진(사진제공:이진천)

농촌과 도시가 함께 꾸려나가는 ‘봄내살림’, 집들이 가져 | 사회

2009.04.22. 11:36

농촌과 도시가 함께 꾸려나가는 ‘봄내살림’ 집들이

배추가 금추가 되고 오이 역시 만만한 요리재료 대열에서 이탈한 요즘 춘천에 사는 주부들의 체감물가는 여느 때보다 높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안심하고 장을 볼 수도 없다.

농산물이 가락시장을 거쳐 시장에 공급되는 유통구조 탓에 이웃 동네에서 생산되는 야채라도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춘천의 소비자들, 이들에게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다. 지난 21일 소양로2가 서부시장 지하에서 발대식을 가진 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 ‘봄내살림’의 살림꾼들이 그들이다.



▶ 2009. '봄내살림' 발대식

‘봄내살림’은 ‘생명이 꽃피는 밥상’을 통해 회원들에게 매주 한 번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 또, 유치원· 학교 등 단체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주여성이 운영하는 다문화식당과 반찬가게도 ‘봄내살림’의 사업.



▶ 친환경 다문화카페 운영



▶ 2009. '봄내살림' 발대식

“이렇게 많은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정되어 최소한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김선옥 선임팀장은 말한다.

사북면 고단리에서 농사를 짓다 ‘봄내살림’ 단장을 맡은 김태수 씨는 “춘천의 3만 농가 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겨우 355농가(축산농가 제외)뿐이라며 친환경농가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립배경을 설명한다. “친환경농가가 확대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역소비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

‘봄내살림’을 운영하는 일이 만만하지는 않다. 1년 내내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지만, 기후와 토양 등 환경의 영향으로 생산 품목이 한정되기 때문. 이들 앞에는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 아직은 가공식품을 ‘춘천생협’으로부터 조달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형편.

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춘천생협), 춘천시민연대,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친환경농업연연합회, 한림대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설립한 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 ‘봄내살림’. 발대식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펼칠 ‘봄내살림’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로 춘천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블로그 작성자 : 진짜희망

어쩌면 시민은행, "묻지마 종잣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물어 두지도 말고~”

특별한 모임 규칙도 없고, 담보도 이자도 없다. 유일한 규칙이라면 월 1회씩이라도 얼굴 보고 밥먹자는 것이다.

종잣돈두레로 이야기되는 ‘묻지마 종잣돈’ 소모임은 2013년 1월 춘천두레생협 조합원 6명이 모여 처음 시작했다. 춘천두레생협의 소모임이지만, 조합원이 아니어도 되고 춘천사람이 아니어도 함께할 수 있다. 다만, 모임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기존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설령 탈퇴하더라도 적립금은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묻지 말아야 한다. 모은 돈은 그냥 물어 두지 않고 지속적인 대출처를 연결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사용처를 묻지 않고, 모은 돈은 물어두지 말자라는 의미로, 모임의 이름은 ‘묻지마 종잣돈’이다.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시민단체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사회적경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수행이나 투자가 필요해도 은행권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현실에서 보면서 뭐라도 하자는 마음에 한 달에 1만원씩 모으기 시작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비빌 언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처음엔 생협 이사와 활동가 중심으로 시작해서 2021년 지금은 42명까지 늘었다. 지금까지의 종잣돈 총 누계액은 2천 백만원이다. 운영은 한 달에 한 번 대출실행이나 논의사항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지해왔다. 가장 작고, 단순한 형태이지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2021년 6월 기준 19번째 대출이 실행되었고, 대출금 총액은 6천 5백만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한 건은 있었어도 갚지 못한 대출건은 없다.

‘문턱없는 소액대출’로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무이자이며, 상환기간은 6개월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회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만, 실행은 가장 빠른 대출이다. 갑자기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대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종잣돈 모임에 함께하는 회원으로 함께 걷기도 한다.

문턱없는소액대출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스타트업
 창업가마을기업 · 시민단체 대출 환영 · 무담보
 무보증 서로가 서로를 담보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금
 마이크로크레딧 · 신용조회기록 없이 진절만 대출

100만원 ~ 최대 500만원
 6개월 내 상환 · 월회비1만

010-5520-4990
묻지마종잣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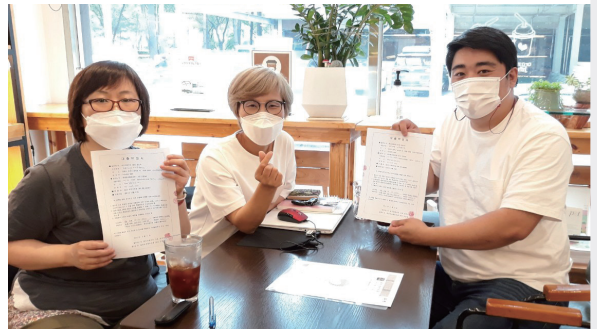
● 묻지마 종잣돈 홍보내용(사진제공:묻지마 종잣돈)

힘들 때 ‘비밀 언덕’이 되어주고, 다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태는 것이 바로 ‘희망’이 아닐까. 금융으로 ‘협동’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다음 행보를 꿈꾸게 한다.

돈이 중요시 되어버린 세상에서 협동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지역과 사람에 이롭게 할 것인가를 학습한다. ‘사회금융’, ‘시민뱅크’, ‘희망금융’, ‘풀뿌리금융’ 등의 이야기는 이제 춘천에서 ‘묻지마 종잣돈’을 가리킨다. 금융으로 꿈꾸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협동은 작지만, 커다란 힘으로 지역을 향하고 있다.



● 묻지마 종잣돈 모임(사진제공:묻지마 종잣돈)



● 묻지마 종잣돈 대출협약식(사진제공:묻지마 종잣돈)

봄내가 자란다

첨부 기사 자료 |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010800039>
(검색일 2021.07.09.)

[춘천] 로컬푸드 브랜드 ‘봄내가 자란다’ 개발

강원일보 2013.01.09.(수) 16면

【춘천】 춘천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이 공동브랜드를 개발, 제품 판매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자’는 의미의 로컬푸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의 업체들과 함께 공동브랜드인 ‘봄내가 자란다’(사진)을 개발, 17일부터 사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춘천 로컬푸드 업체들은 봄내살림, 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민한우, 밀알일터, 춘천참닭갈비, 춘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이장, (주)소박한풍경 등이다. 새로 만든 ‘봄내가 자란다’ 브랜드는 다음달 설 명절에 맞춰 선보이게 될 ‘로컬푸드 설 선물세트’에서 처음 사용될 예정이다.



▶ 춘천지역 로컬푸드 브랜드인 '봄내가 자란다' 로고

김상진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봄내가 자란다’는 지역공동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과 연대를 위한 브랜드”라며 “지역물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활동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표 기자 hphong@kwnews.co.kr

춘천 ‘봄내가 자란다’ 판로 확대 나섰다

강원도민일보 2013.11.12.(화)

온의동서 전용매장 개장 / 황태채 등 100개 품목 판매 친환경품 홍보 · 마케팅 기대

춘천지역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매장이 ‘봄내가 자란다’가 11일 본격 오픈, 판로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대표 이천식)는 이날 오전 춘천시 온의동 행복마을 1층에서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봄내가 자란다’ 매장 개장식을 가졌다.

봄내살림을 비롯해 도모, 이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참닭갈비, 춘천지봄자활센터, 농민한우, 한 부모희망센터 등 25개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이 참여하는 ‘봄내가 자란다’에는 황태채와 과일즙, 천연 EM(유용미생물) 주방세제, 쌀, 목공예 등 100여 개 품목의 생산품이 전시·판매된다.

특히 그동안 전용 매장이 없어 명절 때 주문 판매에 주로 의존해왔던 춘천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이번 전용 매장(면적 52.89㎡)의 개장을 계기로 판로 확대는 물론 친환경 물품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격려사에서 “지역의 친환경농업 확대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마을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마케팅부터 제품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라며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식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도청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되는 등 사회적경제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며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회의는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기자 kyungsik@kado.net

춘천아이쿱생협

2007년 11월 교사 5명과 주부 1명이 모여 춘천아이쿱생협을 만들기로 하고 12월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2008년 1월에 자연드림 식사점과 춘천아이쿱생협 지정점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매장을 통한 조합원의 물품 이용이 개시되었다. 당시 제 1기 준비위원회는 6명이었다.

조합원들과 산지체험 및 견학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고, 그해 10월에는 소식지도 창간되었다.

2009년부터는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조합원 특별증자운동과 다양한 조합원 활동을 만들어갔다. 대중강좌를 통한 조합원교육과 함께 2010년에는 아이티 지진피해기금 모금활동 등 여러 사회기금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해 3월 9일부터 주 1회의 온라인 공급도 개시되었다.



▶ 2011.06.25. 아이쿱춘천시민생협 법인창립총회
(사진제공:춘천아이쿱)

2011년 2월에 발기인을 모집, 6월 25일에 생협법인으로 창립했다. 이후 2012년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조합 매장을 개장했다. 양구 생산자와 소비자 협약식을 6월에 체결하고, 7월에는 우리뜰(활동실)을 개소했다. 이 시기가 춘천아이쿱생협의 사업적 기반을 만들어갔던 분주한 시간이 되었다.

이후 생산지 교류 활동, 조합원 소모임과 교육, 지역 안팎의 이슈에도 연대하는 다양한 발걸음들이 이어졌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선언, 지역에서의 탈핵행사, GMO 반대 캠페인 연대 등을 지속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협학교, 진로특강, 체험 프로그램은 조합원 가족 공동의 필요를 반영한 꾸준한 사업들이다.

2012년 이후로는 주 1회 반찬봉사, 인문학강연, 팝업시네마 등을 연중행사로 진행하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춘천지역 3개 생협 이사장 회의를 통해 지역연대의 공동행동을 모색하게 되었다. 시간이 쌓여 지역과 연대하는 정책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더 다양한 기관과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서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춘천생협연대를 통해 공동의 배움기회를 만들고, 자원순환활동과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등의 지속적인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은 따로 또 같이의 힘을 키워가는 춘천아이쿱으로 색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2012.04.04. 아이쿱춘천시민생협 조합매장개설
(사진제공:춘천아이쿱)



2012.07. 공세알 반찬봉사 시작
(사진제공:춘천아이쿱)

한살림춘천

한살림춘천은 2009년 8월부터 조합원 3명을 중심으로 마을모임을 시작했다. 이듬해부터는 손바느질 소모임, 식품안전 공부모임을 진행하며 춘천지역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2011년 6월에 온의동에 춘천매장을 개장하고, 2012년부터는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지역과의 연대를 이어갔다. 같은 해 4월에 처음 시작한 ‘콩세알 나눔장터’는 이후 매년 2회씩 진행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어린이 방학특강이나 춘천내 5개 마을(석사, 퇴계, 칠전, 온의, 후평)모임과 4개의 소모임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다양한 도농교류 행사와 지역인문학강좌, 아름다운 가게와의 협력사업 등이 매장사업의 안정화와 함께 확장되었다. 2014년 3월부터는 흥천마을모임이 만들어지고, 온라인카페 ‘떠들썩’도 시작하였다. 매장운영과 마을모임, 소모임, 배움과 나눔행사들, 지역과의 협력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살림춘천’으로의 분리를 준비하게 되었다.



▶ 2009년 8월부터 첫 마을모임 시작(사진제공:한살림춘천)

2015년 3월 한살림춘천 창립준비위를 구성하고, 월간 소식지를 발행했다. 1년 여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 12월 15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한살림춘천으로 운영체계를 갖추어 간 시기이다. 4월부터는 후평매장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6월에 제2매장인 후평점을 개장한다. 이로써 2개의 매장운영체제와 생산자 교류사업, 소모임과 마을모임사업,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생협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사업구조도 가공품위원회, 농산물위원회, 생명학교위원회의 추진구조로 체계화되었다. 2017년 이후로 여름생명학교, 벼베기 메뚜기 잡기 행사, 콩세알 장터, 인문학 강좌 등은 한살림의 연례행사로 자리잡으며 활성화되었다.

2014년부터 이어 온 흥천마을모임은 2020년 5월에 흥천매장 개장으로 이어진다. 3개의 매장을 거점으로 확장된 지역활동은 현재 다양한 단위의 연대와 협력사업으로 성장하며, 한살림의 생명사상과 더불어 지역에서의 기여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 2011.06.15. 춘천 온의동 매장 개장(사진제공:한살림춘천)



▶ 2015.12.15. 한살림춘천 창립총회 개최(사진제공:한살림춘천)

춘천지역 실업 극복 운동을 통해 바라본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시사점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한국의 협동조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관제형 협동조합으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처럼 시민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이 아닌 국가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관제형 협동조합이다. 이러한 관제형 협동조합의 뿌리는 일제강점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은 관제형과는 대조적으로 시민의 자율적 협동 및 연대에 뿌리를 둔 시민주도형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춘천지역 중심의 협동조합 운동사에 관한 연구는 후자인 시민주도형 협동조합의 태동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춘천지역 내 협동조합의 변천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1987년을 기점으로 민주화운동과 그로부터 10년 후 찾아온 외환위기를 꼽을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토대로 활발하게 전개되던 협동조합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12년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서 경제적 효과와 특히 사회 통합 기능에 주목하며,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된다. 2012년을 기점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제도화된다. 국가 주도의 지원이라는 외형적 모습만 보면 과거 관제형 협동조합의 그림자가 떠

오른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 아래 자율적 운영이 보장받는다라는 점에서는 분명 과거의 '관제형'과는 결이 다르다. 그렇지만 시민주도의 자율적 경제조직에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한다는 것은 분명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본질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강원도 특히 춘천 지역사회 중심의 노동운동, 즉 '실업 관련 운동'의 변천사를 다룬 엄형석의 논문 <IMF 실업사태에 대한 지역사회운동의 대응: 강원도지역 실업 관련 운동을 중심으로>을 토대로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협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주로 사회비판과 사회적 문제 제기 역할을 해오던 사회운동 조직이 민주화 항쟁 이후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데 앞장서는 변화가 일어난다. 국가 주도의 관변단체나 탈정치적 사회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운동이 다양한 시민단체의 등장과 더불어 각종 비영리조직, 비정부조직 그리고 제3 섹터 등에 의해 다채롭게 전개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외환위기 이후 강원도의 경우,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대형 실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강원도의 실업률은 전국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낮았는데 이는 강원도 지역이 농림어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고용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파고를 피해간 것은 아니다. 실업의 증가와 이로 인한 노숙자 증가와 자활의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던 것은 분명하다.

실업 문제를 처음 겪는 한국의 상황에서 여러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조직은 급증하는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사업과 노숙자에 대한 의료 및 임시 거주 시설 마련 등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실업 관련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 서비스적 지원 조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사회 행동적 실업 관련 운동조직에 대해서는 배제 또는 무대응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결과 실업 문제에 대한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던 사회 운동적 요소는 감소하고 전문적인 사회 복지서비스로의 정체성만 강화된다. 그래서 재정지출 절차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게 된다. 한마디로 정부로부

터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받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아무래도 적은 인구와 낮은 경제력으로 인한 자원의 부족한 기반인 데다가 보수적 정치성향이 짙어 사회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정서와 무관심이 지배적인 지역 특성 또한 사회운동으로서의 실업 극복 운동의 정체성 형성은 어려운 여건이었다.

춘천지역의 실업 극복을 위한 운동은 30여 개로 구성된 시민운동조직과 민간단체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가장 큰 원인은 재정적 한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결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사회운동으로서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고와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침에 의해 조직이 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실업 극복 운동의 중심을 맡아 줄 민주노총조직이 강원도지역에서는 취약했다는 점과 자원에 대한 외부 특히 정부 의존도가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기에 활발했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 특히 춘천 중심의 지역사회 대응의 모습을 살펴보면 앞으로 춘천 협동조합이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엿볼 수 있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규제에 얽매이다 보면,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가 조직의 위상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단순 경제적 조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으로 협동조합으로서 조직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정부의 자원과 행정적 도움을 활용한다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추구하고자 하는 협동과 연대, 그리고 사회적 기여라는 본질적 목표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진짜 ‘필요’는 무엇일까요?

—
만남 날: 2021.06.27. 10:00 @로하스카페 나비

만남 사람: 엄형식(국제협동조합연맹(ICA) 글로벌 사무국 학술국장 학술국장)

이야기 진행: 김윤정, 안서희

1990년대 후반 춘천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회운동활동가들이 시민운동으로 모여 실업극복,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등의 움직임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연결되어 춘천시민운동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 이어져 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자활에서는 1996년 5곳의 시범사업이 자활사업의 시작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보면 초기 자활사업은 ‘생산공동체운동’으로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었다. 당시 기억엔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모델로 한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라는 책이 빈민운동가, 노동운동가 사이에서 선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1990년대에 자활사업은 주민들이 익숙한 경제 활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한 목표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노동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다수 참여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협동조합을,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의 뜻으로 자활의 흐름이 나뉘게 되었다.



“춘천에서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자립,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져 왔어요. 특히 춘천노동복지센터는 사회적기업, 자활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1990년대에서 2000년까지만 해도 춘천지역의 협동조합은 신협을 비롯해 생협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봄내생협이 문을 닫고, 방주공동체도 춘천생협으로 구조가 바뀌고, 신협들이 대부분 폐업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은 고단한 걸음을 이어가던 시기였다.

그 안에서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같이 지역개발이나 로컬푸드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 이후 2008년 12월에 만들어진 ‘봄내살림’은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된 셈이다.

전공이 사회운동, 특히 석사논문을 강원도 실업운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원주는 자주조직들이 많은 역사가 있는 반면에 춘천지역은 경실련, 환경 운동, 시민운동단체들이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한다. 지역 특성상 생산자, 노동자, 상인들보다는 공무원, 교사, 교수 등 중산층이 생활적인 측면,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았다.

강원 남부를 포함해 원주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온 1세대 리더들은 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을 배워와서 지역의 리더십 그룹을 형성했지만, 당시 춘천에는 그런 협동조합 리더십 그룹이 없었다. 하지만 시민운동단체로 다양한 단위에서 결합한 당시의 활동가들은 전통적 방식보다는 시민운동의 에너지를 통해 접근을 시도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와 시민사회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주역들이기도 하다.

“춘천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할 때 고용포럼이란 걸 했었거든요. 그때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 결과로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셈이죠. 지금 이야기되는 많은 것들이 그 당시 토론되었던 것들이 많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노력이 있어서 현재의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형식은 시간과 과정을 기록하는 측면에서 시시콜콜한 자료들을 대부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공식화되지 않은 자료들이 이후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어느 시점에서 소중한 흔적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직이 문을 닫으면 사라지는 기록들이 지역의 역사로 모아질 수 있다면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한다. 설령 실패한 경험이라 해도 말이다. 사회학자의 꼼꼼함 덕분에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어졌던 실업극복 운동의 현장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다. ‘시민의 힘으로 일자리를!’이라는 구호가 담긴 현장에 뜻뜻한 모습으로 담긴 지역 인사들의 옛 사진을 이제는 춘천시민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벨기에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학술국장을 맡고 있는 엄형식은 12월에 있을 세계협동조합대회 준비로 한국에 들른 참에 인터뷰를 진행한 터였다. 그가 바라보는 협동조합은 어떤 모습일까를 마지막 질문으로 삼았다.

시대가 바뀌다 보니 과거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협동조합의 접근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을 꺼낸다. 제도화 된 측면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요구가 연결되어 있고, 협동조합을 창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작동하는 현실에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 시대의 진짜 ‘필요’가 무엇일까요? 협동조합을 전업으로 하면서 꼭 돈을 벌어야만 하나요? 재미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하고, 하는 만큼 유지될 정도의 돈이 왔다갔다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일자리 창출이나 수익성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쩌면 좋은 사람들과 놀러 다니는 목적으로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모델이 나오면 일도 더 쉽고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적 강박에서 벗어나면 춘천도 교육, 문화, 농촌의 할 거리로 재밌는 연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영국의 협동조합도 비즈니스모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축구클럽, 커뮤니티 펍, 커뮤니티 샵 같은 경우는 팝스타일로 문을 열고 하니 돈을 보는 구조가 아닌 거죠. 춘천사람들의 자연스런 삶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활동을 연결하고 시작하다 보면 사업모델이 되기도 하는 흐름으로 협동조합을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산과 소비의 관점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모습은 사람들만큼이나 다채로워질 것이다. 아이 키우면서 감당할 사교육비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도, 1인가구가 급증한 사회에서 친구와 이웃을 만드는 것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적 필요이니 말이다.



● 춘천 나눔의 집 자활공동체 교육(사진제공:조정현)

교육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나누고 인적 자원을 네트워킹하다

만난 날: 2021.07.01. 9:30 @로하스카페 나비

만난 사람: 조정현(前 강원광역자활센터장)

이야기 진행: 김윤정, 김익수, 안서희

조정현 전 센터장은 자활에서 20년 정도 일하다 2020년 말에 그만뒀다. 자활센터는 자활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인 1995년 이전부터 나눔의집에서 빈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나 봉제 하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조직이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모여서 건설협동조합을 만들고, 봉제를 했던 사람들은 ‘실과바늘’이라는 기업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생산 공동체에 뿌리를 둔 사업들이 1990년부터 1995년까지 활성화됐다. 그러다 IMF를 계기로 이 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수렴해보자고 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IMF가 터지면서 회사는 부도나고 이혼을 해서 어디 갈 곳은 없고 그래서 국민이 최소한의 일 할 권리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등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권리로 자활급여가 더 생겼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7대 급여가 체계를 잡았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협동조합을 모델로 국가에서 주는 일감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자활사업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

초반에는 2명 이상이 모여 창업해야만 자활기업으로 인정된다. 초반에는 주식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지만 유한회사가 협동조합과 가장 비슷해서 초기 청소나 집수리 등을 하는 팀들이 거의 유한회사로 방향을 잡았다. 지금은 유한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춘천의 ‘새희망건축’도 유한회사였다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모델이다. 그런 조직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많이 생겨나면서 광역 단위 자활기업들의 네트워크로 확장이 됐다.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자활사업이 갖는 의미가 꽤 컸다. 점차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장기요양제도가나 산모·신생아 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자활센터에서 교육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 돌봄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에게 무료 간병인을 파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없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낸 셈이지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자활센터가 240~250개 있다. 몇 군데 빼고는 다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장애인 장애활동 보조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자활센터에서 공부방 사업으로 먼저 시작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서 참여자들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그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초기에는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점차 제법 굵직한 자활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소규모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협동의 힘으로 스스로 역량을 키워 나갔다.

주거복지나 간병 같은 경우 이제는 자활센터를 거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자활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정한 영역을 담당하고 점차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면서 자활센터는 자활이라고 하는 수급의 영역으로 주저앉았다. 자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인데 국가에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때 사회서비스 정책이 수립되면서 자활센터에서 수행하던 사회서비스들이 옮겨가다 보니 지역 자활센터에서 진행하던 사회서비스 사업을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초기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진행하는 사업 구조가 다양했는데, 점차 다양한 일자리정책 또는 복지정책로 사회안전망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자활기업들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층도 다양한 일자리 등 지원제도를 선택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사회정책이나 일자리정책들이 많아지면서 자활센터는 되레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참여자는 근로조건이 좋은 다른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자활센터는 근로역량이 낮은 참여자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을 위

한 교육 및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되었다. 근로역량이 낮은 참여자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알콜 등 심리정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교육과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가 중심이 되었다. 결국 사회정책 및 일자리 정책의 활성화로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채 자활자립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사회적 문제)를 자활사업을 통해 공동창업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경제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기 자활기업이 유한회사 등 법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창업을 하였지만, 시대와 경제적 변화를 거치면서, 최근 자활기업은 소상공인 형태의 일반과세자로 창업을 하게 되었다. 사회적경제 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업형태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자립했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느냐와 관계없이 자활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해요. 자활기업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요. 시장구조 속에서 하청이라는 불합리한 점을 극복하고자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든 게 초창기 모델이고 그게 자활기업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화장실 청소사업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자활기업으로 설립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도교육청에서 용역을 주던 일자리를 직고용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자활기업 입장에서는 큰 시장을 빼앗긴 꼴이 됐다. ‘늘푸른환경’ 같은 경우 60여 명을 고용했는데 용역일자리가 직고용으로 전환되면서 자활기업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이다. 5천만 원 미만의 입찰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느 한 곳을 밀어줄 수가 없다. 자활기업으로서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면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민운동으로 시작한 초기 자활사업은 규모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관리 및 행정

체계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일자리 창출의 역할에서 사회관리 등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초기에는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이 없었는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운동성이 있는 실무자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많이 유입됐다. 자활센터를 거쳐 간 실무자들의 역량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근로역량이 있는 참여자가 줄어들면서 자활사업은 자활자립을 위한 제도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전지역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을 하는 사회복지 인프라로서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없는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지역의 자활사업을 규모화해 부족한 역량을 해결하기도 한다. 특히 자활기업의 경우 지역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광역단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표로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단위 개별기업이 모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자본력, 인적자원, 기술력 등 개별기업에서 부족했던 역량을 집중해서 성장하고 지역기업과 함께 광역단위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더욱 중요해요. 참여자를 단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나누고 그렇게 형성된 인적 자원을 네트워킹 해야 하니까요.”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그리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자활사업을 펼쳐 나가기도 한다. 농촌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복지 및 사회안전망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 2001. 자활근로 오리엔테이션(사진제공:조정현)

“자활센터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도 생기고, 노인복지시설도 생기고, 환경 관련 EM센터도 생기고, 도시락 제공도 위생 면에서 좋은 시스템을 갖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복지 인프라의 질을 높이는 데 자활센터가 많은 기여를 했어요.

어쨌든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가능하면 초창기 자활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무자가 있는 센터에서 교육받으면서 잔소리를 듣더라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잖아요. 취약계층에게는 방치나 방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활사업은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자활기업이 되고, 광역단위를 넘어 전국단위 자활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단순하게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고 자활과 자립하여 기업가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자활사업의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자활사업과 자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새희망건축에서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까지

만난 날: 2021.07.06. 09:00 @쿵박스

만난 사람: 임형석(前 새희망건축 대표, 現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야기 진행: 김윤정, 안서희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년 정도의 시기를 백서로 만들었다.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자활사업이 태동했다고 할 수 있다. ‘새희망건축’도 업형식이 자활센터 실무자로 일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을 구상하면서 만들기 시작했다. 인력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보겠다는 거였다. ‘새희망건축’이 생기기 전에는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 비슷한 사업을 했다. 1년에 8~9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공공근로 방식으로 진행했다.

급여는 자활센터에서 받고 자재비는 별도 예산으로 조달하는 방식이었는데, 당시에 임형석 이사장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은 그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용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다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건축과 관련해 일하던 사람들을 모아 일을 하게 된 거였다. ‘나눔의집’에서 점심밥을 주고 그런 일을 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 핵심인물들이 ‘새희망건축’을 시작했다. 2001년 3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6명이 일을 시작했다. 초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반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협동조합 방식과 유사했다. 개인이 출자하고 잉여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배당하고 40% 정도는 다시 출자했다. 최대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도 그렇게 만들었다.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고 나서 2002년 임형석 이사장이 결합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따로 현장에 나가 일을 하면 수입이 더 좋은데 자활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겼다. 기술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그에 더해 알코올 중독이 심각했다. 한 번 술을 입에 대면 1주일 정도는 나오질 않는다. 예정된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과 6~7년 정도 일을 같이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의 운영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기술력이 좋은 사람들은 1년도 안 돼서 뛰어나갔다. 그 무렵 춘천에 인력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활에 있던 박무근 씨가 ‘푸른인력’이라는 인력시장을 만들어나갔다.

임형석
現 강원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알코올 중독자들을 끌고 2006년까지 끌고 나갔다.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죽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셋이나 죽었다. 모두 알코올 중독이었다. 자활기업은 수급자를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인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나름 어느 정도 바탕이 있는데, 수급자들 중 처음 오는 사람들은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또 2~3년 정도 지나면서 춘천 내에 자활기업들이 계속 생겨났다. 자활기업끼리 네트워크도 만들었다. 전국적으로는 움직임이 훨씬 더 빨랐다. 자활사업이 빈민운동과 가장 밀접했기 때문에 초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운동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커지면서 색깔이 많이 달라졌다. 종교계에서도 자활을 만들었는데 초기 노동자협동조합을 지향했던 흐름과는 다소 달라진 양상이었다.

집수리 영역에서도 초기부터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주거복지의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도 주거복지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냥 주택 수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자활기업들이 초기에는 그런 목적을 갖고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다 보니 끊임없이 악순환이 됐다. 춘천에서 ‘참닭갈비’나 ‘빅샌’, ‘늘푸른환경’ 등이 꽤 오랜 시간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 자체로 대단한 것이다. 2017년쯤 ‘일꿈’이라는 인력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깨지고 말았다. 현재는 ‘봄내드림건축’, ‘강원드림건축기술교육협동조합’, ‘봄내건설기능인공동체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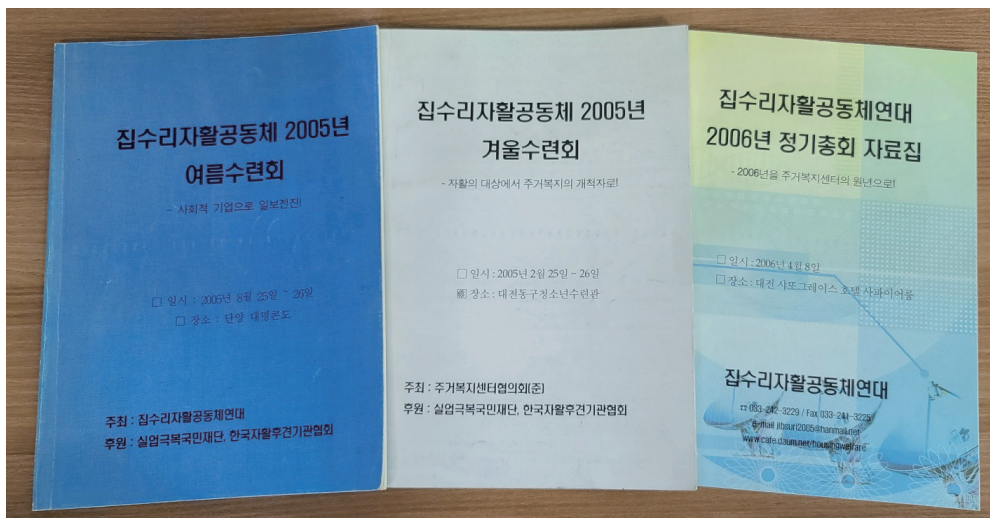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강원도 상황이 커지면서 2011년에 강원도 광역기업을 만들었다. 강원도 내에 있는 자활기업들이 1백만 원씩 출자를 해서 규모화를 시켜 광역주거복지센터를 만든 것이다. 수주를 받아야 하는데 개별 기업으로는 너무 규모가 영세해서 수주 자체가 어려웠다.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주식회사로 만들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다는 목표가 있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 강원도 공동모금회에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받기도 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긴 후 2014년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이 국장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2019년에 다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신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꼭 필요했던 건 아니다. 다만 조직이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늘 강조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힘들더라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공익법인 뭐 이러니까. 매번 출연자산 보고서를 내요. 출연자산도 없는데. 사무국에 업무가 가중되고, 협동조합됐다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업무들이 가중돼요. 지금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요즘 사회적 가치지표를 만드는 흐름이 있어서 조직에 맞는 사회적 가치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도 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임형석 이사장은 그게 아마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사장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맡아서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이다.

‘새희망건축’이 전국 자활기업 1호인데, 2005년 전국 모임을 처음 할 때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었다. 모두 임형석 이사장보다 연장자들이었다. 지금까지 생존한 주거복지 자활기업들 중 그나마 잘나가는 기업들은 자활센터 실무자들이 나와서 꾸러기는 조직들이 많다. 초기에는 현장을 이해하는 게 고민거리였다. 현장을 알려면 현장 기술자들에게 배워야 한다. 그런데 제일 먼저 부딪친 문제가 서비스의 질이었다. 전문가가 아닌 시선으로 봐도 엉망인 게 많았다. 서비스라는 마인드가 없었다. 지적질을



▶ 집수리자활공동체 자료집(자료제공:임형석)

하면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간 기술자들이 많았다.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싶은 마음으로 3년을 버텼다.

2009년 국토부에 사단법인 주거복지협회가 만들어졌다. 법적인 단체가 되다 보니 책임감이 더 커졌다. 그 과정에서 또 강원도에도 광역단위 기업을 만들고 나니 끌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아 또 맡게 되는 상황이었다. 현재 강원도에는 14개의 주거 관련 자활기업이 있다. 없어진 곳도 있고 새로 생긴 곳도 있다. 2015년 ‘봄내드림건축’이 마지막으로 생겼다.

주변에서 일 때문에 너무 여유 없이 산다고 얘기들을 많이 한다. 세상을 참 재미없게 사는 거다. 초기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일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도 걸리고 해서 집중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벗어나기가 어렵다. 올해는 강원자활기업협회장을 또 맡았는데 여기에 드는 시간도 적지 않다. 해야 하는 동기보다 해야 할 책임이 더 큰 건데, 어느 순간 이걸 떨쳐버려야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신협은 신협, 생협은 생협대로, 농민조직은 농민조직대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이런 것들이 계속 분절돼서 같은 분야 안에서만 계속 고민을 하거나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이 틀 안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해 왔지만 분야 간에 아우르는 그런 지점들은 그동안 지역에서 충분치 않았어요. ...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정기적으로 협동조합 심포지엄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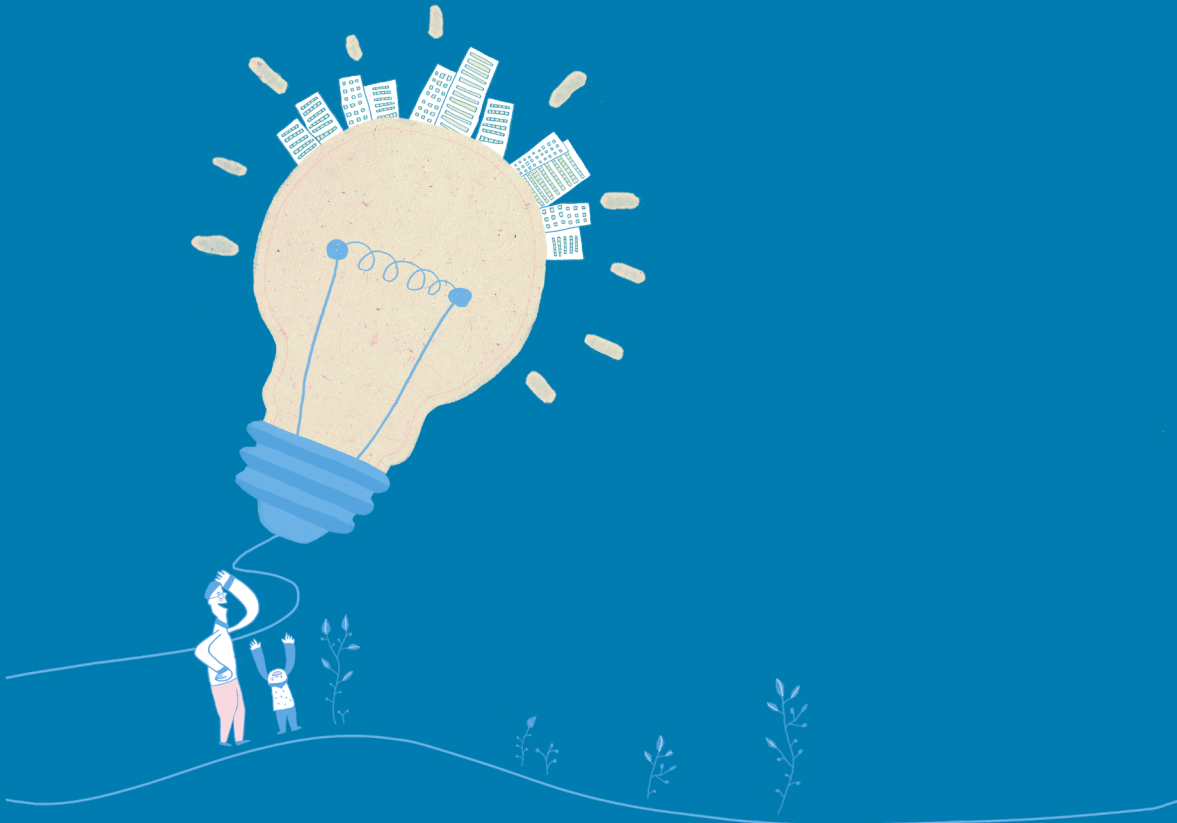
지역 내 협동조합의 연대에 대한 임형석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래야 새로 생기는 협동조합이라고 해도 지탱하는 힘을 배우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의료생협처럼 소비자와 직접 결합된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집수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하게 회비를 내고 수리가 필요할 때 자재비 정도를 부담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다. 주거 현실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활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거의 서비스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입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거와 관련된 생활권 보장이 포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LH와 연계가 돼서 3~4억이 배정돼 있는데 60가구 정도 명단이 들어와 있다. 어떻게 사업의 내용을 채울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를 보다

Look at the present



협동을 일구는 농민들의 이야기

—
만남 날: 2021.05.14. 16:00 @ 춘천농민한우 사무실
만남 사람: 전기환(춘천농민한우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야기 진행: 이진천, 김윤정, 안서희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위험 소고기 반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때 춘천에서도 100 여일 간의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지역의 생산자인 축산농민과 소비자가 모여 안전한 축산물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의 한우 농가들은 협동사업구조를 통해 자립적 운영에 대해 사업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농민운동이나 농업정책이 주로 중앙정부 의존형이거나 농협을 통한 농업인의 필요와 요구가 실제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작용했다. 지역의 다양한 요구가 수렴되지 못하다 보니 현장의 농민들은 생산작목 반 등의 협력구조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움직이기도 했다. 춘천 농민회는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2009년 2월 ‘춘천농민한우유통영농조합법인’(이하 춘천농민한우)을 결성, 2009년 8월에는 정육식당도 개업했다.



▶ 2008.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반대 투쟁(사진제공:전기환)



전기환
 춘천농민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농업분야에서는 농협을 먼저 떠올리지만 농협이 임직원 중심의 협동조합이 되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주인인 농민들은 들러리가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 농민 내부에서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투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으니 농민들이 독자적인 협동조합 운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농민들은 기존 법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체계가 있어서 새롭게 협동조합을 만들기보다는 영농조합법인을 많이 만들었죠.”

영농조합법인도 두 축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관 중심의 영농조합법인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로 막대한 투자 자산들이 들어오면서 개인보다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많다 보니 우후죽순 영농조합법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끝난 지금은 춘천만 해도 한 100여 개 이상 되던 것들이 손을 꼽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협동조합답게 자립에 기반한 자조조직으로 성장하

지 못한 이유이다. 그런 한계 속에서 춘천농민회를 통해 구매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되었다. 2001년 우리영농조합, 춘천농민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져 현재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에서 전국적으로 ‘우리영농조합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한 20여 군데를 만들었다. 강원도만 해도 영월, 철원, 춘천에 우리농영농조합이 세 군데 생겼는데, 그야말로 농민들이 공동 출자해서 판매 협동보다는 구매 협동을 한 셈이었다. 구매 협동을 했던 계기는 실제로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자재들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자재를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니까 농민들이 협동으로 공동구매를 해보자고 해서 기름, 농자재, 농약을 주로 취급했었다고 한다.

홍천에서는 농민들이 1993~1994년 즈음 자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농약 판매를 했었다.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한 5년~6년 하다가 없어졌다. 그때 홍천농약방에서 공동구매로 농약을 구입했는데 그쪽은 독자적이었고, 우리영농조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 셈이다.

“강원도에서는 영월, 철원과 춘천이었던 것이고, 춘천은 우리영농조합을 만들면서 공동 출자를 통해 처음엔 주유소, 농자재, 농약을 취급했어요. 그렇게 20년 되어서 약 70명 정도로 공동사무실도 꾸리고, 이사회 체계도 구성하여 실질적인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농협하고 경쟁이 되었고, 농협이 하지 않는 일은 농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니까 농협도 춘천우리영농조합법인 때문에 자재비랑 기름값을 낮추기도 했다. 2000년도 후반이 되자 구매 협동의 한계가 왔다. 농민들이 생산한 것에 대한 판매 협동의 중요성이 더 컸기 때문이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춘천농민회에서 한우 판매 협동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춘천농민한우영농조합법인도 만들어졌다.

2008년부터 1년간 준비하다가 2009년도에 판매점과 정육식당을 개업했다. 그때는 춘천농민회의 구매 협동과 판매 협동 두 가지가 있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상호 연대하며 이어지고 있는 춘천 농민들의 협동조합의 흐름이다. 다른 영농조합법인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작한 지 5년 된 춘천시 조사료사업영농조합법인이 있다.

소를 기르는 데 필요한 조사료를 서로 공동생산해서 공동작업하는 협동작업 구조로 실상은 생산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지금은 춘천에 구매와 판매, 생산 협동조합이 조합원 100여 명 정도 함께 하고 있다.

춘천에서 대안적 협동조합의 흐름에는 농협에 대한 배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사실 운동자 관점에서 농협과 계



● 2009.08. 정육식당 개업식(사진제공:전기환)

약하기가 너무 힘들니까 별도로 만든 것이 세 개의 협동조합으로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세 군데인데 다들 힘들어진 부분이 많다. 농민주유소를 운영하는 우리 영농조합도 초창기에는 잘 됐었는데, 농민들이다 보니 경영에 대한 회계 처리나 재정 건전성을 갖추기가 힘들다. 그나마 농민한우 같은 경우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식당이다 보니 협동조합 운동으로 전환되기엔 구조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식당이니 처음에 직원들도 조합원 가입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한계가 있어요. 진정성 있게 하려면 직원들도 협동조합에 참여해야 하는데 워낙 이직률이 높아요. 춘천의 식당 중에서 가장 먼저 주 6일제랑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하고, 정규직 고용도 처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 갈 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처음엔 직원들까지 포함한 협동조합으로 시도했다가 포기했어요. 정육점이나 판매만 하면 괜찮지만, 식당은 좀 어려워요. 협동조합의 운영과 참여구조가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고민되어야 하는 지점이었어요.”

현재는 2009년 시작과 비교해 조합원 수가 줄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다. 처음엔 33명이었는데 현재 25명으로 8명 중 6명은 농협의 견제를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였다고 한다. 지금은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는 가격과 도매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 못 버티고 그냥 나가는 셈이다.

춘천에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면서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농협은 관계화 되어 있고 또 그나마 있는 곳은 자립성이 없고, 그리고 이름만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술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

하다. 사회적경제나 농업기술센터 등의 연결 주체도 다르고, 지역의 네트워크 안에서도 단순한 연대 너머의 협력은 현실적이지 않다.

농업농촌에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협동과 공유의 구조보다는 사유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많이 느껴져 농민한우를 만들 때는 몇몇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의 원칙. 만들 때도 보조금 일절 없이 만든 것이고, 스스로 사업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보조금 안 받는다. 두 번째는 민주적인 운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모두 참여하고,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이사회 갔다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안이 나오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결정한다. 마지막은 이익 제로의 원칙. 사실 협동조합은 이익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해서 만들어졌고, 사업에 필요한 출자금도 자립적으로 모았다. 누적 출자금은 2억5천만 원 정도 된다.

사업을 하나 만들 때 출자금은 기본으로 전제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벌이다 보니 그나마 버텼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육가공 지을 땐 국가 지원금 기회도 생겼다. 농민한우 신북점은 공모에 당선되기도 했다. 지원 없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되니, 하고 싶은 것들은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 법적 관계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에 충실한 모습이다.

“생협이나 신협, 또 활발히 생기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있다면, 농업분야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얼마나 조직화해서 향후 농촌 지역 협동조합의 모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영역 간의 연합도 가능한 상황이니 각각 협동의 영역들을 서로 만나며 지향점을 찾았으면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죠.”

농촌마을의 ‘함께’ 돌봄, 별빛이 만든 협동의 별자리

만난 날: 2021.06.28. 09:30 @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만난 사람: 윤요왕(前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現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야기 진행: 김윤정, 안서희

별빛의 시작은 2005년 농촌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서 기인했다. 당시 농촌마을의 아이들은 학교를 마친 후, 주말과 방학 동안에 마땅한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간과 공간의 공백 속에서 사건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 도시로 하나 둘 빠져나가면서 남은 아이들은 이유없이 느껴지는 패배감 같은 분위기에서 씩씩한 성장 과정을 보내기도 했다.

“처음부터 조직이나 법인체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익숙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절박함, 당장 해결 해야 할 간절함으로 당사자 중심의 부모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어디 기댈 곳 없는 농촌 지역의 특수성이 당장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게 한 셈이지요.”

당시 아이들이 교육이나 마을의 주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게 돌봄과 교육을 함께 하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필요했다. 적어도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 서글픈 일만은 아니라는, 일상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동했다. 처음엔 학교 유치원 교실에서 시작해서 마을회관을 빌리게 되고, 예산이 없으니 부모들이 2만 원씩 내고 도시락을 싸 보내며 공부방을 운영했다.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줄기도 했고,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기 시작했다. 운영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바자회나 기금마련 콘서트를 하고 모임의 틀은 조금씩 조직의 틀로 옮겨져 가면서 매일 방과 후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5년에서 2013년까지는 비영리 개인사업자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가능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처음 시작해서 2008년 정도까지 부모들의 모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2010년부터는 농촌 유학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의 관심이나 참여를 만들어 간 시기였다. 학교도 학생 수가 점차 줄어 폐교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을 유지하려면 농촌 유학을 온 아이들을 봐줄 농가가 필요했고, 마을주민의 도움과 협력 없이는 꿈꿀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2010년이 되면서 법인 전환의 고민 속에서 농촌 유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사업과 외지 아이들이 함께하는 농촌 유학이 결합되면서 2013년에 협동조합법을 기반으로 조직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당사자 부모, 농촌 유학을 보낸 학생들의 부모, 마을주민, 교사,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 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뜻을 모으게 되었다. 2014년 4월 교육부 인가를 통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 설립은 10년의 시간을 거쳐 학부모 모임에서 법인으로 성장한 셈이다.

▶ 별빛산골마을 음악회(사진제공:윤요왕)





윤요왕
現 (재)춘천시마을
자치지원센터장

“약 9년, 10년의 시간 동안 외부의 도움 없이 버틴 점, 공간 문제와 마을주민들의 참여와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동네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자원을 내어주고 마을 교사가 되어준 경험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틀을 세우는 데 대단한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오히려 2005년에 법인체부터 만들자고 들이댔으면 아마 환영받지 못했을 거라고 한다. 필요를 해결하는 과정들에 다양한 구성원이 힘을 모을 수 있었던 시간이 탄탄한 지지대가 된 셈이다. 하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정화하는 데에는 조직의 신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되니 운영비용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

옥수수랑 감자를 심고, 팔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 지원사업이 늘어날수록 서류 더미에 파묻혀 오순도순 다양한 모임들을 갖던 시간과 바꾸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어떤 해에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말자는 내부 합의까지 진행한 적도 있었다.

자생적 활동에서 조직을 갖추고, 외부지원사업의 경험을 거치면서 보이는 지점은 점차 확장되어 마을 어르신들의 삶을 보게 되었다.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2014년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민도 시작했다.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은 도움이 되지만 업무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이 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막상 사회적기업으로 갖춰지니 농촌 마을의 융복합적인 사업과 필요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가 수월해졌다. 애써 알리려 하지 않아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라는 수식어가 주는 효과를 알게 된 셈이다. 해오던 일의 목표와 결과가 자연스런 웃을 찾아입게 된 느낌. 그래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인식들이 생기기도 했다.

윤요왕 씨는 2020년에 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내부적으로는 크게 확산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소회도 잠시 털어놓는다.

“동네 형님들이 별빛 누구한테 넘겼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오래 맡다보니 그렇게 느껴지시나봐요. 전체는 아니어도 이런 부분은 협동조합 내부적으로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봐요. 협동조합이든 시민단체든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쪽이 어져 온 과정에서 어떤 리더의 영향력이 작동하다가 어느 순간 그 리더가 부재했을 때 조직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별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틀을 만들었기에 그런 부분은 다행히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조직의 틀과 힘을 갖춘 잇점이 있는 셈이죠.”

시간이 지나 조직이 성장하는 관점에서 내부 구성원들은 필요에 의해 뚝뚝 뭉쳐 열심히 움직이지만, 확장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 경우 ‘협동조합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 질문이 생긴다. 윤요왕 씨는 그래서 가치와 개

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넘나들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항상 수레의 양 바퀴처럼 같이 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협동조합이 처음엔 당사자들의 필요로 시작되더라도 어떻게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 가능할 것인가는 늘 마주하는 질문이다. 그것은 내부 구성원들이 유연해지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어야 가능한 일들이기에 그렇다.

‘우리마을 119’라는 노인복지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건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보고,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반찬 나눔을 하며 봉사하는 것 등 결국은 공동체성을 통해 마을이 같이 협동하고 살아가는 터전임을 암묵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일상이 된 실천으로 협동이 생활화되면 서로 물이 들고, 스며드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 아닐까 싶다.

“나로 시작해서 우리가 되는 과정이 저는 공진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공동으로 우리가 진화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이라는 틀이 다시 복귀시켜주는 인간의 원래 본성,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되었다가 결국 다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는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별빛지역아동센터 활동사진(사진제공:윤요왕)

자연부락, 삶에 깃든 마을 협동의 가치

만남 날: 2021.05.14. 10:00 @고탄리 경로당

만남 사람: 이석희 할아버지

이야기 진행: 김윤정, 안서희

올해 여든이신 이석희 할아버님이 고탄리 고향 마을의 추억과 함께 기억하고 있는 협동의 모습은 일상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7~80년 전, 3대 드물게는 4대가 함께 대가족을 이루며 살던 시절에 온 가족이 농사일에 참여하며 양식을 마련하는 일은 가족 구성원의 협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떠났다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역시 가족의 협동을 그 동력으로 손꼽았다.

대가족의 역량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마을 단위의 품앗이로 해결했다.

일하는 게 품앗이고 협동이고

이런 농사일 말고도 마을 단위의 협동, 즉 품앗이가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또 있었는데 경조사를 온 마을 사람이 합심하여 치를 때였다. 마을에 결혼식이나 초상이 발생하면 인근의 촌락이 모두 모여 경조사를 준비하고 참여하였는데 사전에 일정이 정해지는 결혼식과 달리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는 경우 특히 여름에는 무더위로 인해 준비에 더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을 단위의 협동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이석희 할아버지
 춘천시
 고탄리 거주

“우리가 김을 맨다든지 또 눈에 뭘 심는다든지 눈을 맨다든지 하면 우리 (가족의) 노동력이 우리 갖고는 이제 모자라니까 한꺼번에 심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건 남의 손을 꼭 빌려야 해요. 내가 가서 일꾼을 여덟 정도 남한테 얻어서 같이 모를 심으면 내가 여덟 개를 해 줘야 해요. 우리 집에서. 누구는 언제 누구는 언제. 그렇게 일하는 게 품앗이고 협동이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요즘은 혼사가 많은 집을 대상으로는 결혼식에 한두 번 참석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혼주 역시 두세 번째 결혼식부터는 청첩장을 보내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런 요즘 세태와 달리 과거에는 한 집안에서 여러 번 치르는 결혼식이라도 환영했다.

결혼식 품앗이는 몇 번이라도 즐거워

“결혼식이 있으면 좋은 게 왜 좋냐면 그냥 먹잖아요. 그때는 배고픈 세월이잖아요. 그냥 와서 떡도 먹고 뭐 별걸 다 먹으니까. 그냥 결혼식 하면 좋지. 그런데 그 집에는 번거롭지만 일 봐주는 사람들은 그게 더 좋은 거야.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옛날에는 결혼식이 뭐 한 집에 다섯이고 나는 하나면 나머지 넷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다섯 번 했는데. 나는 (자녀가 한 명이라 결혼식도)한 번인데 안 가도 돼.’하는 이런 친구가 있다고요.”

이렇듯 경조사를 마을 단위로 준비하고 치르고 했기 때문에 청첩이나 부고를 내도 마을 단위로 내었다고 한다. 오늘날 청첩과 부고를 마을 게시판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마을의 유지나 유명 인사가 아니라면 말이다.

당시 마을 단위 협동의 자취는 대동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부락마다 운영된 대동계에서는 쌀을 빌려주었는데 가령 쌀 한 가마니를 대출하면 1년 후에 한 가마니 반으로 갚아야 했다. 년 이자 50%의 고리였지만 쌀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곤 했다. 늘 빌리는 사람이 빌려 가는 모습이 많았다고 하는데 비록 높은 이자였지만 그럼에도 그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넉넉하지 않은 삶에서도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신용과 함께 가는 협동

“그런데 내가 썼는데 ‘아이 난 못 갚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저거저거’ 하니까 (다른) 빚을 내서라도 다 갚았죠.”

이밖에도 4개리 주민이 초등학교에 모여 가을 운동회를 하면서 술도 같이 하고 부락 단위로 내기도 하면서 마을 단위로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운동회 종목으로는 줄다리기는 물론 마라톤이나 빨리 뛰기 등이 있었는데 그 중 지게에 짐을 지고 먼저 뛰기 종목도 있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석희 할아버님은 지게에 짐을 지고 달리기 시합을 했던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우습다고 회상했다. 또한 <어머니 가게>라고 동네 아주머니 몇몇이 미원, 생활용품 등을 갖다 놓고 순번을 돌아가며 팔았다고 하는데 이런 매장이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한다.

춘천지역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을 묻다

만남 날: 2021.06.18, 11:00 @근화 396

만남 사람: 조한솔 (동네방네협동조합 이사장) / 오석조 (협동조합 판 이사장)

이야기 진행: 김윤정, 안서희

시작의 기억

2010년대 초반, 협동조합을 창업한 당시 두 청년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도전의 의지는 요즘 협동조합에 다가서는 청년들과는 사뭇 곱이 다르다. 지금처럼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의 과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학문적 관심이나 호기심에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또는 기존 주식회사의 운영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협동조합의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사회적 연대의 동력이 퇴색하면서 최근 합류한 조합원과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심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보다는 내부 조합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1세대의 시작을 알린 2010년대와 2020년대는 불과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두 세대 사이에는 말 그대로 상당한 세대 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2012년에 졸업하고 도모라는 문화예술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도모가 사회적기업이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후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맘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청년 기업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동네방네, 비틀에코, 뉴이어로즈 같은 기업들이 창업과정을 알려주면서 2015년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시도하고, 2016년에 재도전해서 사회적 문제나 사업모델을 계속 고민하게 되었지요. 만들 수 있는 법인 유형 중 주식회사는 자본가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는지 당시엔 협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추진하면서 친구들을 설득해서 만들었어요.” <오석조>

“저는 대학때 한림대 사회학과에서 프랑스로 사회적경제과정을 보내주는 제도에 신청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후 201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기로 참여해 2012년 임의단체를 만들고, 2013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 법인체로 동네방네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2012년에 협동조합이 제도화되면서 제대로 협동활동을 해보자 하는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지역활성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모였던 친구들이라 함께하게 된 측면이 컸어요.” <조한솔>

조합원으로서의 정체성의 퇴색과 리더십 교체의 어려움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와 연대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의 기업으로서만 선택하여 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조합원의 지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예전과 달리 조직의 위기를 공유하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협동조합의 창업주로서 1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직 문화를 더 큰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도 리더의 역할이 조직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한솔
동네방네협동조합
이사장

오석조
협동조합 판
이사장



“어떤 식으로 외부적 동력으로서의 동기가 안 만들어지는데, 내부적이든 어떤 형태든 그런 동력으로 끌고 가는 힘이 더 있지 않나 싶어요. (중략) 내가 해보고 싶고, 가치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이걸 놓지 않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리더의 의지나 조합원들의 개인적 판단이 결합해서 조합이 유지되는 측면일 수 있지요. 사실 힘든 일에 조합원들이 푹푹 뭉쳐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아직 만들어갈 지점이 많이 보입니다.” <오석조>

소속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리더의 선출은 어렵고 그렇다고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자니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혁신을 추구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처럼 조합원이 소속 협동조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공감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까지 증거를 두 번 했었어요. 다 잘되긴 했는데, 결국은 값은 법인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보니 구성원이 리스크에 대한 분배까지 함께 안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경험을 쌓은 친구들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게 되고, 출자금은 공동책임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여겨지기 쉽죠. 저희는 한 두 번 정도 구성원이 크게 바뀌다보니 직원 조합보다는 기업으로서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조한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합을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임기제이고 (자리를) 줬다 다시 돌아오는 것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저 외에 다른 사람이 해서 잘 운영되는 것들이 정말로 더 좋은 모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리더에 대한 교체가 한번은 있어야 하는데, 이 리더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어받는 친구가 이 협동조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확신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석조>

리더 교체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문제에 공감을 보이지 않는 조합원과 무엇인가도 모호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수록 내부 조합원 관리의 위

[커버스토리 이사람]

‘사회적 협동조합 1세대’ 조한솔 동네방네 대표

낡은 여관서 싹튼 청년의 꿈, 멈춘 도시에 숨을 불어넣다
6년전 대학 졸업 후 동네방네 설립
2014년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도시 재개발 필요성 의문서 시작
춘천 근화동 ‘불연 게스트하우스’
40여년 된 여관 개조 이색 번신
4년째 운영 연평균 4000명 찾아
지역 내 청년 창업 여건 부족



[춘천]원도심에 관광명소 만든 청년조합

협동조합 수 도내 최고
숙박업·요리교실 활발
이색 활동 펼쳐 업소문

【춘천】춘천이 협동조합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현재 춘천의 협동조합은 총 155개로 도내 817개의 18.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조합 수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이색적인 협동조합이 구성돼 화제다.

‘동네방네 협동조합’은 근화동 일대의 활성화화를 위해 청년들이 만든 단체다. 이 협동조합은 구 터미널 인근의 여인숙을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시켜 연간 4,000여명이 방문하는 춘천의 명소로 만들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40세 이상 주부들로 구성된 ‘춘천워커즈협동조합’은 거두리에 ‘반찬투정’이라는 브랜드로 반찬사업과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강원드림건축기술협동조합’은 춘천의 건축 사업가들이 모여 시민들에게 건축이론 및 실기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해결 협동조합, 폐차장 협동조합, 어르신 일자리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구성이 기대되고 있다.

▶ 협동조합 <동네방네> 관련 신문기사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9032700134>(검색일 2021.06.20.)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44302>(검색일 2021.06.20.)

기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 인증이나 운영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언제든 조합원 이탈(이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연대에 대한 압박과 균형감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평생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좀 다른 지점도 있고요. 연대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만 제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일단 요청되는 대로 하기도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할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연차가 쌓일수록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압박도 생기고, 협력을 하더라도 사실 좀 대안을 얘기하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서 머뭇거리게도 되요. 지역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으니 보이는 시선도 인식하게 되고요. 우리의 협동조합 활동과 지역 차원의 활동 사이 균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석조>

사회적경제라는 구조 안에서 협동조합 간은 물론, 유사 업종 간 또는 지역 간 연대나 협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존재한다고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이러한 연대를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시선이 존재하고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임을 입증하려 시도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압박은 연차가 쌓일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답한 점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연대에 매진하다 보면 오히려 ‘기업 활동은 언제 하지?’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다고 수위 조절에 들어가자니 주변 호사가의 입방아도 신경 쓰인다고 했다.

분명 협동조합이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회적 연대’의 공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공덕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사회적 연대를 마냥 저버릴 수도 없는데 막상 요즘 네트워크나 연대의 방식을 보면 실질적인 연대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관계 맺기에 그치는 것 같아 그 균형을 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지점이 된다.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만난다는 것

지역에서 청년들이 협동조합 모델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에 대해 실제 청년들은 협동조합의 구조나 제도적 지원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협동조합은 만들지 말라고부터 얘기한단다. 맹목적이거나, 이상적 생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몸소 겪어서일 것이다. 우선은 하고자하는 아이디어나 아이템 자체에 맞는 유형인지를 살필 것을 권한다. 현재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에서 운영역량과 리더십이 잘 만들어지기도 전에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바뀌어야 하는 구조가 특히 유연해졌으면 싶기도 하다. 그런 현실적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알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일단은 어려운 이유부터 구구절절 이야기 하게 된다고 했다.

“사회적 문제나 지역 문제에 관심있는 경우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것과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시작으로 사업모델을 담아내는 것은 좀 구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지점이 섞여 있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도 뭔가 사회적 성과에 대한 압박들이 느껴질 수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 자체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의 방식이 잘 안 맞는 경우도 보여요. 사회적경제도 많이 제도화되었고, 소셜벤처의 영역이 사회적 투

● 협동조합 <판>의 청년들(출처:<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8120500040>)



자방식으로 더 활성화되는 측면도 많아졌으니까요. 협동조합으로 생존하려면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에 잘 맞게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조한솔〉

“저도 누가 협동조합 한다고 하면 말려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가는 이유는 제가 만들어온 역사가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만들었고, 저희 친구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곳에 소속되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그런 피드백이 돌아오는 부분 때문에 힘든 부분도 내적 동기로 계속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오석조〉

어찌보면 춘천지역에서 청년협동조합의 1세대이자 대표주자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고민들은 막연한 협동조합의 이상적 모습이 현실에 안착하도록 돕는 질문을 마주하게 한다. 개별 협동조합의 운영을 넘어선 지역과의 연대에 힘쓰면서도 조금은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협동을 출발선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도 주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주어진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협동조합으로 진화할 계획을 풀어놓기까지 한다. 동네방네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전환을, 협동조합 판은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건물주의 꿈을 꾸고 있었다.

“저는 어쨌든 협동조합이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진다고 봐요. 협동조합들도 지역사회도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우리가 진짜 협동조합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걸 해소하고 싶은 욕심은 계속 생겨요. 그게 계속 가도록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조한솔〉

춘천시 협동조합의 현황 들여다보기*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2020년 12월 기준으로 춘천시 내 설립 운영 중인 126개 협동조합(일반 협동조합 88개, 사회적 협동조합 38개) 중 111개(88%)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2019년 춘천 협동조합 지원 조례의 제정(제5조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 경제 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고 2021년 첫 전수 조사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운영현황 조사의 목적은 협동조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개별 조합의 특성에 맞는 현장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방안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사내용은 기본 현황 이외에 크게 조직 운영, 고용, 재무 그리고 애로사항 등 4개의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¹

* 본 내용은 2021년 상반기에 실시된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약 재구성함.

기본 현황

춘천시 관내 신고 또는 인가된 협동조합 210개 중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126개로 협동조합 사업 운영률은 전체 60%로 작년 대비 5.6% 증가하였다.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2017년 이전 설립하여 3년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운영률은 40%인데 반해 2018년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의 운영률은 88%인 것으로 나타나 설립 후 시간이 흐를수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에 응답한 111개 협동조합 중 일반 협동조합의 비율은 68%, 사회적 협동조합은 32%로 다른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 비율이 15~19%인 것에 비해 춘천시가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 사업은 주로 지역사업형(45.7%)이나 위탁사업형(28.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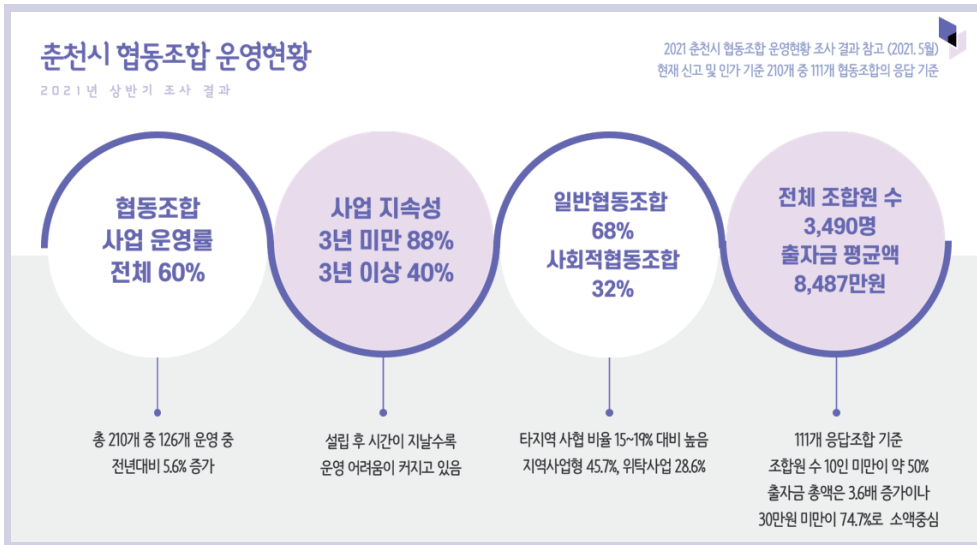
111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전체 3,490명, 평균 31.4명으로 이는 2018년 대비 17% 증가 수치이나 이중 절반 정도는 조합원의 10명 미만인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금 역시 평균 8,487만 원으로 2018년 총출자액 26억 원에서 2020년 12월 현재 94억 원으로 약 3.6배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출자금 1좌의 규모는 소액인 10만 원 이하의 비율이 36.9%이고 3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경우 74.7%로 전반적으로 자금 규모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인·지정된 협동조합은 13개로 11.7%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였다. 사회적기업 인증 협동조합과 비인증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을 비교한 결과 각각 4억3천만 원과 1억2천만 원으로 약 3.5배 차이가 났다.

운영현황

운영현황의 조사항목은 총회, 이사회 운영, 교육, 협력사업, 협의체 참여 및 지역 사회 기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020년 총회의 진행률은 83%로 조합당 연평균 1.5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사회 진행률은 72%로 조합당 연평균 4.7회 개최되었다. 협동조합의 필수 요건인 교육은 조합당 연평균 5.9회 진행되었지만 조사 대상 중 절반을 겨우 넘는 55%의 협동조합만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관련 교육(32.2%)이었으며 직무교육(24.6%), 사업 전략 수립

(16.1%) 그리고 회계 세무(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현황 관련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비율은 38%이었고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가치 실현(33.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매출증대(21.6%), 상품 및 서비스 확보(18.9%), 공동이익 대변(13.5%) 등의 순으로 협력사업 수행의 목적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협의체 참여 비율은 전체 협동조합 중 67%로 일반 협동조합의 협의체 참여율이 26%인 것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율은 4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사회 기여에 있어서도 전체 협동조합의 평균은 63%로 나타났으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각각 59%, 71%로 사회적협동조합이 협의체 참여나 지역사회 기여에 있어서 일반 협동조합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는 주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방식(31.6%)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원봉사(21.1%), 공간 제공(17.5%) 그리고 물품을 기부(14.9%)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 2021 춘천시 협동조합 운영현황 조사 결과 1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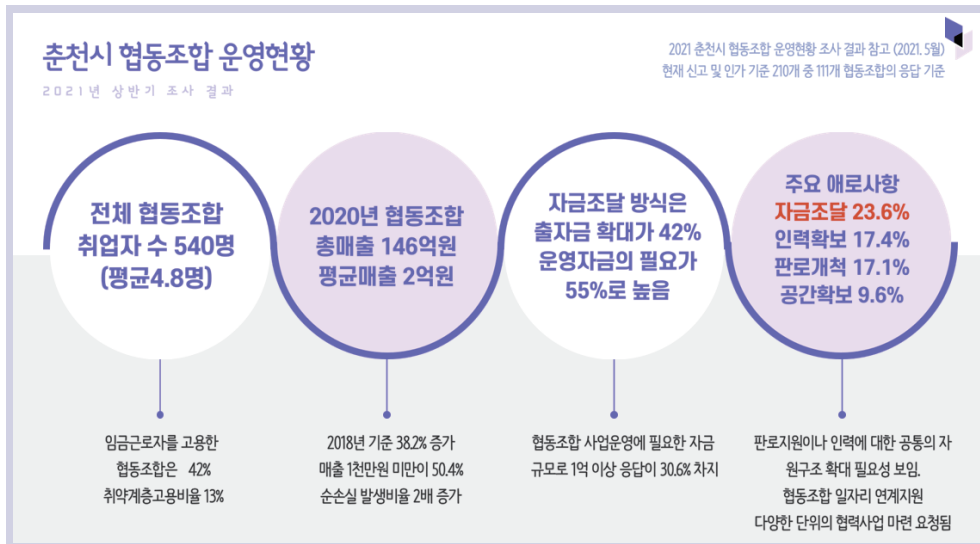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전체 종사자 수는 협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근로자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수치로 전체 종사자 수는 999명 평균 9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일반 협동조합 종사자 수는 722명(평균 9.5명)이고 사회적협동조합 종사자 수는 277명(평균 7.9명)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취업자, 피고용인, 임금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자는 피고용자, 무급형 상근임원과 유급형(실비보상) 자원봉사자를 말하는데 전체 협동조합의 취업자 수는 540명으로 평균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고용자는 급여를 목적으로 주 1시간 이상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와 유급형 임원을 말하는데 전체 피고용자 수는 444명(평균 4명)이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임금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협동조합은 절반에 못 미치는 42%이었고, 나머지 52%의 협동조합은 임금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412명으로 이중 정규직이 350명(85%), 비정규직이 62명(15%)이었다. 이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 협동조합의 임금근로자 수는 324명(평균 9.3명)이었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금근로자 수는 87명(평균 7.3명)으로 평균 임금근로자 수는 일반 협동조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협동조합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0.22%에서 2020년 0.28%로 0.06% 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리고 임금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13%이었다.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경우 191만 원이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44만 원으로 다소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현황

2020년 협동조합의 총매출은 146억 원, 평균 매출 2억 원이었으며 이는 2018년 기준 38.2%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매출이 없거나(33.6%) 1천만 원 미만인 협동조합의 비율(16.8%)이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재무현황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순손익에 있어서도 순이익이 발생하는 비율은 40%이었고 순손익이 없거나

(32%) 순손실이 발생(24%)인 경우가 절반을 상회하는 5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특히 순손실 발생 비율이 2018년 11%에서 24%로 두 배 넘게 상승한 것은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한 운영 상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협동조합의 자산은 2018년 90억 원에서 2020년 142억 원으로 규모면에서 58.9%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1천만 원 미만이거나(43.9%),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26.2%) 경우가 전체 70.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자산 규모 면에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49억 원에서 2020년 43억 원으로 10.7% 감소하였고 부채가 없는 경우가 37.8%, 3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의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비율이 21.6%이었으며 1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비율이 8.1%를 차지하였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42%의 협동조합이 조합원 출자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었고, 정부 보조금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은 13.3%에 불과하여 주로 내부 조합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운영자금(55.0%)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시설자금(21.3%), 홍보자금(21.3%), 연구개발(6.5%)의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



▶ 2021 춘천현동조합 운영현황 조사 결과 2

사되었다. 이들 협동조합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1억 원 이상이 전체 30.6%를 차지하였다.

협동조합 성장 지원에 관한 의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자금조달(23.6%)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운영인력(17.4%), 판로개척(17.1%), 사업공간 확보(9.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금조달에 관한 어려움은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찬가지로였으며 차순위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판로개척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운영인력을 호소하였다.

협동조합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의견은 결과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지원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판로지원(13.5%), 인력지원(13.5%), 경영 컨설팅(11.6%), 기금 조성(10.7%) 그리고 상시 상담 체계 마련 및 지원(10.1%) 등의 다양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특히 판로지원과 인력지원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인력지원과 상시 상담 관련 정책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마을, 공동체, 복지 등의 비경제 또는 비영리 영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현재 춘천지역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국 단위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 차지 비율이 14.3%인데 반해 춘천의 경우는 33.9%로 약 2.3배 가량 높다. 전체 사회적협동조합 업종 중 57%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유형 중 29%가 위탁사업형이라는 사실은 춘천의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이 공동 온라인 마케팅을 비롯해

공동 구매, 공동 판매, 공동 납품 등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8년도와 비교하여, 총 조합원 수, 총 출자금, 매출총액, 고용 규모 등에 있어서도 꾸준히 증가하며 협동조합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현상 역시 협동조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이 그렇지 않은 협동조합보다 3.5배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조사 결과이다. 협동조합의 사업 지속력을 높이고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춘천시의 경우 2021년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단계별로 인사·노무 시스템 구축, 사회적 가치 지표 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없거나 조합원 수가 적고 출자금액이 적은 신규 협동조합의 경우, 유관 기관의 사업을 다양하게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제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에 맞는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의 성장 필요성이 클수록 공동의 사업이 체계를 갖추고 내실을 강화하는 것은 조합원과 조직의 입장에서도 필수적인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지원 제도를 기반으로 한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운영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인력의 부족을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과 연결할 수 있는 ‘춘천 협동조합 Jobs’의 준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일자리로의 연계보다는 협동조합 조직의 특성과 사업 방향성에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 실무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 인력자원 풀을 꾸준히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지역 기금을 조성하거나 대출의 편의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협이 ‘사회적경제 상생대출’과 같은 제도를 확대하거나 중앙단위의 사회연대 신협의 설립 또는 도 단위의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춘천지역에서 자생적 대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문지마 종갓돈’과 같은 풀뿌리 사회기금 운동도 의미있는 시도가 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오프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역시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중요 정책지원에 있어서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이 지자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구조와 필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것과 협동조합의 가치나 운영원칙의 변함없음이 균형감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마련하기 위함이다.

협동조합들의 자생적 경험과 운영역량, 적정한 정책과 자원의 연결 구조는 협력적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가는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양적 논리가 아닌 질적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로를 향하는 것이어야 하는 까닭이다.

미래를 향하다

Head for the future



남기는 것과 바라는 지점의 성찰

—

진행 일시 : 2021.06.02.(수) 10:00

진행 장소 : 춘천시청 3층 중회의실

참가자 : 이재수(춘천시장)

이기원(現춘천시 협동조합위원회 위원장)

이재욱(前춘천시 협동조합위원회 위원장, 現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전기환(춘천농민한우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한광수(가톨릭춘천신협 상임이사)

김경희(주)나비소셜컴퍼니 대표)

김윤정(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장(연구총괄)

김익수 · 이진천(연구진 대표)

이영애(춘천시 사회적경제과 과장)

조영주(춘천시 사회적경제과 계장)

조경자(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박은영(춘천시 협동조합위원회 위원, 한살림 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인숙(춘천시 협동조합위원회 위원, 봄빛공예협동조합 이사장)

2021 춘천시 협동조합 운동사 간담회 스케치
남기는 것과 바라는 지점의 성찰

2021.06.02.(수) 10:00 / 춘천시청 3층 중회의실





조경자 센터장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지역 협동의 뿌리를 찾아내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초석이 되게 하고자 협동조합운동사 발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제안서 발표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나비소셜컴퍼니가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늘 사업 추진 중간보고를 겸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님 여는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수 시장

춘천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춘천시 중심정책으로 삼아온 것이 이제 3년 되었네요. 협동으로 함께하는 우리 시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거였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도시 안에서 진행되는 공적 업무 외에 상당 부분을 협동조합에 위탁하거나 협동조합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자는 그런 방향을 우선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던지 공적인 영역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했었던 사업들 대부분이 협동조합으로 전환, 그것이 지역 사회에 신호를 주고자 하는 의지였고요, 그런 것들이 자극받아 지역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왕성한 활동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시도가 짧은 시간에 확인되기는 어렵겠지만, 협동조합의 정신과 가치, 역사를 제대로 찾아내고, 정신을 갖자는 의미에서 협동조합 운동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비단 최근에 보이는 모습들을 넘어 아주 오래된 뿌리 깊은 근거들도 찾고, 그 근거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길로 계속 연결되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꿈이, 또 우리 미래를 새로 규정하고 새로운 법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 협동조합사가 새로운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윤정 소장
 (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

연구 진행과 관련해 춘천지역의 협동조합을 떠올리며, 조금 크게는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이나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협동조합의 길에 함께 해오신 네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각 분야의 맥락을 어떻게 지역의 관점에서 함께 소통시키고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발제를 먼저 듣고, 오늘 참여해주신 협동조합 위원님들과 연구진 간의 질문과 토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춘천에서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지역과 만나고 계신 분입니다. 한광수 가톨릭춘천신협 상임이사님께서 춘천지역 신용협동조합 조직의 주요성찰과 제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한광수 상임이사
 가톨릭춘천신협

안녕하세요. 춘천지역 신용협동조합 조직의 주요성찰과 제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발제하게 된 가톨릭춘천신협의 한광수 상임이사입니다. 발표 요청을 받고, 주말 동안 숙제를 하다 보니 신용협동조합이 춘천 지역에서 협동조합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그동안 저희 신협이 추구해왔던 금융가치와 실제로 그런 가치를 잘해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찰해 보고,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신용협동조합을 이끌어 가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인간 중심, 조합원 중심이라는 남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조합원의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한 신협은 조합원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금융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문턱 낮은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중소 자영업자와 영세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사

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이웃, 든든한 동반자. 그것이 바로 신협이 추구하는 금융의 가치입니다.

춘천지역에서의 신협운동은, 1972년 12월 30일 전신전화국신협의 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1973년 3월 9일 운교신협, 1980년 8월 18일 춘천와이신협, 1984년 4월 8일 봄내신협이, 1991년 1월 29일 춘천신협, 1991년 7월 13일 죽림동 천주교신협 등이(앞쪽 서문과 내용이 중복되어 축약합니다.) 1996년 7월 26일 동춘천신협에 이르기까지 속속 창립되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신협도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크나큰 시련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면서 질적인 관리에 소홀하였던 많은 조합들이 1997년 말 1,666개에서 2004년 말에는 1,067개로 감소하였고, 2021년 4월 말 현재는 875개 조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춘천지역도 당시의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총 16개 조합 중에서 12개 조합이 퇴출 및 합병되면서 현재는 가톨릭춘천신협, 봄내신협, 춘천와이신협, 춘천신협의 4개 조합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지역 신협 조직에 대해 돌아보면, 몇 가지의 성찰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신협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자산 증대와 이익의 극대화에 치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산 성장을 위해서 또는 은행권보다 낮은 공신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에 대한 예대마진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금리가 함께 인상되고 이는 지역사회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권으로부터 소외당한 지역 내의 농어민, 도시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선호하여 자금이 필요한 부문에 공급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점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37억 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한다면, 1천만 원의 신용대출 370건을 대체할 수 있으며, 업계 통념상 담보대출이 더 안전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의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공동대출 형태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고액대출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외부적 관점으로는 외부 규제의 강화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신탁은 고리사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태동했고, 이 역할은 양극화가 심화된 오늘날에도 유효하기에 신탁은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신탁은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시중 은행과 똑같이 건전성 검증을 받아야 했고, 규제는 강화되어왔습니다.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건전성 및 수익성을 중시하는 시장의 평가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신탁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금융가치와 현실에서의 금융사업구조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탁은 상생협력대출금의 적극적 취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대출금은 사회적가치 측정 및 완화된 심사기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탁에서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캐나다의 밴시티 협동조합은 ‘착한 금융’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정착시킨 사례로 전 세계 신탁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협동조합 고유의 ‘상생’과 ‘협동’이라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내세워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8개 자회사를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조합원에게 밴시티에 예금하면 환경보호나 고용 창출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또한 매년 실적을 발표할 때도 이윤보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얼마나 투자를 늘렸는지 강조하면서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켰음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소개했으며, 이러한 면에서 상생협력대출금은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용대출의 활성화입니다.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서민들을 위한 소액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및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신협이 지역과 상생하는 역할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요구됩니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자금이 여전히 은행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금이 신협에도 배분된다면, 신협에서도 시장에서만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정부자금을 저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서민금융기관으로 보다 원활한 여신 공여가 이루어지리라 판단됩니다.

김윤정 소장
(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

앞으로 신협이 지역금융의 든든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게 되네요. 다음으로는 농민입장에서의 영농조합 이야기를 전기환 대표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환 대표이사
춘천농민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

반갑습니다 춘천 농민한우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춘천지역에서의 협동과 협업적 농업경영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분야에도 다양한 협동조직(작목반, 공동출하회, 축산계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자율 조직들입니다. 법률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업협동조직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농업

협동조합¹과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²’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으로만 구성되어 농협조합법에 의한 지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신용사업(예수금, 보험)분야까지를 수행합니다. 중앙회, 연합회 구성이 가능하고요.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으로만 구성되지만 지역성이 없고, 경제사업만 가능합니다. 연합회 구성 규정은 없습니다.

춘천지역에는 농업협동조합은 읍.면을 중심으로 6개 조합과 춘천 인근 4개군(철원, 화천, 양구)을 관할하는 축산협동조합 1개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원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이 326개,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이 총 16개가 있습니다.

춘천농민한우유통영농조합법인은 2009년 춘천지역의 한우농가 8명의 조합원과 25명의 출하생산자회 회원으로 법인을 결성했습니다. 한우의 공동출하, 가공, 유통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소득향상과 질 좋은 한우를 적정한 가격으로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춘천지역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하기 위해 가공장, 직매장,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명의 조합원과 20여 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250두 이상의 한우 도축을 통한 직매장 운영, 공공급식 공급을 통해 연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적 운영원칙(공개의 원칙, 조합원 중심의 원칙, 자립의 원칙, 지역사회환원의 원칙) 중 ‘조합원의 중심의 원칙’을 위해 격월로 총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과 운영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총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창립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공동판매, 공동구매를 실현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민권익향상의 목적으로 한다.

현재 어려움은 지역 내 협동조합의 마찰로 인해 조합원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 내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한 상생의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법인의 지속화를 위해 젊은 조합원의 가입 확대, 안정적 경영을 위한 경영인 양성, 공공급식에 있어 영농조합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 모색 등 해결을 모색해야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조합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협동·협업적 농업경영체 조직들의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협동조합은 작게는 천여 명, 많게는 수천 명의 농민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의 실질적인 농민협동조합이지만 운영의 비민주성, 조합원 참여의 한계, 신용사업중심의 운영, 매취판매 중심이 아닌 출하 중심으로 인한 경제사업이 농민조합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 아닌 임직원 중심으로의 운영인 셈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황에서 보여주듯 대부분이 법인 이름만 유지되고 있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한 협업적 경영보다는 대표중심으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라 경영의 영세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협동조합은 농민중심적 운영과 농민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경제사업중심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 간 협동·연합을 통해 사업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매취판매 사업 확대로 농민조합원의 소득향상에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세무, 회계, 판로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연대도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영농조합은 실질적인 협업 경영으로 참여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판로 확대 모색과 더불어 영농조합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후계경영자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가려면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정 소장

(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



이기원 위원장

춘천시
협동조합위원회

지역의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면서 농민, 농업분야의 협동조직에 대해서는 자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환 대표님의 현실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춘천시 협동조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지역 협동조합의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시기도 한 이기원 위원장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학, 계산학, 통계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사립 대학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추구하던 바는 항상 시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000년도 지나면서 대학에서 사무처장을 맡던 당시 화천 토고미마을을 중심으로 친환경 쌀 소비와 농촌관광에 대한 요청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식당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농산물을 연결해 3년 정도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엔 굉장히 뿌듯한 일이었는데 제가 사무처장을 마치고, 다음 사무처장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중가에 비해 비싼 쌀을 사용해 1억 이상 결손이 났다는 지적 사항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시장의 효율성과 지역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일 사이의 어려움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서 10년 전쯤으로 돌아가보니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협동에 대한 연결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고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학시절 지냈던 곳이 미국 UC버클리였는데 이 동네 자체가 미국 협동조합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려 4년 반을 지내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었고, 대학의 책방이 'University book coop'이라는 협동조합이었어요. 왜 \$1씩 회비를 내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도 책 좀 싸게 준다더라 해서 이용했었고, 그것이 나중에 돌아와서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알게 되었

습니다. 94년도에 연구년으로 1년 간 호주 캔버라를 갔을 때도, 그 동네도 그렇게 협동조합 하는 곳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지냈었습니다.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할 때 유기농 식품을 동네 Coop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역에서도 생협매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아토피가 사라졌지요.

한 때 신활력사업을 6년에 걸쳐 진행하면서 마무리 과정으로 인제 마을 리더분들 300명 이상을 교육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300명에 대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 이해과정을 통해 팀워크를 형성하고 신뢰와 협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업을 어떻게 일구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충분히 못 구했던 점은 아쉬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보자고 저지른 사업이 유한회사 화전민이었습니다. 당시엔 협동조합 법이 없었던 시기라 협동조합은 생각도 못했지만, 유한회사로 운영하다 보니 전기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능력의 부족으로 결국은 말아먹는 사태가 벌어진거예요. 그때 한 분이 옆에서 ‘왜 너희는 교육프로그램에 협동조합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협동조합을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바로 옆에 생협도 있었고, 조금만 가면 원주에 그렇게 큰 운동들이 있었던 것들을 전혀 몰랐었다는게 너무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숙제이고, 어찌면 지역의 숙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을 했었고, 대학에서도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이라는 과목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사회학과와 경제학과의 반대를 합니다. 실제 관련 학과 안에서 전공이 만들어지지도 않아 교양과목으로 3년을 하다가 더 이상 개설하지 못했던 점이 지금도 아쉽습니다.

결국 춘천의 미래를 보며, 춘천을 협동도시춘천으로 정말 제대로 육성하고 싶다면 공동육아에서 시작해서 대학까지, 더불어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할 것들이 보이는 셈이지요. 춘천시가 춘천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갈 때 학생들이 최소한 ‘이것이 협동조합이구나!’가 아니라 협동적인 생활이 우리 생활 속에, 교과과정 속에 녹아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CBL(Community Based Learning)’이라는 정규 교과과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커가는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이나 지역사회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오랜 모델인 로치데일의 시작이 산업혁명의 그늘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K-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겪어야 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나 그린 혁명처럼 에너지전환의 큰 혁명을 맞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지역사회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안에서 품어내지 못하면 우리 더 심각한 양극화를 겪게 될 겁니다.

더러 제가 생활하는 방식에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교수님은 디지털전환 하신다고 하시면서 광장서적만 이용하십니까, 학교식당을 두고 빅샌샌드위치를 즐겨드시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 친구가 지역서점 대표고, 그 집 자녀들이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고. 지역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지역사람들이 잘 벌고, 잘 쓰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은가 합니다. 광장서적 직원이 컷속말로, “교수님. YES24에서 직접 사시면 저희보다 10% 싸게 사실 수 있어요”하고 굉장히 커다란 영업비밀을 알려줬는데, “10%보다는 우리 광장서적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장서적에서 삽니다.”하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윤정 소장

㈜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



이재욱 이사장

춘천별빛사회적
협동조합

교육과 지역을 통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욱 춘천 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님, 전 춘천두레생협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한광수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자발적인 민간 운동으로써의 협동조합운동은 해방 이후에, 단절된 역사가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때 협동조합이 있었다고. 1929년 원산에서의 노동자 총파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바탕에 있었던 힘이 노조도 있었지만, 거기에 딸려있었던 소비자협동조합이라던지 의료협동조합이라던지 다 뭉쳐서 힘을 발휘해 원산 총파업을 했었고, 38년이 지나면서 일제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다 무너집니다. 다 없어지고 나서 오랜 후에 다시 해방 이후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관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는 민간협동조합으로 신협이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이 소비자협동조합인데, 이 소비자협동조합은 형님 격인 신협에서 처음엔 매장 내 매장(Shop in shop) 형태로 신협 내에서 가게로 공동구매를 구매로 하다가 독립시켜주고 했어요. 신협이 사실 소비자협동조합의 모태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신협 중앙회의 초대 사무총장 하셨던 분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초대 사무총장을 하기도 해요. 광창렬씨라고. 그래서 그만큼 자발적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신협과 소비자협동조합이 같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협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지역에서 소비자협동조합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이 평창의 실리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서울대 평창캠퍼스 자리가 실리에요. 실리라는 마을도 알만한데, 그때의 농촌에 있는 소비자협동조합은 구관장 같은

곳이었어요. 마을 가운데 있는 집에 사랑방 하나를 터서 라면,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을 놓고 구판장 같은 형태로 했었고, 도시로 오면 슈퍼마켓의 형태로, 사진 찍어둔 것 보면 슈퍼마켓과 모습이 거의 흡사했어요. 당시에 춘천에서도 농촌형 소비자협동조합이 있었고, 시내에도 소비자협동조합이 있었는데 꽤 여러 개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소비자협동조합을 1기 소협이라고 하고, 2기는 이것을 조금 더 큰 규모의 슈퍼마켓으로 차리기 시작합니다. 농촌에서는 농협이 구판장을 크게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농촌형 협동조합이 다 무너지고 시내에 있는 소비자협동조합도 개인이 하는 슈퍼마켓에 밀려서 그것도 다 무너지고, 그 기간이 사실 크게 번졌다가 채 10년도 되지 않아 무너진 셈이지요. 소비자협동조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일부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생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협의 선배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쫓아서 왔던 분들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을 했던 분들이 우리는 이 방식으로는, 일반 물건을 파는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농약 치는 문제, 우리나라 그 당시에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이 전 세계에서 1위였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하고 우리나라가 1, 2위를 다투기도 하고. 농업에서 화학비료 사용을 장려하다 보니 건강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어요. 일본에서 유기농을 중심으로 직거래 운동,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신협의 선배들이 보고 와서 우리도 방향 전환을 하자 해서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소비자협동조합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하면서 하면서 소비자협동조합 2기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무렵에 춘천에서도 ‘봄내생협’이라고 생겼지요. 지금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시장님은 실무자를 했었고 강원대 교수 몇 분이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2기 생협들, 전환한 생협들이 거의 다 소멸합니다. 왜 소멸했냐면 소비자들을 땅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건강 문제로 접근을 했는데, 당위성에 대한 설득은 됐지만, 조합을 구축하고 있는 협동조합 실무자, 협동조합 조합원 간의 협동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았어요. 생산자들에게는 물건값을 못 주고, 실무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2기 생활협동운동으로 시작했던 조합은 대부분 무너지는데 이때 일부가 살아남아서 지금 3기의, 이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일부 생협들이 통·폐합을 하면서 공동구매와 중앙물류 단위의 공동물류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했던 생협이 현재 한살림, 두레생협, 아이쿱 이렇게 다 같이 물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살림이 독자적으로 했던 것들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같이 공동 물류로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분화되지 않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앙회의 다 회원들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봄내생협도 그런 관계,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무너져가게 됐죠. 그 무렵에 춘천에서는 생협의 단절기가 생겨요. 물론 '방주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것이 생협으로 전환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5-6년 했나, 7~8년 정도 방주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춘천생협'이라고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전환하게 된 것은 방주공동체라는 틀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 맞춰주기가 어렵고, 생산자들도 힘에 부쳐 전환을 한 거고요. 생협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논의했는데, 처음에 많이 부딪혔던 것은 생협으로 하면 안된다는 일종의 항의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하면, 봄내생협이 문을 닫으면서 겪었던 위험부담이 소비자생협의 부정적 인식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방법은 이 규모를 유지하면서, 확대하면서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 나가는 방식은 생협이 맞겠다해서 생협으로 하자 했고, 이름도 전신이 방주공동체라서 방주생협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다른 데서 와서 춘천생협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대표성이 상실된다 해서 '춘천생협'이라고 하게 됐어요.

이때 방주공동체로 넘어오는 초기만해도 원주에 한살림이라는 생협조직이 있었어요. 원주 한살림하고 춘천생협에서 조합원이 이사가면 서로 가입시키고 출자금도 서로 보내주는 관계가 몇 년 이어지기도 했어요. 이후엔 새로 맡았던 직원들이 이런 관계를 전달하지 못한 일로 끊어졌고요.

춘천두레생협의 퇴계점이랑 거두점 전화번호 끝 번호가 '6294'예요. 처음에 제가 이 번호를 만들 때는 '유기'라는 것은 생물체의 각 구성원들을 조합원으로 해서, 그것을 생물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런 관계로 우리 사회를 구해보자 하는 뜻으로 '6294'라는 숫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유기농업으로 형성을 해야 한다는, 그때 당시에는 '생산자와 소

비자의 관계, 소비자와 소비자의 관계, 우리 조직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형성해 나가자'라는 뜻에서 6294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현재 춘천에 3개의 생협이 있는데 생협들 사이에서 6294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야 하고요.

스위스에 유명한 2대 생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그로와 코업스위스,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조합원들에게 생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런 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우리는 굉장히 선진국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생협에 가서 생협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출자금 낸 것은 까먹었으니까 생각도 안 하는데 매일 이용하니까 그냥 가게인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은 정신일치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처음 생협 시작할 때, 생협운동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협선배들도 신협운동 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직원들은 신협운동 얘기하는 사람 없을거예요, 생협도 마찬가지로 생협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직원이 없어요. 한살림도 마찬가지예요.

협동조합에 있어 생협과 신협, 생협과 다른, 춘천에서 보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조합원 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신협도 조합원 수가 엄청 많잖아요? 기본법 이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조합원들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꽤 많을텐데, 어쨌든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조합원들조차도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협운동을 얘기하신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협동조합을 왜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해해야지 우리 춘천이 협동조합의 도시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무늬만 협동조합인 곳들이 엄청나게 늘어날거고, 협동은 안 될 거예요. 6294가 춘천의 정신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 춘천이 지향을 같이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김윤정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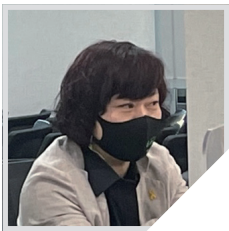
(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

고맙습니다. 네 분의 발제 속에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지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된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춘천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조합원이긴 하지만 협동조합의 의미를 찾아가는 조합원들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들이 힘이 될 것 같고요, 단위별로라도 조합원 교육에 조금 더 힘을 써야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지점으로 와 닿았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이나 운동적인 부분들이 균형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서는 운동성이 되색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잘 비춰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294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연결되고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협동의 방식들로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위원님들 질문이나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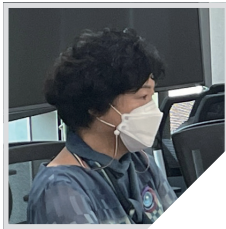
한살림 춘천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저는 한살림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춘천에서 한살림 매장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원주에서 독립한 지는 5년째이고요.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만의 고민은 아니거든요. 같이 협력해야 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야 하는데 저희 안에서만 고민하는 것으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또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계신데, 그 자리가 마련이 안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

또 원주의 생명협동교육관이라고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저희도 아
 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날 한살림 정신 어디갔냐 하는 저희도 세대 간
 의 격차를 많이 느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실무자
 들, 지금의 활동가들은 한살림 정신이 없냐 그런 뉘우침을 저희도 지
 금 하고 있거든요. 연대해서 원주 생명협동교육관에 가서 같이 협동
 조합 교육을 같이 받는다던가, 오늘같은 자리를 선배님들과 더 자주
 만들어서 그런 노하우를 좀 전해주시면 춘천 안에서의 협동조합 발
 전에 좀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정 소장
 (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
 준하게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인숙 이사장
 봄빛공예협동조합

신협에서 저는 한광수 이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설립 30년 되신
 건데,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되나요?

한광수 상임이사
 가톨릭춘천신협

9,000명이 조금 안됩니다.

김인숙 이사장
봄빛공예협동조합

신협 사업 중에 금융사업은 많이 말씀해주셨잖아요?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 청춘합창단, 신협 아카데미, 가톨릭 동우회 같은 활동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근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광수 상임이사
가톨릭춘천신협

신협의 역할을 돌아보느라 숙제로 받아들였는데, 궁금해하시니 조금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11년 정도 되었는데요, 봄아카데미라고. 가톨릭신협이다 보니 가톨릭 신자들이 저희 건물에 오시면 편안해하셔서 은퇴하신 분들께 놀이터를 만들어 드리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서 동사무소 규모보다 훨씬 크죠. 30여 개, 선생님만 한 30분이 계셔서, 처음에는 이 분들이 저희 신협에서 강의하시는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하셨는데, 기쁨값도 안 드리고 무료봉사를 하시니까 너무 죄송해서 10만 원씩 교통비를 드리게 되었어요. 거의 그런 분들이 500명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는데 5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어떤 경우에는 세 번, 한번 이렇게 오셔서 건물 자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까 전기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애썼고요. 가끔 사계절 음악회라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하프를 보여드리는 협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후원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하고요.

지역에서의 금융가치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는 코로나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분들께 200억 규모의 대출금에 대해 작년 3월에 아예 그 자리에서 5,000만 원까지는 금리 1%를 낮춰드렸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4%였으면 3%로 1%를 바로 낮춰드리고, 5,000만 원 초과되는 분들은 0.5%를 바로 낮춰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니까 한 1억 정도, 그럼 그렇게 낮춰드린 1억 정도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린 셈이

지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드렸는데 1년 있다가 금년도 3월 달에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대마진은 있어야 하잖아요, 환원하러니까 이분들이 코로나가 회복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융에서도 저희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한마디 했습니다.

전기환 대표이사
춘천농민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

한마디 덧붙이면 이기원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회대에는 NGO 학과라는 게 있잖아요.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을 양성하는데, 전국에 그 많은 협동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걸맞게 조합원들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마땅치 않습니다. 춘천이 협동조합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강원대나 한림대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정기적이 힘들면 비정기적이라도 협동조합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춘천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영주 계장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한살림위원님 이야기를 듣다보니 마음에 와닿습니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저희가 계속 운영 원리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조합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지 못했었구나 반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춘천시와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활발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운동사작업을 통해 그런 지점들이 잘 담기면 좋겠습니다.

이기원 위원장

춘천시
협동조합위원회

왜 우리가 협동조합운동을 해야 되고 춘천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걸 해결하자고 300조를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확인이, 이젠 거꾸로 협동사회로 가는 것에서 답을 찾자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획일적인 성공모델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장기적이지만 협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전환으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김윤정 소장

(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이진천 선생님과 김익수 선생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진천 연구원

연구진 대표

진심이 많이 느껴지는 네 분 선생님들의 말씀 감사했습니다. 협동운동에 대한 조직에 관여하셨던 경험에 대해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고, 다행스럽다고 보이는 것은, 춘천시 협동조합사가 아닌 운동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어서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제기들을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협동조합 택시라고 해서 택시를 타는 것은 택시 서비스이지 협동조합은 택시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말씀 듣다 보니 장기적인 과제, 공통의 과제 이런 것들은 이걸 계속 운동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안 하면 정체하고 퇴보하니까 운동하려면, 운동시키려면 교육 투자가 시차원에서 필요하겠죠. 특별히, 갑자기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익수 연구원
연구진 대표

저는 춘천하고 인연을 맺은지 2년이 아직 안되었고요. 집도 서울인데, 춘천 오가면서 따뜻한 도시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운동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이 아름다운 세상, 장애인도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세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보람차게 미력하지만 보탬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윤정 소장
(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

협동조합의 방향성이나 조직에 대한 이런 고민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의 삶과 연결된 협동의 명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이면서 공동체의 구성원,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 간극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보면서 꼭 조직중심이 아니어도 편하게 협동의 삶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함께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동의 삶으로 이정표를 삼는다는 것

김윤정

(주)나비소셜컴퍼니 부설 연구소장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갖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은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목표로 삼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수단으로 삼기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를 질문하기 보다는 열린 답을 구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시간을 이어오는 길에 만난 협동조합의 여행자들은 처음엔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 하고 나니’라는 말들을 던져주었습니다.

협동조합에 한껏 고무된 상황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 의미, 운동의 중요성에 가장 힘주어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춘천에서 협동조합을 일구어 온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협동조합의 가치와 이상을 따라 움직였다기보다는 함께 사는 지역 사람들과 서로의 삶을 살피는 계기들이 하나둘 서로를 엮어가는 방향으로 성장해 온 경향이 보였습니다. 물론 전체의 일반화는 될 수 없겠지만, 뭐라도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같이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도 전해온 길이었습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태동한 풀뿌리 금융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까지 왔고, 지역의 유기농산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로 이어져 온 생협은 지역의 문제에 맞서는 해결사처럼 뿌리내림과 가지치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업난과 의지의 상실이 사회를 뒤덮었을 때, 더 많은 사람과 연대하며 삶의 끈을 놓지 않게 하려 애쓴 땀방울들이 지금도 지역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촌의 아이들을 향해 움직였던 부모들과 농촌 마을 주민들은 사는 곳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며, 생각대로 일해보고자 도전했던 청년들은 어렵다면서도 다음 걸음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발 들여 지역 어른이 되어가는 사이 가족보다 더 힘

껏 애쓰며 키워온 협동조합이 이제는 지역에서 일벌이기의 선수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모질고 힘겨운 시간을 겪어온 만큼 더 단단해짐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해졌다고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알아차림이 시간 곳곳에 사람 사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많이 더 자세히 소중한 조각들을 담아내지 못함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성찰하게 된 주요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앞으로 협동조합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래적 관계나 단순 연대를 넘어 협동의 가치와 지향에 대한 공통점이 작동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거창한 사업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어도 일상 속에 연결된 필요를 해결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의 필요에 함께 대응하는 연속이 협동조합의 경험으로 축적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세 번째, 조합원 교육을 통한 공동체의 강화 노력입니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지향점을 이야기 할 때,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른 모습이나 방식의 변화는 있겠으나 협동조합의 존재함을 꺾는 변하지 않음을 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공공성 확장과 조합원 확대에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필요의 존중과 시너지의 창출이 가능한 다양성의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협동조합의 목적에 따라 더러는 경제성이 약해도 어울림이나 즐거움 자체가 협동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협동조합을 이야기할까에 대해서는 굳이 답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런 여정을 함께 만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서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안으로의 질문과 충들을 품어가며, 밖으로부터의 변화 속에 지탱하며 걸음 하느라 콧노래 흥얼거릴 새가 마땅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그 안의 사람과 사람이 지역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려면 다시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의 모아집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이 지역과 이웃을 향하고, 그 속에 나의 삶이 살아있는 것은 동떨어짐이 아니니까요. 우리들의 '협동'을 이야기하는 굵고 깊은 질문에 함께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육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품는 마음으로부터 헤쳐나갈 용기를 아우르는 의미였습니다.

이번 협동조합운동을 마무리하면서 기록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지고, 흔적을 찾는 작업이 맘처럼 쉽지 않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지역 협동의 기록이 공유되는 자산으로 모아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개별 협동조합의 단위에서도 잘 갖추어 보관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록보관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은행이나, 기증 형태의 공동 체계를 설계해보는 시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공동의 경험과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의미와 가치를 통해 우리 스스로 공동체의 이정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반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록



신북읍 지내2리에 전해지는 일종의 향약으로 지내리의 역사를 담은 향약 고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지내리 이름이 도정촌(陶井村, 陶村)이었으며 예전의 가마터는 없어졌으나 지금도 도정(질우물)이 마을 우물로 사용되고 있다. 현존하는 책 중에서 『도촌동약(陶村洞約)』, 『동내좌목(洞內座目)』은 동헌(洞憲), 좌목, 완의(完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방 뒤의 기록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이어져 있다. 내용 중에 사오백 년 전해져 온 것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조선전기~중·후기 때의 향약 자료로 추정된다.

표제에 『도촌동약』 본은 표지가 낡아서 다른 글들은 판독이 어렵다. 본문의 처음은 ‘동내좌목’으로 한 쪽 당 7명씩 이름을 적었다. 이름 아래에는 자(字)와 생년을 적었으며 권헌(權憲)부터 박제망(朴齊望)까



▶ 도촌동약(陶村洞約)

1 도촌동약에 대한 개설은 춘천시, 춘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 아카이브2-유교문화의 해설을 인용하였으며 수록된 자료는 『춘천향교지』 수록본임을 밝힘.

지 모두 41명이다. 이를 성씨별로 보면 권(權) 1, 박(朴) 14, 이(李) 9, 유(柳) 8, 김(金) 3, 정(鄭) 3, 최(崔) 3이고 그 뒤에는 추가로 가입한 ‘추입(追入)’자들을 적었다. 그 뒤에는 별다른 표기가 없으나 이후 다른 시기로 추정되는 좌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중행좌(中行座) 남행좌(南行座)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그 뒤에는 ‘동헌’ 19항목이 이어진다. 신의를 다지고 화목함을 닦음(강신수목;講信修睦)부터 관혼상제의 마을 일들을 서로 돕고 환란을 서로 구제해 주기로 한다는 덕목이 주요 내용이며, 끝에 기유년에 좌목과 계헌을 개수한다는 서명과 날짜가 밝혀져 있다.

『동내좌목』에는 경술(庚戌)이라는 간지가 보인다. 표지 뒷면부터 공회에서 결정된 완의가 4편 이어지는데, 갑진 경술년과 경술년에 2편이다. 주로 강신의 약조가 흐트러진 일, 송금(松禁)이 해이해진 일 등을 다루며 동규(洞規)를 다지는 내용인데, 그중 경술년의 완의에는 “본 동의 동규는 선배로부터 설치되어 시행되어온 것으로 하나 같이 ‘퇴계약조(退溪約條)’를 준수하여 선을 포장하고 악을 징계함을 버리로 세운다고 정하기를 명확히 하였다[本洞洞規 自先輩設施 而一遵退溪約條 褒善懲惡 立綱定明矣]”는 말이 있다. 퇴계의 약조란 1556년에 퇴계가 쓴 『향림약조서 부조약(鄉立約條序 附約條)』(퇴계집 권42)에서 볼 수 있다. 이로 보건대 도촌동약의 당파적 연관도 어느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어서 국기일을 적은 다음 본문이 시작된다. 이어서 ‘동헌’ 23조항이 적혀 있다. 마지막 항은 갑진년의 완의에 따라 동원(洞員)으로서 동임(洞任)을 능멸한 자는 ‘이름을 도려내고 마을에서 쫓아냄(할명출동;割名黜洞)’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어서 좌목이 쪽 당 6명씩 유상세부터 모두 51명의 이름이 수록되었다. 자와 생년을 표시하였고, 후대의 기록으로 타계한 사실은 상단의 여백에 ‘선(仙)’자를 적어놓았다. 그 다음은 추입자나 승입(承入)한 사람들의 명단이 해를 달리하며 이어진다. 마지막의 과선이 없는 쪽에는 임신년의 완의가 적혀 있는데, 대대로 동원이었던 사람의 자손으로서 신입한 사람은 1냥씩 예납하였는데 쌀 한 말을 내는데 불과하여 차후로는 5전씩 내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책의 중간에 나오는 유경복은 아래에 ‘정해증광(丁亥增廣)’으로 보아 과거에 급제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마방목』에서도 이름과 생년(1758년)이 같은 사람으

로 확인이 된다. 이 밖에도 『도촌동약』이 『동내좌목』보다 앞선 시기의 자료라는 사실은 초계정씨의 항렬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내좌목』 중의 초계정씨 ‘승(承)’자 항렬자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의 이름인 것으로 『초계정씨천호장공과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향약은 퇴계와 율곡 당대의 실천과 그 주장에 따른 이후의 지방향약들이 대세였다고 알려져 있다. 퇴계가 시행한 ‘약조’는 효제충신의 덕목을 중심으로 별척사항들을 정한 내용이었지만, 주자의 성리학 영향으로 송나라의 여씨향약을 시행한 것은 16세기 후반 주로 율곡에 의해서였다. 『도촌동약』이 퇴계의 맥을 이으면서 어떤 변모를 거쳤는지도 자세히 살펴야 할 점이다. 특히 남인계의 서원으로 알려져 있는 인근의 문암서원과 도정촌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원들이 문중서원으로 변하게 되는 18세기 타 지역의 양상들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도 문암서원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²

2 (사)춘천역사문화연구회 홈페이지 자료 및 이 연구회의 정재경 전문위원 해설 인용.

- 一. 신의를 다지고 화목함을 닦는 일(3월 봄과 9월 가을에 차례로 돌아가며 술을 담그는데 술을 많이 마셔 술기운을 빌려서 호기를 부리고, 잡담하고 긴장하지 않아 탈난 것에 해서 벌을 논한다.)
- 一. 講信修睦事(春三秋九 次次輪回釀酒 極飲而使酒 離談及不緊頰 論罰事)
- 一. 불효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윗사람을 능멸하고 젊은이를 업신여기는 자는 경중에 따라 벌을 논하는 일(무거우면 관에 보고하고 가벼우면 벌준다. 천한 자가 귀한 자를 능멸하는 것도 역시 한가지다. 양반과 연로한 사람을 믿고 거짓말 하고 공공연하게 남을 업신여기고 경솔한 자는 마땅히 듣고 처리하지 않는다.)
- 一. 不孝不悌凌上侮少者 隨輕重論罪事(爲重則報官 輕則致罰 以賤凌貴者 亦同 而恃其兩班及年老 構成虛言 公然凌輕者 不宜聽理事)
- 一. 효자, 조부모를 잘 모시는 손자, 절개가 굳은 여자, 절개가 굳은 부인 등 고상한 행실이 뛰어나게 다른 자를 관에게 보고하고 포상한다.
- 一. 孝子順孫烈女節婦 高行卓異者 報官褒獎事
- 一. 이미 타인이 사기로 약정한 것을 꺾하여 사는 자와 같은 동네 심부름 아이를 불러내는 자는 공론을 따라 중벌을 내린다.
- 一. 圖買他人約買 及¹同里使喚者 從公論重罰事

1 及 뒤에 '招引'이 빠진 것 같다.

- 一. 근심과 재난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는 일(화재를 당하여 다 타고 남은 것이 없을 때 상하를 막론하고 각기 지붕을 이을 짚 한 단, 서까래 한 개를 가지고 원조(願助)한다.)
- 一. 患難相救事(凡遇火災燒盡無餘 勿論上下 各持蓋艸一束 椽木一條 願助事)
- 一. 차일 및 휘장(장막) 병풍을 혼인 및 상가 집에서 사용하고 3일이 지나도록 유사(有司) 집에 돌려주지 않을 시는 쌀 한 말을 거두어들인다. 제사, 목욕 및 개인 연회 시에도 역시 동일하다. 차일을 만들 때 물건을 내지 않은 자는 영원히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파괴나 손상을 시켰을 때는 즉각 보수를 기약해야 한다. 하지 않을 때는 동네에서 내쫓는다.
- 一. 遮帳屏風 婚喪用後 過三日不還有司家者 白米一斗徵納事 祭祀沐浴及私宴亦同 遮日成造時 不爲出物者 永勿許用 而破壞者則刻期修補 否則黜洞
- 一. 새로 들어오는 회원은 동상례(東床禮)²를 마친 후 쌀 한 말을 마을에 낸 뒤에 입회를 허락한다.
- 一. 新入之員 東床禮設行後 白米一斗納洞後許入
- 一. 망장(望狀) 이외 다른 데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상, 부인상을 당한 사람이 자녀상(子女喪)에 쓰기를 원하면 허용한다.
- 一. 望狀外勿許他用 而喪親喪室之人 願用於子女喪則許用事
- 一. 봄 가을 강신(講信) 때 이유 없이 불참하면 제마수(齊馬首)³를 한다. 마수(馬首)를

2 동상례(東床禮): 혼례가 끝난 뒤에, 신랑이 신부집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

3 제마수(齊馬首): 향약의 벌칙 중 한 중목 또는 문신들 사이의 벌칙 의례. 제마수의 어원은 생원진사시인 사마시(司馬試)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말을 타고 서울 시내를 다니는 유가(遊街)라는 행사에서 유래하였다. 즉 그날 합격자 중에 가정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합격자에게 점심 한턱을 내면 유가 시에 그에게는 장원한 사람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게 하여 제일 앞에 세워 거리를 행진하는 풍속 [유가] 에서 나온 말이다. 태종실록 과 중종실록 에 세 번 이 용어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고풍(古風)에 의한 벌칙으로 행하는 잔치인 듯하다. 이 용어를 향약의 벌칙규정으로 처음 넣은 사람은 이이(李珥)였다. 1575년경에 만들어진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鄉約束)'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제마수란 약간 뜻이 변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처하는 벌칙이었다. 즉 이에 처해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여, 향약의 임원들에게 한턱을 내면 죄를 용서하여주던 벌칙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손도(損徒)⁴를 한다. 손도(損徒)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내쫓는다.

一. 春秋講信時 無緣不參則 齊馬首⁵ 馬首不行則損徒 損徒不行則黜洞事

一. 거두어 나누어 주는 유사(有司)의 일은 아래서부터 위로 미치고 차례로 돌아간다.

一. 捧授有司自下達上輪回事

一. 여분의 백미와 해마다 늘어난 증식을 보상(保上)하고, 가을 강신 때 전장(傳掌)⁶하는 일. 비록 승흡(升合)이 없더라도 잡비(雜費)는 모두 동장(洞長)에게 보내게 시켜서 돌아가며 알게 한다. 혹 약간이라도 줄어든 일이 있으면 동회(洞會) 때 벌을 의논한다.

一. 保上餘存白米 年年取利 趁秋講信傳掌事 雖升合無 或雜費都教盡送於洞長 意以爲輪知事 或有斗升間減縮之事 則洞會時 論罰事

一. 강신 때 유사 교체 시, 거두어 나누어 주는 유사(有司)가 갖고 있던 물품 중 일 전, 한 자, 한 되의 미수분이 있으면 兪중(兪)한 벌임을 알고 교체 취임을 허락하지 않는다. 불행

4 손도(損徒): 손도란 어원은 향리생활에서 유래하였다. 즉 향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일정한 기간 향리의 직임을 맡기지 않았던 전통에서 나온 말로 성균관 유생에게 처해진 벌칙이다. 이를 향약에서 사용한 것은 이이(李瑀)가 1575년 경에 만든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에서이다. 옛 풍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다. 이는 동인계, 노·소론의 향약에서 공통으로 보이고 이황(李滉) 계통의 남인계 향약에는 보이지 않는 용어이다. 손도에 처한 사람은 삭적(削籍: 회원의 명단에서 빼어 버림)보다는 경미하고 제마수(齊馬首)보다는 큰 잘못에 부과하는 처벌 규정으로 강약시(講約時)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문밖에서 들어야 하며, 향약의 유사(有司) 등의 직임에 임용되지 못하였다. 즉 손도는 일시적인 회원 권한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손도에 처해진 사람이 반성하게 되면 이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를 풀어줌을 감사하는 잔치 [謝筵] 를 베풀어야 하며 '해주일향약속'에서는 다섯 가지 과일과 세 가지 이상의 탕이 준비된 상을 차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향약의 벌칙 중 한 중목 또는 문신들 사이의 벌칙 의례. 제마수의 어원은 생원진사시인 사마시(司馬試)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말을 타고 서울 시내를 다니는 유가(遊街)라는 행사에서 유래하였다. 즉 그날 합격자 중에 가정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합격자에게 점심 한턱을 내면 유가 시에 그에게는 장원한 사람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게 하여 제일 앞에 세워 거리를 행진하는 풍속 [유가] 에서 나온 말이다. 태종실록과 중종실록에 세 번 이 용어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고풍(古風)에 의한 벌칙으로 행하는 잔치인 듯하다. 이 용어를 향약의 벌칙규정으로 처음 넣은 사람은 이이(李瑀)였다. 1575년경에 만들어진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제마수란 약간 뜻이 변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처하는 벌칙이었다. 즉 이에 처해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여, 향약의 임원들에게 한턱을 내면 죄를 용서하여주던 벌칙이다.

6 전장(傳掌): 말아보던 일이나 물건을 후임자에게 넘겨서 맡김.

하계 불이 나서 없어진 것은 스스로 준비하여 마을에 납부한다.

- 一. 講信傳掌時 捧授有司保物 一錢一尺一升 未收則僉知重罰 勿許遞任事 不幸有失火 闔失之弊 則自備納洞事

- 一. 차일폭(遮日幅)을 걷을 때 70세 이상은 내지 않으며, 만약 자식이 없을 때는 80, 90세라도 전례대로 낸다.
- 一. 收合時限七十不出爲旆 若無子則 雖八九十依例備出事

- 一. 상하 유사가 만 일 년이 되어 서로 바꾸는데 맡은 일을 게을리 했거나 동원(洞員)을 업신여기고 능멸한 자는 벌을 논한다.
- 一. 上下有司周年相遞事 所任不勤及侮侵洞員者 論罰事

- 一. 결혼과 장사에 부조하는 일. 장사에는 보미(保米)⁷ 쌀 4말, 일꾼 30명. 양상(兩喪) 때 상하(上下)하는 일. 일꾼은 점심을 지참하여 하루 부역에 나간다. 원하는 것이 담지(擔持)⁸면 발인 하루 전날 저녁 후에 하유사(下有司)가 상가로 이끌고 가서 점검하며 상가의 일을 관장한다. 밥 지을 쌀은 각자 한 되를 가지고 가며, 화⁹ 한 자루를 각기 갖고 간다. 하인의 장사에는 보미 쌀은 같다. 일꾼은 20명, 화 20자루를 상하(上下)한다.
- 一. 婚喪扶助事 喪則保米四斗 役軍三十名 兩喪上下事 役軍各持點心一日赴役爲乎矣 願者擔持則發軔前一日夕後 下有司領率 喪家捧點護喪事 飯米一升各持爲旆 炬一柄 各持事 下人喪則 保米上同事 役軍二十名 炬二十柄上下事

- 一. 결혼식 때는 동네 하인 모두 각기 화를 가지고 와서 하루 시중을 든다. 동원(洞員)은 각자 닭 한 마리를 내어 부조하는데, 혹 닭이 없으면 명태 5마리를 대납해도 무

7 보미(保米): 보인(保人, 조선시대 평민 남자가 부담하던 국역의 하나)이 병역에 복무하는 대신 바치는 쌀. 여기서는 계원에게 거두는 쌀을 말한다.

8 담지(擔持): 상여 등 무거운 물건을 틀가락으로 메는 사람.

9 화: 싸리나 갈대 따위를 묶어 불을 붙여서 밤길을 밝히거나 제사 때 화톳불을 놓는 데 쓰는 물건.

방하다. 양혼(兩婚)에 한하여 차하(次下)한다.

一. 婚則洞內下人沒數各持烽炬 一日侍陪爲旂 洞員則各出鷄一首扶助事 或無鷄則明太五尾¹⁰ 代納無妨事 限兩婚次下事

一. 부자(父子)와 형제(兄弟)가 함께 들어올 경우의 계원에 대한 상하사(上下事) 부모 장사 때에는 형제가 보미(保米)를 내고, 초상(初喪), 소상(小祥), 대상(大祥)에는 차례로 상하(上下)한다. 일꾼은 형제 중 한 번 출하(出下)하며, 출하(出下)하지 못한 동원(洞員)은 일꾼 값만큼의 쌀 3말을 거두어 합해서 상하(上下)한다. 차례의 규약은 보미(保米)를 상하(上下)하는 것과 같다.

一. 父子兄弟俱入員上下事 父母喪時 兄弟則保米 初喪小大詳次之上下 役軍則兄弟中一件 出下 未出下員則役軍價白米三斗收合 上下事 次次之規 與保米 上下同

一. 결혼식과 장례식 때, 무릇 짐꾼, 일꾼, 화, 닭을 상하(上下)할 때 상유사(上有司)가 앞서 명령을 내려서 알려준다.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노비를 20대 친 후 거두어들이지 못한 물건을 거두어 혼상가(婚喪家)에 지급한다.

一. 婚喪時 凡擔持役軍烽炬鷄首上下時 上有司前期知委 而或有未收之舉 則笞奴二十度後 未收之物 徵給主家事

一. 상하 계원에 대한 장비의 세는 전문(錢文)은 1냥, 차일 휘장 병풍은 5전, 철물 3전, 요여(要輦)¹¹ 2전, 목기(木器) 2전이 항상 일정한 것이다.

一. 上下裝貫則 錢文壹兩 遮帳屏風 五錢 鐵物則參錢 要輦貳錢 木器貳錢 恒定事

一. 일꾼이 20명 이내일 때 만약 나오지 않으면 벌전(罰錢) 3전씩 내기로 정하고 부역에 나갔을 때에는 하유사(下有司)가 지휘 통솔한다.

一. 役軍二十名內 若有未到則罰錢三錢貳式 論定而赴役時 下有司領率事

10 尾: 마리

11 요여(要輦): 신주 모시는 작은 가마.

- 一. 무술년(戊戌年) 12월 추완의(追完議). 양상(兩喪) 아래는 이로부터 동네 대동계의 규칙이다. 지금 동네 기물이 고갈되어 다 없어져서 하나의 상례 치르는 것도 넉넉하지 않다. 지금부터 하나의 상례(喪禮)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 一. 戊戌臘 追完議 兩喪次下 自是洞內大同之規事目 今洞物凋渴爲盡 一喪之不瞻 則自今爲始 一喪外勿許事

- 一. 기해년(己亥年) 겨울 추완의(追完議). 지외(池外)와 지내(池內)는 한 동네다. 지금은 비록 둘로 나뉘어졌으나 서로 호의적인 의리가 있다. 만약 동시에 양상(兩喪)이 있으면 큰 상여는 상의해서 함께 쓰고 항상 일정한 것으로 삼는다.
- 一. 己亥冬 追完議 池外池內者是一洞 而今雖分二 其在相好之義 若有一時兩喪之舉 則大輦相議通用 以爲恒定事

- 一. 갑진년(甲辰年) 봄 공회일(公會日) 완의(完議). 지금부터 시작해서 동원(洞員) 중에 만약 동임(洞任)을 능멸하는 자가 있으면 이름을 지워버리고 마을에서 쫓아낸다.
- 一. 甲辰春公會日完議 自今爲始 洞員若有凌蔑洞任者 割名黜洞事

협동조합 관련 추천도서 목록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100년의 약속	신협중앙회	신협
2	2020한국경제대전망	이근 외	21세기북스
3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자마니	북돋움
4	21세기를 대비한 협동조합의 재창조	에드가 파넬	축협중앙회
5	5	존 레스타키스	착한책가게
6	UN지속가능발전목표와문화정책의 대응방안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	가슴뛰는 회사	존 에이브램스	산티
8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진희선	인사이트브리즈
9	감자골 삼형제의 사회적경제 이야기	이강익 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1	거대한 전환	칼폴라니	길
12	걸어온만큼 가로등을 켜는 일 같아요	이정화	코뮤니타스
13	골목길자본론	모종린	다산
14	공유경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엘릭스 스테파니	한스미디어
15	공유의비극을넘어	엘리너 오스트롬	랜덤하우스코리아
18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문진수	북돋움
21	기본소득시대	홍기빈 외	아르테
22	기업소유권의 진화	헨리한스만	북돋움
23	깨어나라 협동조합	김기섭	들녘
26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와카츠키 타케유키	그물코
27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사이먼사이넵	타임비즈
28	나는잘살고싶어나누기로했다	전성실	착한책가게
29	농살림을 디자인하다	임경수	들녘
30	누가 민주국가의 적인가	서희숙	컴퍼니콜
31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파블로솔론 외	착한책가게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34	데이터분석의 힘	이토고이치로	인플루엔셜
35	도넛 경제학	케이트 레이워스	학교재
36	동네에서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기	워커즈콜렉티브 네트워크재팬	그물코
37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김형미 외	푸른나무
38	로버트 오언	홍기빈 옮김	칼폴라니연구소
39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 역사와 사람들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그물코
42	로컬 전성시대		어반플레이
43	로컬이미레다	추창훈	에듀니티
44	리더를 위한 사회적경제 강의	사단법인 선	아르케
45	마을 전문가가 만난 24인의 마을주의자	정기석	펄박스
46	마을기업 희망공동체	정윤성	씽크스마트
47	마을기업 희망공동체(공동체를 살리는 시리즈 1)	정윤성	씽크스마트
50	마을만들기를 위해 알아야 할 28가지	폴 매티시	그물코
51	마을시민으로 사는 법	정기석	소나무
52	마을에서 함께 읽는 지역관리기업 이야기	김신양	착한책가게
53	마을에해답이있다	공석기 외	진인진
54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기업	정기석	이매진
55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박재동·김이준수	산티
56	마을을 품은 공동체를 짓다	류현수	예문
57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구자인	소박한풍경
58	만들자 학교협동조합	박주희 주수원	맘에드림
59	만물은 서로 돕는다-코로나포스트킨의상호부조론	P. A. 코로나포트킨	르네상스
62	모든 것이 되는 법	에밀리 와프닉	웅진지식하우스
63	몬드라곤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았나	그레그 맥레오드	착한책가게
64	무함마드유누스의 사회적기업 만들기	무함마드유누스	물푸레
65	반영조직	구기욱	코리아북스
68	백만개의 조용한 혁명	베네딕트 마니에	책세상
69	벨류프로포지션디자인	그렉버나다 외	생각정리연구소
70	별난기업으로 지역을 살린 아르들렌 사람들	베아트리스바라스	착한책가게
71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홍기빈	책세상
72	사회적가치비즈니스	최인석	지형
73	사회적가치와 사회혁신	박명규	한울
75	사회적경제남북을있다	김해순 외	맑은나무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77	사회적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우석훈	문예출판사
78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김기섭	들녘
79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	고동현 외	한울아카데미
80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임팩트	주성수	한양대학교
83	사회적경제와 소셜이노베이션	김일태 외	전남대
84	사회적경제의 발견	강윤정 외	포도밭
85	사회적경제의힘	마리	아이쿱연구소
86	사회적경제컨설팅방법론	윤승배	한성대학교
87	사회적기업가와 새로운 생각의 힘	데이비드 본스타인	지식공작소
88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한겨레경제연구소	아르케
89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제프 멀건	시대의 창
90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기업가 21인의 세상고쳐쓰기	이희수	부키
91	새벽 세시의 몸들에게	메이	봄날의 책
94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레이들로보고서)	김동희 역	한국협동조합연구소
95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일곱가지 원칙	장종익·김신양	한국협동조합연구소
96	성장 없는 번영	팀 잭슨	착한책가게
97	세계의지속가능도시재생	민유기	국토연구원
98	소득의 미래	이원재	어크로스
99	소셜이슈분석과기회탐색1	강민정 외	에딧더월드
102	소셜이슈분석과기회탐색2	강민정 외	에딧더월드
10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아너스 오르네	그물코
106	스텝바이스텝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주수원	착한책가게
107	시골방집에서 자본론을 굶다	와타나베이타루	더숲
108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존개스틸 외	시그니처
110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칼폴라니의 사회경제론	김영진	한울아카데미
111	신분피라미드사회	하승우	이상박스
112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협동조합 업무지식	김정호	원앤원박스
113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흥기빈	책세상
114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흥기빈	책세상
115	아이러브학교협동조합	박선하 외	맘에드림
117	아이쿱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차형석 외	알마
120	아픈 몸을 살다	아서프랭크	봄날의 책
121	악탈적 금융사회	제윤경·이현욱	부키
122	영국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조영복 외	시그마프레스
123	우리 마을입니다	갯골생태농업연구소	그물코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126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	김성오 외	겨울나눔
127	우리는 마을에 산다	유양우 외	살림터
132	우리는 왜 농촌 흥동마을을 찾는가	송두범 외	그물코
133	우진교통이야기	강수돌	이사복스
134	의료협동조합을 그리다	백재중	건강미디어협동조합
136	의자놀이	공지영	휴머니스트
137	이런 협동조합이 성공한다	김은남	개마고원
138	이런 협동조합이 성공한다	김은남	개마고원
139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이원재	어크로스
140	이키가이	켄모기	밝은세상
143	이타적 유전자	매트리들리	사이언스 북스
146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지역전개	타나가 나츠코	아르케
149	이탈리아와 독일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장종익 외	동하
152	인류 최악의 미덕 탐욕	스테파노 자마니	북돋움
155	일본의커뮤니티케어	니키류	북마크
156	입문협동조합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알마
161	자동화된 불평등	버지니아유뱅크스	북트리거
162	자비없네 잡이 없어	김민아 외	희망제작소
165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권순우 외	아이비라인
166	장일순평전	김삼웅	두레
169	전환의 시대, 마케팅을 혁신하다	이무열	착한책가게
170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 이수연	레디앙
171	제로성장시대가 온다	리처드 하인버그	부키
172	좁쌀 한알 장일순	최성현	도솔
173	좁쌀한알에도 우주가 담겨있단다	김선미	우리교육
174	줄리엣과 도시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	윤찬영	새사연
177	지금 여기 협동조합	이현정	어젠다
178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무엇인가	달로이트	진성북스
181	지역관리기업, 사회관계를 엮다	마르끄하썰펠트	착한책가게
182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연구	구형수	국토연구원
183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그레고 맥레오드	한살림
184	청춘 착한기업 시작했습니다	이희수	부키
187	체인지메이커 혁명	베벌리 슈왈츠	에이지
188	체인지메이커	이나리	와이즈베리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189	초협력자	마틴 노왁, 로저 하이필드	사이언스 북스
190	칼 폴라니,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	칼 폴라니	착한책가게
191	코로나19년 초회복의 시작	이원재 외	어크로스
192	코로나사피엔스	최재천 외	인플루엔셜
193	트렌드코리아2020	김난도 외	미래의창
194	트렌드코리아2021	김난도 외	미래의창
197	팀이란 무엇인가	메러디스벨빈	라이프맵
198	팩트폴니스	한스로슬링 외	김영사
199	포스트코로나와로컬뉴딜	유창복	책숲
202	품무학교를 열며	이찬갑	그물코
203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티에리 장테	알마
204	플랫폼경제, 협동조합을 만나다	사이먼보킨	착한책가게
205	하고싶은 일이없는 사람은 사회적기업가가되어야	야마모토시게루	생각비행
206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뻔했다	김수현 외	어바웃어북
207	학교 기성복을 벗다	엘리엇 레빈	민들레
208	학교협동조합 A to Z	주수원·박주희	맘에드림
209	학교협동조합, 현장체험학습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잇다	박주희 외	살림터
210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김신양 외	한울아카데미
211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1	100년사 편찬위원회	가을의아침
212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2	100년사 편찬위원회	가을의아침
213	혁신교육지구와마을교육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태정	살림터
214	혁신모델의 탄생	비제이 쿠마	틱옴
215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김창진	가을의아침
216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에드가 파넬	그물코
217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	알마
218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	장종익	동하
219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실무	김용한·하재은	지식공감
220	협동조합 지역경제론	전성군·송춘호·장동헌	한국학술정보
221	협동조합 참 쉽다	이대중	푸른지식
222	협동조합 참 좋다	김현대	푸른지식
223	협동조합 참 좋다	김현대	푸른지식
224	협동조합 클로즈업	김현하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24	협동조합 회계세무 무작정 따라하기	유종오	길벗
225	협동조합도시 볼로냐를 가다	김태열 외	그물코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226	협동조합도시	김현대	한올아카데미
227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 실천편	강민수·박범용	북돋움
228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스테파노 자마니, 베라 자마니	북돋움
229	협동조합으로 집짓기	홍새라	휴
230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존 레스타키스	착한책가게
231	협동조합의 오래된 미래 선구자들	윤형근	그물코
232	협동조합의 지역개발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33	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세무 경리의 모든 것	김정호·김석호	원앤원북스
234	호세마리아 신부의 생각	호세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칼폴라니연구소

부록4

—

참고자료

참고자료

춘천지역 협동조합운동사

2021년 9월 30일 발행

발행처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55, 3F 전화 033.910.0201 팩스 033.910.0202

발행인

조경자

연구수행기관

(주)나비스설컴퍼니

기획 및 연구 총괄

김윤정

참여 연구진

전흥우, 김익수, 허윤정, 안서희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한광수 이재옥 김선옥 전기환 엄형식 임형석 외 인터뷰 참여 및 자료제공자
가톨릭춘천신협, 춘천와이신협, 춘천두레생협 외 자료제공기관

인쇄 및 편집디자인

도서출판 산책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дук길23, 1F 전화 033.254.8912 팩스 033.255.8912

ISBN

000-000-0000-000-00